醫學正傳 해석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전의사학교실
김동환

Ⅰ. 序 論

韓醫學은 《黃帝內經》에서 그 理論的 基礎가 確立되었고, 東漢 仲景 張機의 《傷寒雜病論》에서 그 臨床的 基礎가 確立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로 金元四大家를 비롯한 各家學說이 나와서 각기 醫學의 一面을 發展시켜 왔다.

虞摶(1438-1515)은 明代의 醫家로서, 時代的으로는 金元四大家의 한 사람인 丹溪 朱震亨보다는 約 150年 떨어지고, 明代 景岳 張介賓보다는 約 120年 앞서 있다. 그의 醫學은 《黃帝內經》·《難經》을 根本으로 하였고, 傷寒은 張機, 脈法은 王叔和, 小兒科는 錢乙의 法을 본받았으며, 그리고 金元四大家의 학술적 장점을 취합하여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또한 丹溪와 同時代·同鄕인 祖父의 醫學을 이은 三世의 醫家로서, 특히 丹溪의 학술사상을 私叔하였다. 晩年에 諸家學說을 종합하고 자기의 의견과 임상경험을 곁들인 綜合醫書인 《醫學正傳》을 撰하였는데, 그 가운데 首篇인 《醫學或問》은 《黃帝內經》·《難經》·《脈經》및 各家學說에 대한 疑難點과, 당시의 呪術的 의료폐단에 대하여 問答의 形式을 빌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이 《醫學或問》 가운데 몇몇 특출한 醫論은 張介賓등 後世醫家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본 논문은 虞摶의 醫學觀을 연구하기 위하여 먼저 《醫學或問》을 번역하였고, 그리고 《醫學或問》에 담긴 내용을 分析, 批判하였다. 아울러 편의상 每 或問마다 번호를 붙였음을 밝힌다.

본 논문의 底本은 明의 嘉靖辛卯(1531)本을 1604년 日本에서 重刊한 書에다, 日本 平樂寺刊本(1622)과 吉野屋權兵衛本(1659)등을 比較 參考하여 1963年 12月에 上海會文堂에서 出刊한 本을, 다시 1986年 4月 28日 成輔社에서 出刊한 冊으로 原本을 삼았다.

II.《醫學或問》의 原文및 飜譯

1) 或問: 醫學源流, 自軒岐以來, 以醫術鳴世, 與夫著書立言, 俾後人之可法者, 幾何人哉? 請明以告我.

曰: 予嘗聞故學士宋公景濂之文而得其說矣, 請陳如下; 夫《黃帝內經》, 雖疑先秦之士依仿而作之, 其言深而要, 其旨邃以弘, 其考辯信而有徵, 是當爲醫家之宗. 下此則秦越人, 和·緩, 和·緩無書可傳, 越人所著《八十一難經》, 則皆擧《內經》之要而推明者也. 又下此則淳于意, 華陀, 陀之熊經鴟顧, 固亦導引家之一術, 至于刳腹背, 瀏腸胃而去疾, 則涉于神怪矣. 意之醫狀, 司馬遷備志之, 其所謂迥風, 沓風者, 今人絶不知爲何病也, 況復求其治療之深旨乎. 又下此則張機之《金匱玉函經》及《傷寒》諸論, 誠千古不刊之妙典, 第詳于六氣所傷, 而于嗜欲食飲罷勞之所致者略而不議, 兼之文字錯簡, 亦未易以序次求之也. 又下此則王叔和, 叔和纂岐伯, 華陀等書爲《脈經》, 敍陰陽內外, 辨三部九候, 分人迎氣口, 條陣十二經絡, 洎夫三焦五臟六腑之病, 最爲著明, 惜乎爲高陽生括以膚陋之脈歌, 遂使其本書不盛行于世也. 又下此則巢元方, 其《病源候》編, 似不爲無所見者, 但言風寒二氣而不著濕熱之文, 乃其失也. 又下此則王氷, 氷推五運六氣之變, 撰爲《天元玉冊》, 周詳切密, 亦人之所難, 苟泥之, 則局滯而不通矣. 又下此則王燾, 孫思邈, 思邈以絶人之識, 操慈仁惻隱之心, 其書《千金方》·《翼》, 及粗工害人之禍, 至爲憤切, 後人稍聞其藩垣, 亦足以其術鳴, 但不制傷寒之書, 或不能無遺憾也. 燾雖闡明《外臺秘要》, 所言方證符禁灼灸之詳, 頗有所祖述, 然謂針能殺生人而不能起死人者, 則一偏之見也. 又下此則錢乙, 龐安常, 許叔微, 叔微在准繩尺寸之中, 而無所發明, 安常雖能出奇應變, 而終未離于範圍, 二人皆得張機之粗者也. 惟乙深造機之閫奧而擷其精華, 建爲五臟之方, 各隨所宜, 謂肝有相火, 則有瀉而無補, 腎爲眞水, 則有補而無瀉, 皆啓《內經》之秘, 尤知者之所取法也, 世概以嬰孺醫目之, 何其知乙之淺哉. 其遺書散亡, 出于閻孝忠所集者, 多孝忠之意, 初非乙之本眞也. 又下此則, 上谷張元素, 河間劉完素, 睢水張從政, 元素之與完素, 雖設爲奇夢異人以神其授受, 實聞乙之風而興起者焉. 若從政, 則又宗乎完素者也. 元素以古方今病決不能相値, 治病一切不以方, 故其書亦不傳, 其有存于今者, 皆後來之所附會, 其學則東垣李杲深得之. 杲推明內外二傷, 而多注意于補脾土之說, 蓋以土爲一身之主, 土平則諸臟平矣. 從政以吐·汗·下三法, 風·寒·暑·濕·燥·火六門, 爲醫之關鍵, 其治多攻利, 不善學者殺人. 完素論風火之病, 以《內經》病機氣宜一十九條著爲《原病式》, 閫奧粹微, 有非大觀官局諸醫所可彷彿, 究其說施, 則亦不越攻補二者之間也. 近代名醫若吳中羅益, 滄洲呂復, 皆承東垣之書著, 武林羅知悌, 丹溪朱彦修, 各挹完素之風流. 又若臺之朱佐, 越之滑壽, 咸有著述, 未易枚擧. 自有《內經》以來, 醫書之藏有司者, 一百十九家, 二百有九部, 一千二百五十九卷, 亦不爲不多矣. 若夫歷代名醫, 今但擧其最者言之耳, 豈能悉具于斯乎.

1)或者가 묻기를: 醫學의 源流는 黃帝 軒轅과 岐伯으로부터 始作되어 醫術로써 世上에 알려진 것과, 무릇 著書를 통해 學說을 세워 後人들이 본받을만한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밝혀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옛 學士인 宋景濂의 글을 읽고 그 說을 알았는데, 陳述하자면 다음

과 같다. 대저 《黃帝內經》은 비록 先秦의 士가 黃帝의 이름을 빌어서 지은 것으로 疑心되지만, 그 말하는 바가 깊고 重要하며, 그 뜻이 깊으면서도 넓으며, 그 論辨을 考察하면 믿을 만 하고 徵驗이 있으니, 이는 당연히 醫家의 祖宗이 된다. 그 다음으로는 秦越人[1]과 醫和[2]와 醫緩[3]이 있는데, 醫和와 醫緩은 전해진 冊은 없으며, 秦越人의 著書인 《八十一難經》은 모두 《內經》의 要旨를 들어 미루어 밝힌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淳于意[4], 華陀[5]인데 華陀의 熊經鴟顧 등의 五禽戲는 진실로 또한 導引家의 하나의 技術이나, 腹背를 갈라 腸胃를 씻어내어 疾病을 除去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실로 神怪한 경지에 들어간 것이다. 淳于意의 醫療狀況은 司馬遷의 《史記列傳》에 記錄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른 바 逈風·沓風[6]이라는 것은 지금 사람이 결코 어떤 病인지 조차 알 수가 없는데, 하물며 그 治療의 깊은 뜻을 다시 구할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張機[7]의 《金櫃玉函經》과 《傷寒》의 諸論인 바, 진실로 千古에 바뀌지 않을 妙典이지만, 단지 六氣에 損傷한 바에 대해서는 자세하지만, 嗜欲·飮食·勞倦에 의해 病된 것에 대해서는 省略하여 말하지 않았고, 게다가 文字의

1) 扁鵲: 戰國時代의 뛰어난 醫家. 大略 紀元前 5世紀 前後의 사람이다. 本名이 秦越人이며 渤海 鄭郡(지금의 河北 任邱)人임. 當時의 診斷法인 望問聞切등의 方法을 總結하여 臨床實際에 應用함이 뛰어났다. 특히 脈診에 精通하여 中國脈學의 唱導者로 推崇된다. 그는 實際需要와 風俗에 따라 자신의 專門科를 바꾸어, 趙나라에 있을 때는 '帶下醫'(婦人科)가 되고, 周나라에 있을 때는 '耳目痺科'(五官科)가 되고, 秦나라에 가서는 '小兒醫'가 되어 醫名을 크게 떨쳤다. 그는 또 巫術과 迷信을 반대하여, '六不治'의 思想가운데 "信巫不信醫者는 治療할 수 없다"는 內容을 包含시켰다. 秦나라 太醫令 李염의 猜忌를 사서 殺害되었음. 《漢書·藝文志》에 《扁鵲內經》과 《扁鵲外經》의 書目이 실려 있으나 모두 佚失되었다. 現存하는 《難經》은 後人이 秦越人의 作品으로 托名한 것임.

2) 醫和: (B.C. 6世紀) 春秋時代 秦나라의 名醫. 疾病은 鬼神의 所致가 아니고, 自然界의 氣候의 異常變化로 惹起됨을 指出하였음. 그가 提起한 陰, 陽, 風, 雨, 晦, 明의 六氣致病說은 六氣가 各科疾病을 일으키는 主要原因이라고 본 것으로 소박한 科學的 思想을 內包하고 있다.

3) 醫緩: 春秋時代 秦나라 名醫. 《左傳》의 記錄에 의하면, 晉侯가 病이 나서 먼저 巫를 불러 治療했으나 效를 보지 못했다. 나중에 秦나라에 醫師를 구하니, 秦王이 醫緩을 보내어 晉侯를 治療하게 하였는데, 醫緩은 病이 "膏之上, 肓之下"에 있어서 病이 重하므로 治療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後世에 藥도 없고 治療할 수도 없는 疾病을 "病入膏肓"이라고 形容하는 것이 여기에서 由來되었음.

4) 淳于意: (大略 B.C. 215年-?) 西漢時의 著名醫家. 齊의 臨菑(지금의 山東 臨淄)人. 太倉長의 職을 지냈으므로 倉公 혹은 太倉公이라 稱함. 일찍이 公孫光, 公承陽慶 等人으로부터 先後해서 醫學을 배워, 醫術이 高明했으며, 특히 脈法의 運用을 重視하고, 治病에 언제나 針藥을 併用해서 좋은 療效를 얻었음. 《史記·扁鵲倉公列傳》에 그의 治療 25個 病例의 情況이 記載되었는데, 그 중 西漢이전 醫學文獻중의 有關材料가 保存되어 있고, 또 그의 疾病治療에 成功한 經驗과 失敗한 教訓이 如實히 記錄되어 있는데, 당시 이를 《診籍》이라 稱하였음.

5) 華陀: (?-208年) 東漢末의 뛰어난 外科學者. 이름을 敷라고도 하며, 字는 元化임. 沛國譙(지금의 安徽豪縣)人. 醫學上 매우 높은 成就가 있어서 內. 外. 婦. 兒. 鍼灸 等科에 通達했는데, 특히 外科와 鍼灸에 精通했다. 그는 과감히 當時의 一般的인 思考方式과는 달리, 外科手術治療를 提倡하였음. 史書에 記載된 바에 의하면, 그는 일찍이 '麻沸散'의 酒服을 創始해서 全身麻醉를 하여, 腹腔의 腫物을 切除했으며, 胃腸手術을 하는 등으로 좋은 成果를 거두었다. 鍼灸에 있어서 그는 脊椎 兩傍의 夾脊部의 穴位를 創用했는데, '華陀夾脊 穴'이라 稱하여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또한 體育鍛鍊으로 體質을 增强시켜, 疾病을 防治할 것을 主張함. "人體는 勞動해야 하는데, 다만 너무 지나쳐서는 안된다. 運動하면 穀氣가 消散되고 血脈이 流通하여 病이 생기지 않는다. 비유컨대 戶樞(문지도리)가 썩지 않는 것과 같다."고 指摘하였음. 虎. 鹿. 熊. 猿. 鳥의 動作과 姿態를 모방하여 肢體를 活動하는 一種의 '五禽戲'를 創制하였다. 後에 曹操에게 殺害되었음. 史料에는 華陀가 《枕中灸刺經》等 多種의 醫書를 著作했다고 하나 모두 佚失됨. 《中藏經》은 後人이 華陀의 이름을 托名하여 지은 것이다.

6) 倉公 淳于意가 患者의 情況에 대해 25가지 例로써 說明한 內容이 《史記. 扁鵲倉公傳》에는 蟯瘕, 湧疝, 肺消痺, 不乳, 齲齒, 沓風, 逈風, 服石中熱, 牡疝등의 病을 診療한 記錄이 있는데서 由來됨.

錯簡도 兼하고 있어 序次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은 王叔和[8]로 岐伯과 華陀의 書들을 모아 《脈經》을 著作하여, 陰陽內外를 敍述하고, 三部九候를 分辨하고, 人迎氣口를 나누며, 十二經絡을 條目별로 陳述하였으며, 三焦와 五臟六腑의 病에 이르러서는 가장 著名하였다. 애석하게도 高陽生의 膚陋(얕고 좁음)한 脈訣에 結聚되어, 마침내 그 本書가 世上에 盛行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음은 巢元方[9]이니 그의 《諸病源候論》 編은 불만한 것이 없지 아니한 것 같으나, 다만 風寒의 二氣에 대해서만 言及하고 濕熱에 관한 文은 짓지 않았으니, 이것은 곧 失策이다. 그 다음은 王氷[10]으로 五運六氣의 變化를 미루어 《天元玉冊》을 撰하여 두루 상세하고 꼼꼼하였으나, 또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바에 구차하게 얽매여 막혀 通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은 王燾[11], 孫思邈[12]이니, 思邈은 남보다 훨씬 뛰어난 知識과, 仁慈하고 惻隱하게 여

7) 張機: (2世紀中-3世紀) 東漢時期의 傑出한 醫學家. 字는 仲景이며, 지금의 河南 南陽人. 그의 治學態度는 嚴謹하여 先代醫學의 醫家經驗을 매우 重視하였고, 當代醫家의 實踐知識을 採擇했다. '勤求古訓, 博采衆方'의 思想으로 《內經》 등 古典醫籍의 理論에 依據하여 當時醫家들의 傳染病 治療의 影響方法을 廣範하게 吸收하고, 個人의 心得한 바를 結合시켜, 이를 상당한 理論의 水準으로 끌어올려 創造性있는 《傷寒雜病論》을 著述했다. 此書를 後人들이 《傷寒論》 및 《金匱要略》 2書로 整理하여 만들었다. 이 書에는 傷寒등 急性熱病의 治療에 있어서, 먼저 太陽·少陽·陽明·太陰·少陰·厥陰등 六經辨證의 辨證論治原則과 方法을 詳細하고 內·外·婦·兒科·雜病 方面에 있어서는, 陰陽·表裏·虛實·寒熱 등 八綱辨證과 汗·吐·下·和·溫·淸·補·瀉등 多種의 治療法則을 闡述했다. 이리하여 中醫學術의 辨證論治原則을 發展시키는 基礎를 세워 놓았다. 그의 治學態度, 學術思想과 學術成就는 中醫學術의 發展에 매우 큰 影響을 끼쳤다. 그가 創立한 적지 않은 治療原則과 方法은 지금까지 여전히 有效하며, 中國醫學의 發展에 傑出한 貢獻을 이룩했다. 後代에 '醫聖', '醫方之祖'로 尊崇됨

8) 王叔和: (A. D. 3世紀) 西晋時期의 醫家. 名은 熙, 高平(一說 山東淸寧, 지금의 山西高平)人. 太醫令을 歷任하였고, 脈學을 깊이 硏究하여, 그 前代의 文獻중 脈學과 有關한 內容에 自己가 터득한 것을 結合시켜 《脈經》 十卷을 編成했는데, 二十四種 脈象의 意義를 列述하여 古代脈學을 系統化시켰음. 이는 中國에 現存하는 最初의 脈學專門書이며, 國外에도 상당한 影響을 주었다. 그는 또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을 整理하여, 古代 醫學文獻을 保存해서 醫學의 發展을 促進하는데 상당한 貢獻을 하였음.

9) 巢元方: 隋代의 醫學家. 本籍은 未詳 大業年中(605-616年)에 太醫博士가 되고, 610年 《諸病源候論》의 共同編成을 主宰했는데, 이는 中國에서 첫째의 疾病病因과 證候를 論述한 專門書이다. 巢氏등의 思想에는 保守性이 적고 革新性이 많아서, 大衆의 經驗을 重視하여 과감히 새 病因學說을 받아들이고 提起함. 예컨대 傳染病에 대하여 원래의 六淫學說에 만족하지 않고, 이는 外界의 有害物質-'疠疫之氣'의 所致로, 相互傳染하는 것이며, '預服藥'으로 豫防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疥의 病因에 대해, "并皆有虫, 人往往以針頭挑得."이라고 지적하였다. 炭疽의 病因은 사람에게 瘡이 있을 때 牲畜에 接觸되어 傳染된다고 보았다. 漆瘡등의 過敏性疾病은 사람의 稟性素質과 有關하다고 하였다. 특히 小兒의 護理와 婦女妊娠時의 保健에 관하여 大衆이 배워야 함을 主張함. "사골의 小兒는 自然에 맡겨 키우므로 거의 橫夭가 없다"고 하고, 婦女가 妊娠하면 적당한 勞動으로 "骨氣를 强하게 하여, 胎를 養盛케해야 한다"고 하여, 富裕層이 小兒를 호사스럽게 기르고 貴婦人이 臥床養胎하는 習習에 批判을 提出함. 巢氏등이 記錄한 腸吻合 手術도 中國外科史上 하나의 重要成果임.

10) 王氷: 唐代의 醫家. 스스로 號를 啓玄子라 함. 일찌기 太僕令의 官職을 歷任했음. 王氏는 《素問》이 "世本紕繆, 篇目重疊, 前後不倫, 文義隱賾."하다고 보아, "十二年間을 精勤博訪"하고, "錄舊說之卷 合八十一篇"하여 A. D. 762年에 《注黃帝素問》, 二十四卷을 撰成했는데, 이는 全元起가 《黃帝素問》을 注한 뒤로 다시 한번 整理注釋한 것으로 世稱 《注黃帝素問》이라 한다. 王氏는 《次注》에서 적지 않게 發揮해서 中醫學의 發展에 매우 큰 影響을 끼쳤다.

11) 王燾(約 670-755年): 唐代의 醫學家. 郿(지금의 陝西郿縣)人. 世醫出身이며, 醫學을 좋아했음. 弘文館(國家圖書館)에 二十餘年間 在職하여 群書를 널리 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諸家醫方을 採集함. 후에 病風으로 左臂廢한 후에도 계속 醫學文獻을 整理하여 《外臺秘要》 四十卷을 編成했는데, 이는 唐代 이전의 方劑를 集大成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中醫重要文獻의 하나이다.

12) 孫思邈: (581-682年) 唐代의 著名한 醫學家. 京兆

기는 마음을 가지고, 《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을 敍述하였다. 또 粗工이 사람을 害하는 禍에 지극히 憤切하였으며, 後人이 그 경지를 조금 엿보아도, 또한 족히 그 醫術이 世上에 드러날 만했다. 다만 傷寒의 書를 따르지 아니하여 혹 遺憾이 없지 않다. 王燾는 비록 《外臺秘要》를 闡明하여 方證·符禁·灼灸를 말한 바, 詳細함은 자못 祖術된 바가 있지만, 그러나 針은 산 사람을 죽일 수는 있으되, 죽은 이는 살리지는 못한다고 말한 것은 偏狹된 생각일 뿐이다. 다음은 錢乙[13]과 龐安常[14], 許叔微[15]로 許叔微는 準繩尺寸(法則)에 的中하였지만 獨創的으로 發明한 바는 없다. 龐安常은 비록 奇異함을 提出하고 應變에 능했으나, 끝내 그 範圍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張機의 粗粕을 얻은 정도이다. 오직 錢乙만이 張機의 深奧한 뜻에 깊이 到達하여, 그 精華를 얻어서 五臟의 方을 세워 각기 마땅한 바를 따랐고, 肝은 相火가 있어 瀉할 수는 있으나 補할 수는 없으며, 腎은 眞水가 되니 곧 補할 수는 있으나 瀉할 수는 없다."하였으니, 모두 《內經》의 秘訣을 연것으로 더욱 知者가 法으로 取할 만한 것이다.

華原(지금의 陝西 耀縣)人. 그는 唐太宗 등의 國子博士로 任命한다는 請聘을 거절하고 오랫동안 民間에 居住. 淸朴한 生活을 하면서 藥物을 採集하고, 醫學을 硏究하여 사람들의 疾病을 治療하며 著述, 立敎하였음. 歷以前의 中國醫學發展의 豊富한 經驗을 系統的으로 總結하고, 個人의 80年間의 臨床經驗을 結合하여, 歷部의 醫學巨著, 《千金要方》 30卷과 《千金翼方》 30卷을 著作했음. 學術上 孫氏는 民間醫療經驗을 重視하여 動物의 甲狀腺을 써서 甲狀腺腫大를 防治하였고, 動物肝을 써서 夜盲症을 防治하였으며, 槪葉을 應用 尿道管으로 써서 尿閉病人에게 導尿術을 施行하였으며, 전해 내려오던 下頜脫臼의 整復法을 記錄하여 현재까지 줄곧 活用되게 하였는데, 그가 使用한 硫黃伏火法則은 中國 最初의 火藥配方이 되었음. 이 밖에 採藥, 炮炙, 針藥併用의 經驗등에 대해 모두 상당한 貢獻을 하였음. 특히 귀히 여길만한 것은 孫氏가 鬼神이 錯亂을 일으키고, 服石으로 長生한다는 것등에 대하여 批判的態度를 가지고, 著述의 病因과 養生之道를 정확히 論述한 것이다. 孫氏는 治學精神에 있어서 舊成規例를 墨守하지 않고, 仲景學說을 두드러지게 發展시켰음.

13) 錢乙: (大略 1032-1113年) 北宋의 著名한 小兒科醫家. 字는 仲陽이고, 鄆州(지금의 山東 東平)人. 幼年時에 孤兒가 되어 姑母의 養育을 받았으며, 成人이 되어 姑母夫인 閭氏로부터 醫學을 배워 刻苦硏鑽한 끝에 實踐을 重視하고 傑出한 小兒科醫家가 되어 山東一帶에서 자못 名聲을 떨쳤음. 후에 1078-1085年(元豊年間)을 前後해서 長公主와 皇子의 病을 治愈하여 翰林醫學으로 除授되었으며, 아울러 太醫丞을 歷任했음. 후에 病으로 인해 辭退함. 錢氏는 60年間 小兒科를 專業하여 豊富한 臨證經驗을 쌓아, 一部 常見小兒病인 驚風, 吐瀉, 咳嗽, 天花, 麻疹등의 診斷, 豫防과 治療에 대하여 모두 進一步的인 發展을 이룩하여 五臟을 綱으로 하는 小兒科辨證方法을 總結하였으며, 治療上 柔潤의 原則을 主張하고, 補瀉를 同時에 進行해야 함을 强調하였음. 古人의 經驗에 拘碍되지 않고, 古方의 變化와 新方의 創制를 잘하였다. 예컨대 痘疹의 初起를 升麻葛根湯으로 治하고, 小兒心熱을 導赤散으로 治하고, 脾胃虛弱, 消化不良을 異功散으로 治하며, 또 胃陰不足을 六味地黃丸으로 治하는 등인데, 모두 비교적 좋은 療效가 있어서, 後世醫家들이 推仰하고 應用하였다. 그의 理論, 臨床經驗과 醫案을 閻孝忠이 整理하여 1114年(政和 4年)에 《小兒藥證直訣》로 編成하였는데, 中國 小兒科의 發展에 매우 큰 貢獻을 하였음.

14) 龐安時: 字가 安常이고, 蘄州 蘄水人이며, 神哲間(1068-1100年)의 名醫로 世醫 家庭에서 태어나 그의 아버지에게 脈訣을 배웠으며, 脈理에 뛰어났다. 代表的인 著書로는 《傷寒總病論》이 있고, 그 외에도 《難經辨》, 《主對難》, 《本草補遺》 등이 있다. 특히 《傷寒總病論》은 仲景의 傷寒論을 整理하고, 解釋, 補充하는데 상당한 貢獻을 하였다.

15) 許叔微: (1079-1154年) 宋代의 醫家. 字는 知可이며, 眞州 白沙(지금의 江蘇 儀徵)人. 어려서 家貧하였고, 父母가 잇달아 病死하였으므로 成年이 된 후에 醫學硏鑽에 專念하였는데 患者가 治療를 원하면 貧富를 不問하고 모두 세심히 治療하여 무수한 사람을 구하였다. 1132년(紹興 2年)에 科擧를 보아 進士에 합격하여 集賢院學士로 임명되었으므로 後人이 그를 許學士라고도 稱하였다. 그는 《傷寒百證歌》, 《傷寒發微論》, 《傷寒九十論》 等을 著作해서, 張仲景의 辨證論治理論에 대하여 한층 發展 補充하였음. 그는 古方을 잘 활용하였고 新方을 創制하였으며, 晩年에는 그가 平生 應用한 經驗方과 醫案을 整理하여 《類證普濟本事方》을 編成하였음. 이밖에 《治法》, 《辨法》, 《翼傷寒論》, 《仲景脈法三十六圖》 等書가 있는데 이미 佚失되었다.

世上에서는 錢乙을 嬰孺醫로써만 보니, 그를 앎이 얼마나 얕은가. 그가 남긴 著書들은 散亡되었고 閻孝忠[16]이 收集한 冊에 出하기는 하나, 대부분 孝忠의 뜻이 많이 內包되어 있으며 錢乙의 眞本이 아니다. 그 다음은 上谷 張元素[17]와 河間 劉完素[18], 睢水 張從政[19]이 있는데, 張元素가 劉完素에게 비록 기이한 꿈에 異人이 神으로써 그에게 授受하였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錢乙의 學風을 들어 일어난 者이다. 從政같은 이는 곧 完素에 宗師한 者이다. 元素는 古方과 今病이 결코 서로 맞지 않는다 하여, 病을 治療함에 모두 일정한 方으로써 하지 않았으니, 그 著書가 또한 傳하지 않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모두 뒷 사람들이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며, 그의 學問은 東垣 李果[20]가 깊이 얻었다. 李果는 內外二傷을 미루어 밝히되 脾土를 補하는 說을 重視하여, 대개 土가一身의 主가 된다 하였고, 土가 和平하면 諸臟이 和平해진다고 보았다. 張從政은 汗·吐·下 三法과 風·寒·暑·濕·燥·火의 六門으로써 醫學의 關鍵을 삼아 그 治法은 攻利를 많이 썼으니, 그의 學問을 잘 배우지 않은 者는 殺人하기 쉽다. 劉完素는 風火로 인한 病을 論하였는데, 《內經》의 病機氣宜十九條를 바탕으로 하여 《素問玄機原病式》을 著述하였으니, 深奧하고 精微해서 大觀時의 官局의 諸醫가 미칠 바가 아니었다. 그 說施를 硏究하여 보면 攻補二者의 範圍를 벗어나지 않는다. 近代의 名醫인 吳中 羅天益[21], 滄洲 呂復[22]같은 이는 모두 東垣이 남긴 뜻을 繼承하였으며, 武林 羅知悌[23]와 丹溪 朱彦修[24]는 完素가 남

16) 宋代의 兒科學家. 一名 季忠이라고도 하며, 字는 資欽이다. 大梁(지금의 河南 開封)人. 錢乙의 醫術을 많이 硏究하였으며, 錢乙의 醫方과 著書를 많이 收集하였다. 著書로는 《閻氏小兒方論》, 《中藏保生備效方》 등이 있으며, 《本草綱目》에 《閻孝忠集效方》이 실려있다.

17) 張元素: (12世紀) 金代의 著名한 醫學家. 字는 潔古. 易州(지금의 河北 易縣)人. 幼時부터 四書五經을 공부하였는데 후에 科擧를 포기하고 醫學에 전념하여 醫術에 精通하였다. 記錄에 依據하면 일찍이 名醫 劉完素의 傷寒病을 治愈하여 名聲을 얻었다 함. 당시의 醫學界가 지나치게 古方을 固守하는 風潮에 대한 批評을 提起하여 "運氣不齊, 古今異軌, 古方新病不相能也"라는 見解를 唱導하고, 당시의 氣候變化와 患者體質등의 情況에 根據하여 능란하게 用藥할 것을 主張하여, 臨床의 實際需要에 副應하였으며, 古方을 잘 化裁하여 스스로 新方을 만들었다. 一般 內科雜病에 대하여는 《中藏經》의 影響을 받아 臟腑, 標本, 寒熱, 虛實에 根據하여 用藥을 歸納시켰고, 藥物效用의 장악에 있어서는 氣體厚薄하여 後世醫家들에게 많은 影響을 주었다. 그는 藥物의 性能에 대하여 깊은 硏究를 하였고, 藥物氣味의 升降作用과 藥物歸經등의 問題에 대하여 많은 새로운 見解를 가지고 있었다. 李時珍은 張氏를 《醫樞》, 《素問》 以後의 第一人者라고 讚揚하여 높이 評價하였다. 그의 著作에는 《醫學啓源》, 《珍珠囊》, 《臟腑標本藥式》, 《藥注雖經》 등 書가있다. 그의 學生인 李杲는 그 傳을 다 얻었다. 아들 子璧이 父親의 業을 繼承하여 당시에 이름을 떨쳤다.

18) 劉完素: (大略 1120 -1200年) 金代의 著名한 醫家이며, 金元四大家의 一人이다. 字는 守眞이며, 自號를 通玄處士라 하였음. 河間(지금의 河北 河間)人으로, 劉河間이라고도 부른다. 오랫동안 民間에서 醫術을 行하여 群衆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素問》을 數十年동안 정밀히 硏究하여 運氣學說에 대해 精辟한 見解를 提出함. 運氣가 四時의 正常規律을 나누어 主管함을 인정하는 한 運氣에는 恒常함과 變化함이 있으므로, 運氣學說의 硏究는 마땅히 風, 寒, 暑, 濕, 燥, 火가 疾病의 發生과 發展에 미치는 影響에 착안해야 한다고 보았다. 당시 北方地區에 熱性病이 流行함을 보고 素問病機十九條를 分析硏究하여, 火熱致病의 理論을 强調하였으며, 아울러 北方人의 體質과 熱性病流行의 特點을 根據로 하여 그 治療經驗을 總結해서 古方의 錯誤을 反對하고 寒凉藥을 善用해서 좋은 效果를 거두었으며, 後世에 溫熱病을 治療하는 데에 啓發함이 많았음. 局方의 用藥이 燥熱한데에 치우치는 것을 힘써 排除하여, 治病에 대개 降心火, 益腎水를 위주로 하였음. 그가 寒凉藥物을 善用하였으므로 後世에 그를 寒凉派라 불렀다. 平生의 著書로 《素問玄機原病式》,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宣明論方》, 《三消論》, 《傷寒直格》, 《傷寒標本心法類萃》 등이 있다.

19) 張從正: (大略 1156-1128年) 金代의 著名한 醫學家. 金元四大家의 一人. 字는 子和, 自號는 戴人임. 睢州考城(지금의 河南 睢縣關考 一帶)人. 醫術에 精通하였고, 劉完素의 學術思想을 繼承하여 藥을 쓰는데 寒凉藥에 많

긴 學風을 따랐다. 또한 臺의 朱佐, 越의 滑壽[25]같은 이도 모두 著述이 있으니 일일이 列擧하기가 쉽지 않다. 오호라! 《內經》 이래로 醫書의 書庫에 있는 것은 179家, 209部, 1259券으로 또한 적은 分量이 아니다. 歷代 名醫에 있어서 지금은 단지 그 중 가장 뛰어난 醫者들을 擧論해서 언급했을 뿐이니, 어찌 여기에 모두 다 갖출 수 있겠는가.

2) 或問: 醫學授受之原, 既得聞命矣, 未審吾子之學, 何所適從? 或曰: 醫不三世, 不服其藥. 或謂祖父相承, 謂之三世. 或謂善讀三世之書, 則爲三世之醫. 子讀三世之書歟? 爲祖父相承之家學歟? 請明言其故可乎?

曰: 草莽之學, 其可云乎. 然醫不止于三世, 而其書于吳止于三代哉. 當取其可法者言之耳. 予同邑丹溪朱顚修先生, 上承劉, 張, 李三家之學, 而得雖太無爲之依歸, 以醫道大鳴于當世, 遐邇咸取法焉. 予故曾叔祖誠齋府君, 幸與丹溪生同世, 居同鄉, 于是藉沾親炙之化, 亦以其術鳴世, 故予祖父相承家傳之學有所自來, 予惟愧夫才疏質鈍, 而不能奉揚箕裘之業爲憾耳, 奚足道哉.

이 치우쳤으며, 아울러 汗, 吐, 下 三法을 마음대로 잘 活用하였다. 天의 邪인 六淫및 地의 邪인 霧, 露, 雨, 瘴등의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쉽게 病들게 하고, 부적당한 飮食도 致病素因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外邪는 마땅히 體外로 즉시 驅出해야 하는데, 祛邪하는 方法은 傷寒論의 汗, 吐, 下 三法을 原則으로 삼았다. 汗, 吐, 下 三法에 대한 運用範疇는 매우 넓어 발휘한 바가 적지 않다. 그는 治療上 攻下에 치우쳤으므로 後人들이 그를 代表로 하는 學術流派를 攻下派라고 稱한다. 그는 治病에 先攻後補를 主張했는데, 당시 補藥을 濫用하는 風土의 狀況下에서는 상당한 意義가 있었으나, 그는 扶正과 驅邪, 攻과 補의 관계에 대하여 理論上 상당히 偏僻됨이 있었다. 1217 -1221년(興定年間)에 太醫로 補職되었으나 오래지않아 辭退하였다. 羅知悌등이 그의 醫學理論과 經驗을 整理하고 增訂하여 《儒門事親》 四十卷을 編成했는데, 一般的으로 該書의 前三卷은 張氏의 親撰으로 보고 있다.

20) 李杲: (1180-1251年) 金代의 著名한 醫學家로서, 金元四大家의 一人이다. 字는 明之, 自號는 東垣老人이며, 眞定(지금의 河北 正定)人이다. 明의 張元素를 스승으로 모셨으므로 學術上 그의 影響을 많이 받았다. 당시는 마침 戰亂中이어서, 百姓들의 生活이 動搖不安했고 항상 飢餓, 寒冷과 精神刺戟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疾病이 매우 많아서 傷寒의 治法을 應用하는 것으로는 往往 效果가 없었다. 李杲는 自己의 오랫동안의 臨床經驗에서, 이러한 原因들은 元氣를 가장 耗傷시키기 쉽다는 것을 깨닫고, "內經學說"를 提示하여, "脾胃를 內傷하면 百病이 이로부터 生한다"고 主張하였다. 아울러 內經의, 四時에 모두 胃氣를 養함을 根本으로 삼는 理論에 根據하여, 治療上, 調理脾胃, 升提中氣를 强調하고, 스스로 補中益氣湯등의 새로운 方劑를 만들었다. 그가 益補하는 方法으로 脾胃를 잘 調理했기 때문에, 後世에 그를 代表로 하는 學術流派를 '補土派'라 불렀다. 만년에 그는 羅天益, 王好古등에게 學術을 傳하였다. 醫學著作으로는, 《脾胃論》, 《內外傷辨惑論》, 《蘭室秘藏》, 《醫學發明》, 《藥象論》등이 있다. 後醫學 發展에 深遠한 影響을 미쳤다.

21) 羅天益: 元代의 醫學家. 字는 謙甫. 眞定(지금의 河北 正定)人. 金代의 著名한 醫學者인 李杲의 弟子로서 醫學에 造詣가 매우 깊었다. 그는 李杲의 學說을 繼承하고, 諸家의 學說을 모으고, 자기의 經驗良方을 結合하였으며, 아울러 驗案을 넓여 《衛生寶鑑》을 撰輯했다. 또한 《內經類編》등의 著書가 있다.

22) 呂復: 明代의 醫家. 鄞縣(浙江 寧波)人. 少年時에 貧困했으며, 母親의 病으로 인해 醫學을 배움. 일찍이 名醫 鄭禮之로부터 醫學을 배우고, 古代의 藥方과 色脈 藥論등의 書를 얻었음. 또 多種의 古今醫書를 購得하여 晝夜로 硏究하고, 사람들을 위해 治病을 하였음. 그는 일찍이 《素問》, 《靈樞》, 《本草》, 《難經》, 《脈經》등 古代醫書와 古代醫家에 대하여 論評한 바가 있음. 《內經或問》, 《靈樞經脈篇》等書를 著作했는데, 모두 佚失됨.

23) 羅知悌: (約 1243-1327年) 元代의 醫家. 字는 子敬(一說 敬夫), 號는 太素. 錢塘(지금의 浙江 杭州)人. 金代의 名醫 劉完素의 弟子임. 그는 劉氏의 醫學을 繼承한 외에 金代의 名醫 張從正, 李杲 兩家의 假說도 吸收하여 醫學上에 새로운 見解를 수립했다. 그 弟子 朱震亨이 이를 더욱 發展시켜 後의 丹溪學派를 定立하는데 基礎가 되었다.

24) 朱震亨: (1281-1358年) 元代의 著名한 醫學家. 字가 彦修이고, 丹溪라고도 稱함. 婺州 義烏(지금의 浙江 義烏)人. 幼年時부터 四書五經과 程朱理學을 學習했고, 三十歲以後에 비로소 醫學을 배웠음. 그는 江蘇 浙江, 安徽各地를 다니면서 名醫를 探訪했는데 後에 羅知悌로부터 醫學을 배웠으며, 內經등 古醫書를 熱心하게 硏讀하고,

2) 或者가 묻기를: 醫學이 전해온 根原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지만, 아직 자네의 學問을 살피지 못하였으니, 어느 門下를 追從하였는가? 傳에 이르기를 "醫不三世면 不服其藥"이라 하였는데, 어떤 이는 祖, 父로 계승됨을 三世라 하고, 어떤 이는 三世를 전해져 내려온 書를 잘 익힌 것을 三世之醫라 한다. 자네는 三世의 책을 익혔는가? 祖, 父로부터 이어진 家學을 이루었는가? 청컨대 그 緣故를 밝혀 말해 주시오.

대답하되: 民間의 醫學을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醫가 三代에서 그치지 않는데, 책 또한 어찌 三代에만 그쳤겠는가. 마땅히 法으로 삼을만한 것을 取해서 한 말일 뿐이다. 나와 同邑에 살았던 丹溪 朱彦修先生은 위로 劉河間, 張從政, 李杲 三家之學을 繼承하고, 太無 羅知悌에게 歸依함을 얻어 當世에 醫道를 크게 떨쳐서,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醫들이 모두 그에게 法을 取하였다. 나의 옛 曾叔祖인 誠齋府君이 다행히 丹溪와 同世에 나서 同鄕에 살았으므로, 이에 가까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 또한 그 醫術을 世上에 떨쳤다. 고로 나와 祖, 父가 家傳의 醫學을 繼承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다만 나는 오직 才質이 疏略, 愚鈍하여 父, 祖의 家業을 받들어 떨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겨 有感될 뿐이다. 어찌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3) 或問: 亢則害承乃制之義何如?

曰: 王安道論之詳矣, 其間猶有未悉之旨, 請陳其略如下. 黃帝曰: 願聞地理之應六節氣位何如? 岐伯曰: 顯明之右, 君火之位也. 君火之右, 退行一步, 相火治之; 復行一步, 土氣治之; 復行一步, 金氣治之; 復行一步, 水氣治之; 復行一步, 木氣治之; 復行一步, 君火治之. 相火之下, 水氣承之; 土位之下, 風氣承之; 風位之下, 金氣承之; 金位之下, 火氣承之; 君位之下, 陰精承之. 亢則害, 承乃制也. 制則生化, 外列盛衰. 害則敗亂, 生化大病. 夫五行之木土金水各一, 惟火有二, 曰君火, 曰相火, 在地理分布六方, 在歲時分爲六氣. 初氣自丑至卯, 始于大寒而終于春分, 厥陰風木主之. 二氣自卯至巳, 始于春分而終于小滿少陰君火主之. 三氣自巳至未, 始于小滿而終于大暑, 少陽相火主之. 四氣自未至酉, 始于大暑而終于秋分, 太陰濕土主之. 五氣自酉至亥, 始

學編』, 劉完素, 李杲등의 影響을 비교적 많이 받았으며, 劉完素의 火熱學說을 더 發展시켜, '陽有餘陰不足'論을 提倡했음. 內經에 根據하여 '相火'의 有常有變을 論證하였는데, 人體는 '相火'에의해 機體를 溫養하고 機能活動을 推動하나, '相火'는 妄動하기 쉬운 바, 일단 '相火'가 妄動하면 經血을 耗傷하여 病變을 發生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養生面에서는 飮食, 色慾을 節制하여 陰分을 保養할 것을 主張하였다. 臨床治療上 滋陰降火를 主張하여, 滋陰降火藥을 常用하였으므로, 後世에 그 學術派를 養陰派(혹은 滋陰派)라 稱함. 그가 創用한 越鞠丸, 大補陰丸, 瓊玉膏 등은 지금도 常用方劑가 된다. 臨證時에 用藥을 능란하게 해야한다고 主張하고, 당시 一部醫家들이 補證을 소홀하게 여겨, 機械的으로 局方을 쓰고 辛燥藥을 濫用하는 것을 反對하였음. 《格致餘論》, 《丹溪心法》, 《局方發揮》, 《本草衍義補遺》 等書를 著作함. 그의 學說은 中國에서 推重될 뿐만 아니라 韓國, 日本등에도 비교적 큰 影響을 미쳤음.

25) 滑壽: (14世紀) 元代의 著名한 醫學家. 字는 伯仁, 號는 攖寧生. 原籍은 襄城(지금의 河南 襄城)인데, 後에 儀眞(지금의 江蘇에 屬함)과 余姚(지금의 浙江에 屬함)로 移居함. 어려서부터 儒學을 배워 詩文에 능했음. 京口(지금의 鎭江)의 名醫 王居中이 儀眞에 寓居할 때 그를 師從하여 醫學을 배웠는데, 《素問》, 《難經》 등의 古醫書를 精讀해서 깊이 깨달았음. 《讀素問鈔》, 《難經本義》, 《診家樞要》 등을 著作함. 後에 京平 高洞陽으로부터 針法을 배워 鍼術에 精通함. 일찍이 針砭法을 써서 難産등 多類의 病證을 治療하였고, 經絡理論에 대하여 많은 硏究를 해서, 督, 任二脈은 마땅히 十二經과 대등하게 論해야 한다고 보아, 1314年에 《十四經發揮》를 著作함. 經絡腧穴의 考訂에 상당한 貢獻을 하였으며, 針灸學의 發展에 상당한 影響을 끼쳤음.

于秋分而終于小雪, 陽明燥金主之. 終氣自亥至丑, 始于小雪而終于大寒, 太陽寒水主之. 夫所謂顯明者, 指方位而言, 日出于卯之地也. 少陰君火始于此而右遷, 故曰顯明之右. 蓋天地左旋, 六氣右旋, 故曰退行. 六位之下, 各有己所不勝者承之于下, 王氏曰承隨也, 而又有妨之之義, 以下奉上故曰承. 其五行之道, 不亢則隨之而已, 一有所亢, 則起而克勝之也. 或曰: 制者, 制何事也? 害者, 害何物也? 制者, 制其氣之太過也. 害者, 害勝者之元氣也. 夫所謂元氣者, 總而言之, 謂之一元, 分而言之, 謂之六元. 一元者, 天一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復生水, 循環無端, 生生不息. 六元者, 水爲木之化元, 木爲火之化元, 火爲土之化元, 土爲金之化元, 金爲水之化元, 亦運化而無窮也. 假如火不亢, 則所承之水, 隨之已耳. 一有亢極, 則其水起而平之, 蓋恐害吾金元之氣, 子來救母之意也. 六氣皆然. 此五行勝復之理, 不期然而然者矣. 制則生化者. 言有制之常, 如亢則制, 而生化不息, 何害之有. 外列盛衰者, 言所承者力衰, 而所亢者極盛, 制之不盡耳, 在天地則爲六淫, 在人身則六疾. 害則敗亂者, 言無制之變也, 所承者衰甚而無氣, 故所亢者其勢縱橫而不可遏也, 在天地則大缺絶災, 在人身則病亂而死矣. 大略如斯, 未盡詳也. 學者宜參考安道之論斯略矣.

3) 或者가 묻기를: 亢則害, 承乃制의 뜻은 무엇인가.

대답하되: 王安道[26]가 그것을 詳細히 하였는데, 그 사이에 아직 未盡한 뜻이 있으니, 그 大略的인 意味를 陳述하면 다음과 같다. 黃帝께서 묻기를 "地理가 六節, 氣位에 應함이 어떠한지 듣고자 합니다."라 하니, 岐伯이 이르기를 "顯明(春分)의 右는 君火의 位입니다. 君火의 右에서 退行一步하면 相火가 다스리고, 다시 一步하면 土氣가 다스리고, 다시 一步하면 金氣가 다스리고, 다시 一步하면 水氣가 다스리고, 다시 一步하면 木氣가 다스리고, 다시 一步하면 君火가 다스립니다. 相火의 下는 水氣가 이어받고, 土位의 下는 風氣가 이어받고, 風位의 下는 金氣가 이어받고, 金位의 下는 火氣가 이어받고, 君火의 下는 陰精이 이어받습니다. 亢極하면 物을 害하니, 承하여 이를 制約합니다. 制約하면 生化가 이루어져, 外部로 盛衰의 變化가 陳列하게 됩니다. 害하면 敗亂하여 生化의 機가 크게 病變이 일어나게 됩니다."[27]하였다. 무릇 五行중 木, 土, 金, 水는 各各 하나지만, 오직 火만이 둘이 있으니, 이름하여 君火와 相火이다. 地理에 있어서는 六方으로 分布하며, 歲時

26) 王履: (1332年-?) 元末에서 明初에 걸친 醫家. 字는 安道, 號는 畸叟. 또는 抱獨山人이라 함. 昆山(지금의 江蘇昆山)人. 詩文書藝에 能通하였으며, 일찍이 朱震亨으로 부터 醫學을 배웠음. 洪武四年(1371年) 秦府良醫正에 任命됨. 著述이 비교적 많아서, 《標題原病式》, 《百病鉤玄》, 《醫韻統》 등이 있는데, 전해진 것은 겨우 《醫經溯回集》 一書뿐이다. 本書는 그가主張한 "讀者當活法, 勿拘執"의 進步的 治學思想을 表現한 論述이 적지 않다. 《內經》, 《難經》, 《傷寒論》 등 書의 古典醫理및 宋代以後의 著名醫家의 論点에 대하여는 獨創的인 闡述과 發揮가 적지 않았다. 특히 그의 傷寒과 溫病을 區別한 論述에 있어서 獨創的인 見解가 있다. 예컨대, "感天氣厲毒異氣"라는 病因的 觀點을 提起하여 溫病의 臨證特點을 肯定하였다. 醫理上에서는, 心腎과 "實陰實陽"의 論을 重視하여, 朱震亨의 "陽常有餘 陰常不足"의 說을 繼承發展시켰고, 劉完素의 瀉火爲主的 治病思想을 吸收해서, 溫病의 治療는 마땅히 除熱을 爲主로 해야함을 提起하여, 溫病治療中의 清熱養陰法則을 設定함으로써 그 후의 溫病學家, 예컨대 葉天士등에게 많은 影響을 주었다. 그가 重視하여 論述한 "實陰實陽"의 說은, 明代의 醫家들이 論한 "命門"說에 대해서도 상당한 影響을 주었다. 그가 疾病에 대해 臨床症狀으로 부터 分析할 것을 主張하고, 運氣등의 學說을 反對한 것과 같은 것은 모두 상당한 意義가 있다.

27) 《素問·六微旨大論篇》에 나옴.

에 있어서는 六氣로 나뉘어 진다. 初氣는 丑부터 卯까지로 大寒에서 始作하여 春分에서 끝나며 厥陰風木이 主한다. 二氣는 卯부터 巳까지로 春分에서 始作하여 小滿에서 끝나며 少陰君火가 主한다. 三氣는 巳부터 未까지로 小滿에서 始作하여 大暑에서 끝나며 少陽相火가 主한다. 四氣는 未부터 酉까지로 大暑에서 始作하여 秋分에서 끝나며 太陰濕土가 主한다. 五氣는 酉부터 亥까지로 秋分에서 始作하여 小雪에서 끝나며 陽明燥金이 主한다. 終氣는 亥부터 丑까지로 小雪에서 始作하여 大寒에서 끝나며 太陽寒水가 主한다. 무릇 顯明이라는 것은 方位를 말한 것으로 日이 卯의 자리에서 出하는 方位이다. 少陰君火는 이에서 始作하여 右遷하므로 顯明之右라 한 것이다. 대개 天地는 左旋하고 六氣는 右旋하므로 退行이라 하였다. 六位의 下에는 各各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五行(自己를 克하는 五行)이 아래에서 이어받는데, 王安道는 "承은 隨와 같고, 또 亢極하는 것을 妨害한다는 뜻이 있다. 아래에서 위를 奉行하므로 承이라 한다." 하였다. 五行의 道는 亢極하지 아니하면 隨할 뿐이요, 하나의 亢極이 있으면 承하는 것이 興起하여 克勝하게 된다. 或者가 이르기를: 制는 무엇을 制한다는 것이며 害는 무엇을 害한다는 것인가? 制라는 것은 그 氣의 太過를 制止하는 것이며, 害라는 것은 勝하는 것의 元氣를 害하는 것이다. 대저 이른 바 元氣라는 것은 總括하여 말하면 一元이요, 나누어 말하면 六元이다. 一元은 天一이 水를 生하고, 水는 木을 生하고, 火는 土를 生하고, 土는 金을 生하고, 金은 다시 水를 生하는 것으로 循環無端하여 生生不息한다. 六元이라는 것은, 水는 木의 化元이 되고, 木은 火의 化元이 되고, 火는 土의 化元이 되고, 土는 金의 化元이 되고, 金은 水의 化元이 되어 역시 運化하여 無窮한 것이다. 가령 火가 不亢하면 承하는 水가 그것을 따를 뿐이다. 그러나 한번 亢極하면, 水가 興起하여 그것을 平하게 하니, 이는 자신의 金元之氣가 損傷됨을 두려워하여 子息이 와서 어미를 구하는 뜻으로 六氣가 모두 그러하다. 이것이 五行의 勝復의 理致이니, 그렇게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制則生化라고 한 것은, 制止하여 常道를 유지함을 말한다. 만약 亢極하면 곧 制止하여 生化不息한다면 무슨 害가 있겠는가? 外列盛衰라는 것은 承하는 것이 衰하고 亢하는 것이 極盛하여 制止함에 다함이 없는 것을 말한다. 天地에서는 六淫이 되고, 人身에서는 六疾이 된다. 害則敗亂이란 制止하지 못했을 경우의 變故를 말함이니, 承하는 것이 더욱 衰弱하여 氣力이 없는 까닭으로, 亢하는 것의 勢力이 縱橫하여 막을 수 없으니, 天地에 있어서는 大自然이 絶滅하는 것이고, 人身에 있어서는 病이 심해져 죽게 되는 것이다. 大略 이와 같고 자세히 다 말하지는 못했으니, 배우는 者는 마땅히 王安道의 論을 參考로 할 것이다.

4) 或問: 丹溪先生《格致餘論》云, 陽常有餘, 陰常不足. 氣常有餘, 血常不足. 然先生所著諸方, 每云有氣虛, 有血虛,有陽虛, 有陰虛, 其所以自相矛盾有如是者, 其義何然?

曰: 其所謂陰陽氣血之虛實, 而以天地日月對待之優劣論之, 其理蘊奧難明, 非賢者莫能悟其旨也, 請陳其大略如下. 夫陽常有餘, 陰常不足者, 在天地則該乎萬物而言, 在人身則該乎一體而論, 非直指氣爲陽而血爲陰也. 經曰陽中有陰, 陰中亦有陽, 正所謂獨陽不生, 獨陰不長是也. 姑以治法兼證論之, 曰氣虛者, 氣中之陰虛也, 治法用四君子湯以補氣中之陰. 曰血虛者, 血中之陰

虛也, 治法用四物湯以補血中之陰. 曰陽虛者, 心經之元陽虛也, 其病多惡寒, 責其無火, 治法以補氣藥中加烏附等藥, 甚者三建湯, 正陽散之類. 曰陰虛者, 腎經之眞陰虛也, 其病多壯熱, 責其無水, 治法以補血藥中加知母黃栢等藥, 或大補陰丸, 滋陰大補丸之類. 經曰, 諸寒之而熱者取之陰, 熱之而寒者, 取之陽, 所謂求其屬也. 王注曰: 此言益火之源, 以消陰翳, 將水之主, 以制陽光也. 夫眞水竭極之候, 切不可服烏附等補陽之藥, 恐反助火邪而爍眞陰. 元陽虛甚之候, 亦不可投芎苓等辛散滲滲之劑, 恐反開腠理而泄眞氣. 昧者謂氣虛則陽虛, 止可用四君子, 但不可用芎芷之屬, 血虛則陰虛止可用四物, 決不可用蓽芪之類. 殊不知東垣有曰: 陽旺則能生陰血(此陰陽二字直指氣血言). 又曰: 血脫益氣, 古聖人之法也. 血虛者須以蓽芪補之, 陽生陰長之理也. 惟眞陰虛者辨爲勞極, 蓽芪固不可用, 恐其不能抵當而反益其病耳, 非血虛者之所忌也. 如王汝言之通達, 亦未明此理, 其所著明醫雜著謂: 今世治病, 但見虛症, 偏用蓽芪, 屬氣虛者固宜, 若是血虛, 豈不助氣而反耗陰血耶. 又曰: 血虛誤服蓽芪等甘溫之藥, 則病日增, 服之過多, 則死不治. 是爲血病治氣, 則血愈虛耗. 蓋甘溫助氣屬陽, 陽旺則陰愈消. 又曰: 婦人產後陰血虛, 陽無所依而浮散于外, 故多發熱, 止可用四物湯補陰血, 而以炙薑炙之苦溫從治, 而收其浮散, 使歸依于陰. 亦戒勿用蓽芪也. 丹溪曰: 產後當以大補血爲主. 既曰陽無所依而浮散于外, 非蓽芪等藥, 何以收救其散失之氣乎. 噫! 汝言之論, 何其與東垣丹溪俱不合耶. 世之膠柱調瑟者比比皆是, 予不容不辨也.

4) 或者가 묻기를: 丹溪先生이 《格致餘論》에서 이르기를 "陽常有餘, 陰常不足"이라 하여, 氣는 항상 有餘하고, 血은 항상 不足하다 하였다. 그러나 先生이 지은 諸方에는 매번 氣虛·血虛·陽虛·陰虛가 있다고 하여 스스로 矛盾되는 바가 이와 같으니, 그 뜻은 무엇인가?

대답하되: 그것은 이른바 陰陽氣血의 虛實인데, 天地日月같은 對待의 優劣로써論한다면, 그 理致가 深奧해서 分明하기 어려운 것이니, 賢者가 아니면 그 要旨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 大略을 陳述하면 다음과 같다. 무릇 "陽常有餘, 陰常不足"이라는 것은, 天地에 있어서는 萬物에 適用해서 말한 것이요, 人身에 있어서는 한 몸에 적용해서 論한 것이지, 바로 氣를 陽으로 血을 陰으로 指示하는 것은 아니다. 《內經》에 "陽中에 陰이 있고, 陰中에 또한 陽이 있다."[28]하였으니, 바로 獨陽은 生할 수 없고, 獨陰은 長할 수 없음을 이른 것이다. 우선 治法과 證으로 論하자면 氣虛는 氣中의 陰이 虛한 것이니, 治法은 四君子湯을 使用하여 氣中의 陰을 補해야 한다. 血虛는 血中의 陰이 虛한 것이니, 治法은 四物湯을 使用하여 血中의 陰을 補해야 한다. 陽虛는 心經의 元陽이 虛한 것이니, 그 病의 症狀에 惡寒이 많으니, 그 火가 없음을 責望해야 하며, 治法은 補氣藥 가운데에 草烏·附子 등의 藥을 加하여 써야하고, 甚한 것 三建湯·正陽散 등의 種類를 使用한다. 陰虛는 腎經의 眞陰이 虛한 것이니, 그 病의 症狀에 壯熱이 많으니, 그 水가 없음을 責望해야 하며, 治法은 補血藥 가운데에 知母·黃栢등의 藥을 加하여 써야하고, 或 大補陰丸·滋陰大補丸등의 種類를 用한다. 《內經》에서 "무릇 寒하게 하였는데도 熱한 者는 陰을 取할 것이요, 熱하게 하였는데도 寒한 者는 陽을 取할 것이니, 所謂 그 屬한 바를 求해야 하는 것이다."[29]라 하였는데, 王氷이 注하여

28) 《素問·天元紀大論篇》에 나옴.

"이것은 火의 根源을 補益하여 陰翳를 제거하고, 水의 根源을 壯盛케 하여 陽光을 制할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무릇 眞水가 衰極한 徵候에 절대로 草烏·附子등 補陽藥을 服用할 수 없으니, 이는 오히려 火邪를 도와 眞陰을 損傷시킬까 두려워함이다. 元陽이 몹시 虛한 사람에게는 또한 결코 川芎·茯苓등의 辛散淡滲한 藥物을 投與하여서는 안되니, 이는 오히려 腠理를 열어서 眞氣를 泄할까 두려워함이다. 愚昧한 者는 氣虛는 곧 陽虛이니 四君子湯을 쓸 뿐이요, 결코 川芎·細辛같은 藥物은 使用할 수 없으며, 血虛는 곧 陰虛이니 四物湯을 쓸 뿐이요, 결코 人蔘·黃耆같은 藥物은 使用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東垣이 "陽이 旺盛하면 能히 陰血을 生한다."라고 한 意味를 알지 못한 것이다(여기서의 陰陽二字는 바로 氣血을 가리켜 한 말이다). 또 이르기를 "血脫하면 益氣하는 것이 옛 聖人의 法이다"라 하였다. 血虛한 者에게 모름지기 人蔘·黃耆로써 補하는 것은, 陽生한 연후에 陰長하는 理致이다. 오직 眞陰이 虛한 者는 장차 勞極이 되므로, 蔘耆를 진실로 使用할 수 없으니, 그것은 능히 堪當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病을 더하게 할까 두려울 뿐이지, 血虛한 者가 禁忌할 것은 아니다. 비록 王汝言[30]이 通達했음에도 또한 이 理致에 밝지 못했으니, 그가 지은 《明醫雜著》에서 "요즘 病을 治療함에 단지 虛證만 보이면 곧 人蔘·黃芪를 쓰는데 氣虛에 屬하는 자에게는 진실로 마땅할 것이나, 만약 이것이 血虛라면 어찌 氣를 도와 도리어 陰血을 消耗시키지 않겠는가?"라 하였다. 이는 血病에 氣를 治療하면 血이 더욱 虛해지고 消耗된다 한 것이다. 또 이르기를 "血虛에 잘못 蔘耆등의 甘溫한 藥을 服用하면 病은 날로 甚해지고, 또 그것을 過多하게 服用하면 死하여 治療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血病에 治氣하면 血이 더욱 虛耗해 짐이다. 대개 甘溫한 藥은 氣를 도와 陽에 屬하니, 陽이 旺盛하면 陰은 더욱 消失된다."하였다. 또 이르기를 "婦人産後에는 陰血이 虛하여 陽은 돌아갈 바를 잃고 밖에서 浮散하므로 發熱이 많은데, 다만 四物湯으로 陰血을 補하고 炙한 乾薑같은 苦溫한 藥으로써 從治하여, 그 浮散한 바를 거두어 陰으로 돌아오게 해야한다"하였으니, 또한 함부로 人蔘, 黃耆등의 藥을 쓰지 말 것을 警戒한 것이다. 丹溪가 이르기를 "産後에는 마땅히 大補氣血을 主로 해야한다." 하였다. 앞에서 陽이 돌아갈 바를 잃고 外에서 浮散한다 하였는데, 人蔘·黃耆등의 藥이 아니면 어떻게 그 散失된 氣를 거두어 구할 수가 있겠는가. 슬프다! 汝言의 理論이 어찌 東垣과 丹溪에 함께 附合되지 못하는가. 世上의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者들이 종종 모두 다 이러하니, 나는 辯論하지 않을 수 없다.

5) 或問: 古有四診之法, 何謂也?

曰: 形, 聲, 色, 脈四者而已, 今人惟效脈法, 但知其一而遺其三焉, 請陳其理如下: 夫形診者, 觀其形以知其病也. 經曰: 形氣不足, 病氣有餘, 是邪勝也, 當瀉不當補. 形氣有餘, 病氣不足, 當補不當瀉. 形氣不足, 病氣不足, 此陰陽皆不足也, 當急補之, 不可刺, 刺之重不足. 重不足則陰陽俱竭, 血氣皆盡, 五臟空虛, 筋骨髓枯, 老者絶滅, 壯者不復矣. 形氣有餘, 病氣有餘, 皆陰陽皆有餘也, 急瀉其邪, 調其虛實. 故曰有餘者瀉之,

29) 《素問·至眞要大論篇》에 나옴.

30) 王綸: 字가 汝言이고 號는 節齋이며 滋溪人이다. 《本草集要》 8卷(1492), 《明醫雜著》 6卷(1502), 《醫論問答》 등을 著述하였는데, 특히 《本草集要》는 李時珍의 《本草綱目》 이전에 著述된 것으로서 比較的 後世에 影響을 미쳤다.

不足者補之, 此之謂也. 又曰: 形肉脫脫, 九候雖調者死. 又曰: 頭者精明之府, 頭傾視深, 精神將奪矣. 背者胸中之府, 背曲肩垂, 腑將壞矣. 腰者腎之府, 轉搖不能, 腎將憊矣. 骨者髓之府, 不能久立, 行則振掉,骨將憊矣. 凡此之類, 皆形診之謂也. 夫聲診者, 聽其聲以驗其病也. 經曰: 聲如從室中言, 是中氣之濕也. 言而微, 終日乃復言者, 此脫氣也. 衣被不斂, 言語善惡, 不避親疏者, 此神明之亂也. 叔和云: 久病, 聲嘶者, 死. 小兒病, 忽作鴉聲者, 死. 東垣曰: 言語先輕後重, 高厲有力, 是爲外感有餘之證: 言語先重後輕, 沈困無力, 是爲內傷不足之證. 凡此之類, 皆聲診之謂也. 色診者, 視其面之五色, 以察其病也. 經曰: 赤欲如帛裹朱, 不欲如赭. 白欲如鵝羽, 不欲如鹽. 青欲如蒼璧之澤, 不欲如藍. 黃欲如鸗裹雄黃, 不欲如黃土. 黑欲如重漆色, 不欲如地蒼. 又曰: 青如草滋者死, 黃如枳實者死, 黑如炲者死, 赤如衃血者死, 白如枯骨者死, 此五色之見死也. 青如翠羽者生, 黃如蟹腹者生, 赤如鷄冠者生, 白如豕膏者生, 黑如烏羽者生, 此五色之見生也. 生於心, 如繒裹朱. 生於肺, 如繒裹紅. 生於肝, 如繒裹紺. 生於脾, 如繒裹栝蔞實. 生於腎, 如繒裹紫. 此五臟所生之外榮也. 欲觀五臟之五邪, 當辨四時之令色. 經曰: 從前來者爲實邪, 子能令母實也. 從後來者爲虛邪, 母能令子虛也. 從所勝來者爲微邪, 妻乘夫位也. 從所不勝來者爲賊邪, 鬼賊爲害也.自病者爲正邪, 本經自傷也. 假令春令木旺, 病者其色青而帶赤, 是爲實邪, 雖病易治, 法曰實者瀉其子. 其色青而帶黑, 是爲虛邪, 病亦易治, 法曰虛者補其母. 其色青而帶黃, 是爲微邪, 尤爲易治, 法曰微者逆之, 謂正治也. 其色青而帶白, 是爲賊邪, 難治故多死, 法曰甚者從之, 謂反治也. 若但青如蒼璧之澤, 乃是正邪, 本經自病, 勿藥而愈. 四時皆仿此而推. 又四時皆帶紅黃爲吉, 青黑爲凶. 若此之類, 皆色診之要訣, 學者其可忽乎.

5) 或者가 묻기를: 옛날에 四診의 法이 있었는데, 무엇을 이름인가?

대답하되: 形, 聲, 色, 脈을 보는 네 가지가 있을 따름이다. 지금 사람들은 오직 脈法에만 힘쓰니, 단지 하나만 알고 셋은 버리는 것이다. 그 理致를 陳述하면 다음과 같다: 대저 形診이라는 것은 그 形을 觀察하여 그 病을 아는 것이다. 《內經》에 이르기를 "形氣가 不足한데 病氣가 有餘한 것은 邪가 勝한 것이니, 마땅히 瀉해야 하며 補해서는 안된다. 形氣가 有餘한데 病氣가 不足하면, 마땅히 補해야 하며 瀉해서는 안된다. 形氣가 不足하고 病氣도 不足하면, 이는 陰陽이 모두 不足한 것이라 마땅히 急히 補해야 하며 鍼刺하지 말 것이니, 鍼刺하게 되면 거듭 不足하게 되고, 거듭 不足하게 되면 陰陽이 모두 衰竭하게 되고, 血氣가 모두 衰盡하게 되며, 五臟이 空虛해지고, 筋과 骨髓가 마르게 되어 老人은 絶滅하게 되고, 健壯한 사람도 恢復하지 못하게 된다. 形氣가 有餘하고 病氣도 有餘하면 이는 陰陽이 모두 有餘한 것이라 急히 그 邪를 瀉하여 虛實을 調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有餘한 것은 瀉하고 不足한 것은 補하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를 이르는 것이다."[31]하였다. 또 이르기를 "形肉이 이미 脫하면, 九候가 비록 順調롭더라도 死한다."하였다. 또 이르기를 "頭는 精明의 府이니, 머리가 기울어지고 눈이 깊이 陷沒되면, 精神이 장차 脫하려고 하는 것이다. 背는 胸中의 府이니, 등이 굽고 어깨가 아래로 늘어지면, 腑가 장차 무너지려고 하는 것이다. 腰는 腎의 府이니, 돌리거나 움직이지

31) 《靈樞·根結》에 나옴.

못하면 腎이 장차 病들려고 하는 것이다. 骨은 髓의 府이니, 오래 서있지 못하고 걸을 때 흔들리면 骨이 장차 病들려고 하는 것이다."32)하였다. 무릇 이러한 類가 다 形診인 것이다. 무릇 聲診이라는 것은 그 聲을 들어 그 病을 徵驗하는 것이다. 《內經》에 이르기를 "聲이 마치 室內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오는 것은, 中氣가 濕한 것이다. 말하는데 聲이 微하고 終日토록 말을 反復하는 것은, 脫氣가 된 것이다. 옷을 풀어헤쳐 여미지 않고 善惡을 이야기함에 親疏를 가리지 못하는 것은, 神明이 어지러운 것이다.33)하였다. 王叔和가 이르기를 "오랜 病에 연 목소리가 나는 者는 죽는다. 小兒病에 갑자기 까마귀 소리를 내는 者는 죽는다."하였다. 東垣이 이르기를 "말을 함에, 처음에는 輕하나 갈수록 重해지고, 크고 거칠며 힘이 있으면 外感有餘의 證이고; 말을 함에, 처음에는 重하나 갈수록 輕해지고, 가라앉고 지쳐 힘이 없으면 內傷不足의 證이다."하였다. 무릇 이러한 類가 다 聲診인 것이다. 色診이라는 것은 그 얼굴의 五色을 보고 그 病을 診察하는 것이다. 《內經》에 이르기를 "赤色은 흰 비단으로 붉은 구슬을 싸맨 것과 같아야지, 代赭石 같아서는 안되며(潤氣가 있어야 한다), 白色은 겨위의 깃털(鵝羽)과 같아야지, 소금 색과 같아서는 안되며, 靑色은 蒼璧의 潤澤(潤氣가 나는 푸른 玉)과 같아야지, 藍과 같은 색을 떠어서는 안된다. 黃色은 비단으로 雄黃을 싸맨 것과 같아야지, 黃土와 같아서는 안된다. 黑色은 짙은 漆色과 같아야지, 地蒼(검으면서 枯槁함)과 같아서는 안된다."34)하였다. 또 이르기를 "얼굴 색이 靑色이되 草滋35)와 같으면 죽게 되고, 黃色이되 枳實과 같으면 죽게 되고, 黑色이되 그을음과 같으면 죽게 되고, 赤色이되 죽은 피와 같으면 죽게 되고, 白色이되 마른 뼈와 같으면 죽게 되니, 이것이 五色에서 死證을 나타낸 것이다. 靑色이되 물총새 깃털과 같으면 살고, 黃色이되 계의 배와 같으면 살고, 赤色이되 닭의 벼슬과 같으면 살고, 白色이되 돼지 기름과 같으면 살고, 黑色이되 까마귀 깃털과 같이 潤氣가 있으면 살 것이니, 이것이 五色에서 生을 보이는 것이다. (生氣가) 心에서 生하면, 흰 비단(縞)으로써 짙은 붉은 것(朱)을 싸놓은 듯 하고; 肺에서 生하면, 흰 비단(縞)으로써 엷은 붉은 것(紅)을 싸놓은 듯 하고; 肝에서 生하면, 흰 비단(縞)으로써 紺色(푸르면서 붉은 색을 머금은 것)을 싸놓은 듯 하고; 脾에서 生하면, 흰 비단(縞)으로써 栝蔞의 열매(누런 색)를 싸놓은 듯 하고; 腎에서 生하면, 흰 비단(縞)으로써 紫色을 싸놓은 것 같다. 이것이 五臟에서 生한 바의 드러나는 榮華이다."36)하였다. 五臟의 五邪를 보고자 하면, 마땅히 四時의 令色을 辯別해야 한다. 《難經》에 이르기를 "앞으로부터 오는 것을 實邪라 하니, 子가 能히 母로 하여금 實하게 한다. 뒤로부터 오는 것을 虛邪라 하니, 母가 能히 子로 하여금 虛하게 한다. (自己가) 이기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微邪라 하니, 妻가 夫의 位置에 오른 것이다. (自己가)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賊邪라 하니, 鬼賊이 害한 것이다. 스스로 病이 된 것을 正邪라 하니 本經이 스스로 傷한 것이다"37)하였다. 假令 봄에 木이 旺盛한 때 病者의 顔色이 靑하면서 赤色을 띠고 있으면 이는 實邪

32) 《素問·脈要精微論》에 나옴.

33) 《素問·脈要精微論》에 나옴.

34) 《素問·脈要精微論》에 나옴.

35) 草滋: 풀로 만든 거적으로 生氣없이 말라 시든 것을 말함.

36) 《素問·五臟生成篇》에 나옴.

37) 《難經·第五十難》에 나옴.

이다. 비록 病이 들었다 하더라고 쉽게 치료된다. 法에 "實한 者는 그 子를 瀉한다."하였다. 顔色이 靑하면서 黑色을 띠고 있으면 이는 虛邪이니, 이 病 또한 쉽게 치료되니, 法에 "虛한 者는 그 母를 補한다."하였다. 顔色이 靑하면서 黃色을 띠고 있으면 이는 微邪이다. 이는 더욱 쉽게 치료되니, 法에 "微者逆之"라 하였으니 正治를 이른 것이다. 顔色이 靑하면서 白色을 띠고 있으면 이는 賊邪이다. 難治이므로 죽는 이가 많으니, 法에 "甚者從之"라 하였으니 反治를 이른 것이다. 만약 단지 靑하되 澁氣가 나는 푸른 옥빛과 같다면, 이는 正邪이며 本經이 스스로 病된 것이니 藥을 쓰지 않아도 낫는다. 四時가 모두 이와 같으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四時에 다 紅黃色을 띠면 吉하고, 靑黑色을 띠면 凶하다. 이러한 類가 모두 色診의 要訣이라, 배우는 者가 소홀히 하겠는가?

6) 或問: 傷寒之邪中人固無定體, 然手足各有六經, 何故只傳足之六經, 而不及于手之六經乎? 劉草窓謂: 足六經屬水木土, 蓋水得寒則氷, 土得寒則坼, 木得寒則葉落枝枯; 手之六經有屬金與火, 蓋火勝水而能敵寒, 金得寒而愈堅剛. 其理甚明, 將何以議之乎?

曰: 言似近理而實不然者也, 請陳一得如下: 蓋人之有身, 頂天履地, 身半已上, 天氣主之, 身半已下, 地氣主之, 是以上體多受風熱, 下體多感寒濕. 其爲六節之氣, 前三氣時值春夏, 其氣升浮, 萬物生長, 故人之身半已上應之; 後三氣時值秋冬其氣降沈, 故人之身半已下應之. 自十月小雪之後, 爲六氣之終, 太陽寒水用事, 房勞辛苦之人, 其太陽寒水之氣, 乘虛而客入于足太陽膀胱之經, 同氣相求故也. 又曰熱先于首而寒先于足, 其義亦通. 寒邪鬱積既久, 次第而傳于陽明少陽, 以及三陰之經, 皆從足經傳始, 而漸及于手之六經而已矣, 此人身配合天地之理, 不期然而然也, 何疑之有哉.

6) 或者가 묻기를: 傷寒의 邪氣가 사람에게 的中했을 때 본래 정해진 形態가 없지만, 그러나 手足에 각기 六經이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단지 足의 六經에만 傳해지고 手의 六經에는 미치지 않는가? 劉草窗이 이르기를 "足의 六經은 水, 木, 土에 所屬되니, 대개 水가 寒을 만나면 얼고, 土가 寒을 만나면 갈라지고, 木이 寒을 만나면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마른다; 手의 六經은 金과 火에 所屬되니, 대개 火는 水를 이기므로 능히 寒에 對敵할만 하고, 金이 寒을 만나면 더욱 굳고 단단해진다."라고 하였다. 그 理致가 이처럼 분명하니, 또한 무엇으로써 이를 議論하겠는가?

대답하되: 말은 理致에 가까운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터득한 바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대개 사람의 몸은, 머리는 하늘로 향하고 발은 땅을 밟으니, 몸의 半身 이상은 天氣가 主하고 몸의 半身 이하는 地氣가 主하므로, 上體는 風熱을 많이 받고 下體는 寒濕을 많이 받는다. 그것이 六節의 氣에 있어서, 前의 三氣는 時期的으로 春夏에 놓여지니, 그 氣가 升浮하여 萬物이 生長하므로 몸의 半身이상이 거기에 應하게 되고, 後의 三氣는 時期的으로 秋冬에 놓여지니, 그 氣가 沈降하므로 몸의 半身 이하가 거기에 應하게 된다. 十月 小雪 이후는 六氣의 마지막이 되어 太陽寒水가 用事하므로, 房勞하거나 몸이 고달프게 일하는 사람은 太陽寒水의 氣가 人體의 虛한 틈을 타서, 足太陽膀胱經으로 侵入하니, 같은 氣가 서로 求하는 까닭이다. 또 "熱은 머리에 먼저 들어가고, 寒은 다리에 먼저 들어간다" 하였으니, 그 뜻이 역시

통한다. 寒邪가 太陽經에 鬱積하여 이미 오래되면, 차례로 陽明經과 少陽經으로 전해지고, 나아가 三陰經에까지 미치니, 모두 足經을 따라서 전해지기 시작하여 점점 手의 六經에까지 미칠 따름인 것이다. 이는 人身이 天地와 合致되는 理致이니, 그렇게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어찌 거기에 疑心이 있겠는가?

7) 或問: 三焦爲腑, 有以心胞絡爲臟者, 有以命門爲臟者. 脈訣云: 三焦無狀控有名. 或謂三焦與心胞絡, 皆有名無實之臟腑, 而其位俱在胸膈之中. 或謂心胞絡乃胸中之腦膜. 又或謂之裹心之肉. 凡此議論不一, 其孰非而孰是歟? 請明以告我.

曰: 其理蘊奧, 甚矣難言. 雖然, 若夫天人之理不明, 其可謂之醫乎. 請略陳其梗概如下: 凡萬物之有形質著乎地者, 必有象以應乎天也. 且以五行之理論之, 如在地有木火土金水之五行, 在天則有風熱濕燥寒火之六氣, 蓋人肖天地, 其五臟六腑之具于身者, 與天地造化生成之理若合符節. 是故在天爲風, 在地爲木, 在人臟腑爲肝爲膽. 在天爲熱, 在地爲火, 在人臟腑爲心爲小腸. 在天爲濕, 在地爲土, 在人臟腑爲脾爲胃. 在天爲燥, 在地爲金, 在人臟腑爲肺爲大腸. 在天爲寒, 在地爲水, 在人臟腑爲腎爲膀胱. 五者之外, 又有相火游行于天地上下氣交之中, 故合爲五運六氣; 人身之相火, 亦游行于腔子之內, 上下肓膜之間命名三焦, 亦合于五臟六腑. 丹溪曰: 天非此火, 不能生物; 人非此火, 不能有生. 夫《內經》以心胞絡爲臟, 配合三焦而爲六臟六腑, 總爲十二經也, 其兩腎本爲一臟, 初無左右之分. 越人始分之, 亦未嘗言其爲相火之臟. 王叔和始立說, 以三焦合命門爲表裏, 亦有深意寓焉. 蓋命門雖爲水臟, 實爲相火所寓之地, 其意蓋謂左屬陰, 右屬陽, 左屬血, 右屬氣, 左屬水, 右屬火, 靜守常而主乎水, 動處變而化爲火者也. 然而相火固無定體, 在上則寄于肝膽胞絡之間, 發則如龍火飛趺于胃漢而爲雷霆也; 在下則寓于兩腎之內, 發則如龍火鼓舞于湖海而爲波濤也. 或曰: 嘗聞人身之有腑者, 若府庫然, 能盛貯諸物之名也. 若大小腸胃膀胱胆腑五腑, 皆有依受而盛之者, 未審三焦爲腑, 何所盛乎? 曰: 三焦者, 指腔子而言, 包函乎腸胃之總司也. 胸中肓膜之上, 曰上焦; 肓膜之下, 臍之上, 曰中焦; 臍之下, 曰下焦, 總名曰三焦. 其可謂之無依受乎. 其體有腦膜在腔子之內, 包羅乎六臟五腑之外也. 其心胞絡實乃裹心之膜, 包于心外, 故曰心胞絡, 其系與三焦之系連屬. 故指相火之臟腑皆寄于胸中, 此知始而未知終也. 其余諸說, 皆輾轉傳訛之語耳. 管見如斯, 願俟知者再論.

7) 或者가 묻기를: 三焦를 腑라 할 때, 心胞絡으로써 臟을 삼는 者도 있고 命門으로써 臟을 삼는 者도 있다. 脈訣에 이르기를 "三焦는 形象은 없고 이름만 있다."하였다. 或者는 "三焦와 心胞絡은 모두 이름만 있고 實質이 없는 臟腑이니, 그 位置는 胸膈의 가운데에 있다."하였다. 或者는 "心胞絡은 곧 胸中의 腦膜이다."라 하였다. 또 或者는 "心臟을 싸고 있는 肉이다."라 하였다. 무릇 이에 대한 議論이 한 둘이 아니니, 어느 것이 그르고 어느 것이 옳은가? 밝혀서 나에게 알려 주시오.

대답하되: 그 理致가 깊고 奧妙하여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비록 그러하나 天人의 理致에 밝지 않다면 그것을 醫라 할 수 있겠는가? 그 大略的인 줄기는 다음과 같다: 무릇 萬物이 形質이 있어 땅에 附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象을 가지고 하늘에 應한다. 또 五行의 理致로써

그것을 論한다면, 땅에 있어서는 木, 火, 土, 金, 水의 五行이 있고, 하늘에 있어서는 風, 熱, 濕, 燥, 寒, 火의 六氣가 있는 것과 같다. 대개 사람이 天地를 닮아서, 五臟六腑가 몸에 갖추어진 것은, 天地의 造化生成하는 理致가 마치 符節과 合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어서는 風이 되고, 땅에 있어서는 木이 되고, 사람의 臟腑에 있어서는 肝과 膽이 된다. 하늘에 있어서는 熱이 되고, 땅에 있어서는 火가 되고, 사람의 臟腑에 있어서는 心臟과 小腸이 된다. 하늘에 있어서는 濕이 되고, 땅에 있어서는 土가 되고, 사람의 臟腑에 있어서는 脾와 胃가 된다. 하늘에 있어서는 燥가 되고, 땅에 있어서는 金이 되고, 사람의 臟腑에 있어서는 肺와 大腸이 된다. 하늘에 있어서는 寒이 되고, 땅에 있어서는 水가 되고, 사람의 臟腑에 있어서는 腎과 膀胱이 된다. 이 다섯 가지 외에도, 또 相火가 있어 天地上下의 氣가 交會하는 사이를 游行하므로, 그것을 合하여 五運六氣가 된다; 人身의 相火는 또한 가슴속내와, 肓膜上下의 사이를 游行하니, 이름하여 三焦라 하는데 또한 五臟六腑에 相合한다. 丹溪가 이르기를 "하늘에 있어서 이 火가 아니면 능히 事物을 生成할 수 없고, 사람에 있어서 이 火가 아니면 능히 살아갈 수 없다."하였다. 무릇 《內經》에서는 心胞絡으로써 臟을 삼고, 三焦와 짝을 지어서 六臟六腑로 하였으니 모두 十二經이 된다. 그 중 兩腎은 본래 하나의 臟으로 처음에는 左右의 區別이 없었다. 秦越人이 비로소 나누었으나, 아직 相火의 臟이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王叔和가 비로소 說을 세워, 三焦로써 命門에 짝을 지어 表裏로 삼았으니, 또한 깊은 뜻이 거기에 있다. 대개 命門을 비록 水臟으로 삼지만, 실은 相火가 寓居하는 곳이다. 그 意味는 대개 左는 陰이고 右는 陽이며, 左는 血이고 右는 氣며, 左는 水이고 右는 火이니, 가만히 一定한 居處를 지키면 水에 根本한 것이요, 움직여 遷變함에 處하면 化하여 火가 된다고 이른 것이다. 그러나 相火는 본래 정해진 形體가 없으니, 위에 있어서는 肝, 膽과 心胞絡사이에 寄寓하는데, 發하면 마치 龍火[38]가 하늘(霄漢)을 날아서, 激烈한 천둥(雷霆)이 되는 것과 같다; 아래에 있어서는 兩腎의 속에 寄寓하는데, 發하면 마치 龍火가 호수와 바다를 鼓舞하여 波濤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 或者가 묻기를: 일찍이 듣건대 사람의 몸에 臟라는 것이 있으니, 마치 倉庫와 같아 능히 모든 事物을 가득 담아 貯藏할 수 있는 것의 名稱이다. 大腸·小腸·胃·膀胱·膽등의 五臟같은 것은 모두 飮食物을 수수하여 담을 수 있는 것이지만, 아직 三焦가 臟가 됨을 살피지는 못하였으니, 어떻게 담을 수 있는가? 대답하되: 三焦란 腔子를 가리켜서 한 말이며, 腸胃의 모든 일을 包含한다. 가슴 속 肓膜의 上部를 上焦라 하고; 肓膜의 下部에서 배꼽이상을 中焦라 하고; 배꼽이하를 下焦라 하여, 모두 합쳐 三焦라 이름하니, 어찌 수수함이 없다고 이를 것인가? 그 形體는 脂膜이 있고 體腔내에 位置하고 있어, 六臟五腑의 外部를 덮어 싸고 있다. 心胞絡은 실제로 心을 싸고 있는 膜으로 心臟의 外部를 싸고 있으므로 心包絡이라 한다. 그 系統은 三焦의 系統과 더불어 連結되어 있다. 그러므로 相火와 臟腑는 모두 胸中에 붙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니, 이는 처음은 알고 끝은 모르는 것이다. 그 나머지 모든 說들은 다 돌고 돌아 잘못 전해진 말일뿐이다. 나의 좁은 見解가 이와 같다. 아는 자가 다시 辨論하기를 우러러 기다린다.

38) 腎火, 命門之火.

8) 或問: 東垣用藥, 多以升陽益胃目之, 而悉以升麻柴胡之類佐之, 何歟?

曰: 天地四時之令, 春夏之氣, 溫而升浮, 則萬物發生; 秋冬之氣, 寒而降沈, 則萬物肅殺. 人肖天地, 常欲使胃氣溫而升浮, 而行春夏生發之令; 不欲使胃氣寒而降沈, 而行秋冬肅殺之令耳. 又升麻能令清氣從右而上達, 柴胡能令清氣從左而上達. 經曰: 清氣在下, 則生飧泄; 濁氣在上, 則生腹脹. 是以清氣一升, 則濁氣隨降, 而無已上等證. 又蓡者等補劑, 皆味厚而氣滯者, 若不以升柴等藥提之, 何以得行于經絡肌表而滋補哉. 或曰: 東垣生于北方, 天傾西北陽氣下陷, 此法固宜, 恐東南方土不宜也. 曰: 地不滿東南, 土氣下陷, 故脾胃之氣不升. 脾胃之氣不升, 則上竅不通, 穀氣不行, 而內傷之病作矣. 是以此法, 尤利于東南方也, 學者不可不知此意.

8) 或者가 묻기를: 東垣은 藥을 쓸 때 대개 升陽益胃를 指目하였는데, 모두 升麻·柴胡같은 類로써 보좌하게 한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되: 天地四時의 令에서, 春夏의 氣는 溫하고 升浮하니, 萬物을 發生시키고; 秋冬의 氣는 寒하고 降沈하니, 萬物을 肅殺시킨다. 사람은 天地와 닮아서, 항상 胃氣로 하여금 溫하여서 升浮하게 하여, 春夏의 生發之令을 行하게 하고자 하지만, 胃氣로 하여금 寒하여서 沈降하게 하여, 秋冬의 肅殺之令을 行하게 하고자 하지는 않을 뿐이다. 또 升麻는 능히 淸氣로 하여금 오른쪽을 따라 위로 到達하게 하고, 柴胡는 능히 淸氣로 하여금 왼쪽을 따라 위로 到達하게 한다. 《內經》에 이르기를 "淸氣가 아래에 있으면 飧泄하고; 濁氣가 위에 있으면 腹脹한다."[39]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淸氣가 한번 올라가면 濁氣가 따라서 내려가니, 위와 같은 등의 證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또 人蓡과 黃耆등의 補劑는 모두 味는 厚重하고 氣는 壅滯한 것이니, 만약 升麻와 柴胡등 藥으로 끌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經絡, 肌表로 行하게 하여 滋補할 수 있겠는가?或者가 이르기를: 東垣은 北方에서 났고, 하늘이 西北으로 기울어져 陽氣가 下陷하니, 이 法이 진실로 마땅했을 것이나, 아마 東南方의 風土에는 마땅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답하되: 땅은 東南方이 부족하며, 土氣가 下陷하므로 脾胃의 氣가 升하지 못한다. 脾胃의 氣가 升하지 못하면, 上竅이 通하지 않게 되고 穀氣는 行하지 못하여 內傷病이 생긴다. 이런 까닭으로 이 法은 東南方에 더욱 이로우니, 배우는 者는 이 뜻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9) 或問: 內傷發熱之證, 其爲有痰有食胸中迷悶者, 固不敢輒用補氣之劑: 其有察脈審證, 明白知是虛損內傷之候, 而投以東垣補中益氣湯等, 遂致胸中滿悶難當, 醫者其技窮矣. 若此者, 又將何法以治之乎?

曰: 此蓋濁氣在上而清氣不能上升, 故濁氣與藥氣相拒故耳. 宜以升柴二物用酒制炒, 更加附子一片, 以行蓡芪之氣, 及引升柴直抵下焦, 引清氣上升而濁氣下降, 則服蓡芪等補藥不致滿悶矣. 學者其可不知此乎.

9) 或者가 묻기를: 內傷으로 發熱하는 證에, 痰이 있거나 食積이 있어 胸中이 迷惑하여 답답한 사람은, 진실로 감히 補氣하는 藥을 감자기 使用하지 못한다. 그 脈과 症狀을 살펴서 明白히 虛損內傷의 症候가 있음을 알아야하며, 東垣의 補中益氣湯 등을 投與하여 마침내 胸中이 滿悶하여 堪當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것은,

39)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나옴.

醫者의 그 技術이 窮한 것이다. 이와 같은 者는 將次 어떠한 方法으로써 그것을 治療하여야 하겠는가?

대답하되: 이것은 대개 濁氣가 위에 있어서 淸氣가 능히 上升하지 못하므로, 濁氣와 藥氣가 서로 拒否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升麻와 柴胡의 두 가지 藥物은 술을 使用하여 炒하고 다시 附子 한 조각을 加함으로써, 人蔘과 黃芪의 氣運을 行하게 하고, 또한 升麻와 柴胡를 이끌어 바로 下焦에 다다르게 하여, 淸氣를 끌고 上升하게 하고 濁氣를 下降하게 하면, 곧 人蔘과 黃芪 等의 補藥을 服用해도 가슴이 답답한 것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다. 배우는 者가 어찌 이것을 알지 아니할 것인가?

10) 或問: 六淫之邪, 當從《內經》六氣之太過爲是也. 昔醫和對晋平公之文, 不曰風寒暑濕燥火, 而曰陰陽風雨晦明, 何也?

曰: 辭雖異而理實同焉. 彼謂陰淫寒疾者, 卽太陽寒水之令太過而爲寒疾也. 陽淫熱疾者, 卽少陽相火之令太過而爲熱疾也. 風淫末疾者, 卽厥陰風木之令太過而爲末疾也. 雨淫腹疾者, 卽太陰濕土之令太過而爲腹疾也. 晦淫惑疾者, 卽陽明燥金之令太過而爲疫疾也. 明淫心疾者, 卽少陰君火之令太過而爲心疾也.或曰: 陰陽風雨卽爲寒熱風濕之疾, 彼此固胞合矣; 所謂晦淫惑疾與明淫心疾二者, 似不相符, 請明以告我. 曰: 歲金太過, 燥令大行, 久晴不雨, 黃埃蔽空, 日月晝明, 當爲疫癘之疾, 出嵐瘴氣是也. 惑當作疫, 傳寫之誤耳. 君火太過, 熱令早行, 火爲離明之象, 故曰明淫, 如《內經》所謂天明則日月不明是也. 少陰君火司令, 故曰心疾, 春分至小滿時太熱也. 有釋明爲晝明, 晦爲夜晦, 惑爲蠱惑心志, 皆非也. 夫晝明夜晦, 天道自然之理, 何淫之有. 其蠱惑心志者, 亦非天地之淫邪也. 學者宜再思之.

10) 或者가 묻기를: 六淫의 邪氣란, 마땅히 《內經》의 "六氣의 太過"에 따르는 것이 옳다. 옛날의 醫和가 晋의 平公의 病에 對한 글에는 風·寒·暑·濕·燥·火라 말하지 아니하고, 陰·陽·風·雨·晦·明이라 말하였으니 어째서인가?

대답하되: 말은 비록 다르지만 理致는 實際로 同一한 것이다. 저기에서 말한 陰淫寒疾이란, 곧 太陽寒水의 時令이 太過해서 寒疾이 된 것이다. 陽淫熱疾이란, 곧 少陽相火의 時令이 太過해서 熱疾이 된 것이다. 風淫末疾이란, 곧 厥陰風木의 時令이 太過해서 末疾이 된 것이다. 雨淫腹疾이란, 곧 太陰濕土의 時令이 太過해서 腹疾이 된 것이다. 晦陰惑疾이란, 곧 陽明燥金의 時令이 太過해서 疫疾이 된 것이다. 明淫心疾이란, 곧 少陰君火의 時令이 太過해서 心疾이 된 것이다. 或者가 이르기를: 陰·陽·風·雨가 곧 寒·熱·風·濕의 疾病이 된다면, 저것과 이것이 진실로 꼭 맞다; 그러나 이른 바 晦淫惑疾과 明淫心疾의 두 가지는 서로 符合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 請하건대 明確하게 밝혀 주시오. 대답하되: 歲金이 太過하면 燥의 時令이 크게 行하여 오랫동안 맑고 비가 오지 않으며, 누런 티끌이 하늘을 덮으며, 해와 달의 밝음이 가리워져서 마땅히 疫癘의 疾病이 생기니 山嵐瘴氣가 이것이다. 惑字는 마땅히 疫字로 되어야 하니, 傳寫의 錯誤이다. 君火가 太過하면 熱의 時令이 일찍 行하고, 火는 離卦로 明의 象이 되므로 "明淫"이라고 이른 것이다. 예를 들면 《內經》에서 이른바 "하늘이 밝으면 곧 日月이 밝지 않게 된다"[40]한 것이 이것이다. 少陰君火가 時令을 맡

으므로 "心疾"이라 하였으며, 春分에서 小滿에 이를 때까지 太熱한 때이다. 註釋에 明은 晝明으로, 晦는 夜晦로, 惑는 蠱惑心志로 한 것은 모두 잘못이다. 무릇 晝明과 夜晦는 天道自然의 理致이니, 어찌 淫邪가 있겠는가? 그 蠱惑心志라는 것도 또한 天地의 淫邪가 아니다. 배우는 者는 마땅히 거듭 생각해야 한다.

11) 或問: 飮食同入于胃, 而水穀二者何如而分乎? 且如膀胱止有下口而無上口, 其水固可出, 不知從何而入乎? 又何其如是之清乎?

曰: 經曰: 飮食入胃, 游溢精氣, 上輸于脾. 脾氣散精, 上歸于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并行, 合于四時五行陰陽, 揆度以爲常也. 夫胃爲倉廩之官, 無物不受全借脾土轉輸而運化焉. 蓋水穀入胃, 其濁者爲渣滓, 下出幽門, 達大小腸而爲糞, 以出于穀道. 其清者, 倏焉而化爲氣, 依脾氣而上升于肺. 其至清而至精者, 由肺而灌溉乎四體, 而爲汗液津唾, 助血脈, 益氣力, 而爲生生不息之運也. 其清中之濁者, 下入膀胱而爲溺, 以出乎小便耳. 其未入而在膀胱之外者, 尚爲濁氣; 既入而在膀胱之內者, 卽化爲水. 是故東垣有曰: 飮者無形之氣. 正謂此也. 蓋肺屬金而覆乎脾胃之上, 卽如天之覆于地之上也. 經曰: 清陽爲天, 濁陰爲地, 地氣上而爲雲, 天氣下而爲雨, 水入于胃, 輒化氣而上升, 亦猶天降霖雨于地, 倏焉化氣上騰而爲雲, 又復化爲霖雨而下降也. 或曰: 老人與壯年者, 飮水無異多寡, 壯年小便甚少, 而老者小便甚多, 何也? 曰: 壯者如春夏之氣, 升者多而降者少; 老人如秋冬之氣, 降者多而升者少耳. 或曰: 降多卽小便多, 升多者未見其爲何物而出于上竅焉. 曰: 經曰: 清陽出上竅, 濁陰出下竅; 清陽發腠理, 濁陰走五藏; 清陽實四肢, 濁陰歸六腑. 各從其化也. 夫大塊之爲器, 不可論其涵容之量, 人之氣化亦猶是也, 賢者宜再思之.

11) 或者가 묻기를: 飮食은 함께 胃로 들어가는데, 水와 穀의 두 가지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또 만약 膀胱이 단지 下口만 있고 上口가 없다면, 그 水가 진실로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어디로 해서 들어가는 지를 알지는 못하겠다. 또한 어찌하여 그것이 이와 같이 맑은가?

대답하되: 《內經》에 이르기를 "飮食이 胃에 들어옴에 精氣를 흘러 넘치게 하여 위로 脾에 運輸된다. 脾氣가 精을 흩어 위로 肺에 들어가게 하고, 水道를 調節하여 아래로 膀胱으로 運輸한다. 水精이 四方으로 퍼져나가고, 五臟의 經脈에 行하게 되어 四時에 따른 陰陽五行의 變化와 合하여져서, 서로 잘 平衡되게 함을 常道로 삼는다."41)하였다. 무릇 胃는 倉廩之官으로 飮食物을 받지 않는 것이 없으나, 전적으로 脾土의 轉輸機能을 빌어서 運化한다. 대개 水穀이 胃에 들어오면 그 중 濁한 것은 찌꺼기가 되어 아래로 幽門으로 나가 大腸과 小腸에 到達하여 糞便이 되어 穀道로 나간다. 그 중 맑은 것은 빨리 變化하여 氣가 되고 脾氣에 依存하여 肺로 上升한다. 그 지극히 맑고 지극히 精微한 것은 肺의 肅降作用으로 말미암아 四體를 灌溉하여 汗, 液, 津, 唾가 되어 血脈을 補助하고, 氣力을 補益하여 生生不息의 運化를 하게 된다. 그 맑

40) 《素問·四氣調神大論篇》에 나옴.

41) 《素問·經脈別論篇》에 나옴: 素問의 原文에는 "飮入於胃"로 되어 있는데, 《內外傷辨惑論》에 '入於'가 '食入'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해 馬蒔는 " '食入于胃'이하는 飮을 말한 것이지 食을 말한 것은 아니므로, '飮食入胃'라 한 것은 '下輸膀胱 水精四布'의 뜻에 크게 위배된다"하였다.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87.)

은 것중의 濁한 것은 아래로 膀胱에 들어가서 오줌이 되어 小便으로 빠져나간다. 그 중 아직 들어가지 않고 膀胱의 外에 있는 것은 아직 濁氣가 되어 있고, 이미 들어가서 膀胱의 內에 있는 것은 곧 變化하여 水가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東垣은 "飮은 無形의 氣다."라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이른 것이다. 대개 肺는 金에 屬하고 脾胃의 위를 덮고 있으니, 곧 하늘이 땅의 위를 덮고 있는 것과 같다. 《內經》에 이르기를 "淸陽은 天이 되고, 濁陰은 地가 된다. 地氣가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天氣가 아래로 내려가서 비가 된다."[42]하였다. 水가 胃에 들어가서 곧 氣로 變化하여 上升하는 것은, 하늘이 장마(霖雨)를 땅에 내려보내면 곧 氣로 變化하여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또 다시 장마(霖雨)로 變化하여 下降하는 것과 같다. 或者가 이르기를: 老人과 壯年에게 있어 물을 마시는데 있어서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없는데도, 壯年은 小便이 매우 적고, 老人은 小便이 매우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답하되: 壯者는 春夏의 氣運과 같아서, 升하는 것은 많고 降하는 것은 적으며, 老人은 秋冬의 氣運과 같아서, 降하는 것은 많고 升하는 것은 적기 때문이다.或者가 이르기를: 降함이 많으면 곧 小便이 많아지지만, 升함이 많은 것은, 아직 그것이 어떠한 物質이 되어 上竅로 出하는지 보지 못하였다. 대답하되: 《內經》에 이르기를 "淸陽은 上竅로 나가고, 濁陰은 下竅로 나간다; 淸陽은 腠理에서 發하고, 濁陰은 五臟으로 간다; 淸陽은 四肢를 充實하게 하고, 濁陰은 六腑로 들어간다."[43]라 하였으니, 각각 그 變化를 따른다. 무릇 大地가 그릇이 됨에 그것이 涵容하는 量을 論할 수 없듯이, 사람의 氣化도 또한 이와 같다. 賢明한 者는 마땅히 거듭 생각해 볼 일이다.

12) 或問: 人之壽夭不齊何歟?

曰: 元氣盛衰不同耳. 夫人有生之初, 先生二腎, 號曰命門, 元氣之所司, 性命之所系焉. 是故腎元盛則壽延, 腎元衰則壽夭, 此一定之理也. 或曰: 今見肥白之人多壽夭, 元氣反衰乎? 瘦黑之人多壽延, 元氣反盛乎? 曰: 丹溪謂白者肺氣弱, 黑者腎氣足. 又曰肥不如瘦, 白不如黑. 或曰: 四方之人皆同乎? 曰: 不同也. 《內經》五常正大論云: 陰精所奉其人壽, 陽精所降其人夭. 又曰: 東南方陽也, 陽者其精降于下, 故右熱而左溫. 西北方陰也, 陰者其精奉于上, 故左寒而右凉. 王注曰: 陰精所奉, 高之地也. 陽精所降, 下之地也. 陰方之地, 陽不妄泄, 寒氣外持, 邪不數中而正氣堅守, 故壽延. 陽方之地, 陽氣耗散, 發泄無度, 風濕數中, 眞氣傾竭, 故夭折. 或曰: 嘗聞天人之理, 同一揆也. 今見于天地之四方者, 旣得聞命矣; 而具于人之五臟者, 未之聞也. 請申明其說可乎? 曰: 西北二方, 在人爲腎水肺金所居之地, 二臟常恐其不足; 東南二方, 在人爲肝木心火所處之位, 二臟常恐其有餘. 《難經》曰東方實, 西方虛, 瀉南方, 補北方等語, 卽此之義也. 夫腎水旣實, 則陰精時上, 奉于心肺, 故東方之木氣不實, 而西方之金氣不虛, 此子能令母實, 使金得以平木也. 是故水日以盛而火日以虧, 此陰精所奉于上而令人壽延也. 若夫腎水虛弱, 則無以制南方之心火, 故東方實而西方虛, 其命門與胞絡之相火, 皆挾心火之勢而來, 侮所不勝之水, 使水日虧而火日盛, 此陽精所降于下, 故令人夭折也. 大抵王冰主天地之四方言, 越人主人身之五臟論, 皆不失《內經》之旨, 同歸于一理也, 學者詳之.

42) 《素問·陰陽應象大論篇》에 나옴.

43) 《素問·陰陽應象大論篇》에 나옴.

12) 或者가 묻기를: 사람의 壽, 夭가 같지 아니한데 무슨 까닭인가?

대답하되: 元氣의 盛衰가 같지 않은 때문이다. 무릇 사람이 생기는 처음에, 먼저 二腎이 생기는데, 이름하여 命門이라 하며 元氣를 밑은 곳이요, 性命이 聯系된 곳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腎元이 旺盛하면 壽命이 延長되고, 腎元이 衰弱하면 壽命이 짧아지니, 이것은 定한 理致인 것이다. 或者가 이르기를: 지금 보건대 肥白한 사람이 壽命이 짧은 경우가 많은데, 元氣가 도리어 衰弱한 것인가? 瘦黑한 사람은 壽命이 延長되는 경우가 많은데, 元氣가 도리어 旺盛한 것인가? 대답하되: 丹溪는 "白은 肺氣가 弱한 것이요, 黑은 腎氣가 足한 것이다."라 하였고, 또 "肥滿한 것은 瘦瘠한 것만 못하고, 白은 黑한 것만 못하다."라 하였다. 或者가 이르기를: 四方 전 地域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가? 대답하되: 같지 아니하다. 《內經》의 五常正大論에 이르기를 "陰精이 받드는 곳은 그 사람이 長壽하고, 陽精이 下降하는 곳은 그 사람은 夭折한다."하였고, 또 이르기를 "東南方은 陽이니, 陽氣는 그 精이 下降하므로, 右方은 熱하고 左方은 溫하다. 西北方은 陰이니, 陰은 그 精이 위로 받들어지니, 左方은 寒하고 右方은 凉하다."하였다. 王冰이 注하여 말하기를 "陰精이 위로 받드는 곳은 높은 地域이요, 陽精이 下降하는 곳은 낮은 地域이다. 陰方의 地域은 陽氣가 妄泄하지 아니하고 寒氣가 外에서 지키니, 邪氣가 자주 侵入하지 못하여, 正氣가 堅固하게 지켜지므로 壽命이 延長한다. 陽方의 地域은 陽氣가 耗散하여 發泄이 無度하고, 風濕이 자주 侵入하여 眞氣가 기울어 衰竭하므로 夭折한다."라 하였다. 或者가 이르기를: 일찍이 天과 人의 理致가 같은 法道를 따른다고 들었다. 지금 天地의 四方에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가르침을 들었으나, 사람의 五臟에 갖추어야할 것에 대하여는 아직 듣지 못하였다. 請하건대 그 說을 陳述하여 分明하게 할 수 있겠는가? 대답하되: 西北二方은 사람에게 있어 腎水와 肺金이 居處하는 곳으로, 二臟은 항상 不足할까 두려워한다. 東南二方은 사람에게 있어 肝木과 心火가 居處하는 곳으로, 二臟은 항상 有餘할까 두려워한다. 《難經》에 "東方이 實하고 西方이 虛하면, 南方을 瀉하고 北方을 補한다."라고 한 말 등이 곧 이 뜻이다. 무릇 腎水가 이미 實하다면 곧 陰精이 때때로 上升하여 心肺를 받들므로, 東方의 木氣는 實하지 않게 되고 西方의 金氣도 虛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子가 能히 母를 實하게 한 것으로, 金으로 하여금 木을 平定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水는 날로 旺盛하게 되고 火는 날로 虧損되게 된다. 이것이 陰精이 위로 받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하는 것이다. 腎水가 虛弱한데에 이르면 곧 南方의 心火를 抑制하지 못하므로, 東方은 實해지고 西方은 虛해져서 그 命門과 胞絡의 相火가 다 心火의 勢力를 꺼고 와서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水를 업신여겨, 水로 하여금 날로 虧損되게 하고 火로 하여금 날로 旺盛하게 한다. 이것은 陽精이 아래로 下降한 것이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夭折하게 한다. 大抵 王冰은 天地의 四方에 主眼點을 두고 말하였고, 越人은 人身의 五臟에 主眼點을 두고 論하였으니, 모두 《內經》의 要旨를 잃지 않고 같이 하나의 理致로 돌아간 것이니, 배우는 者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13) 或問: 經謂清氣在下, 則生飧泄; 濁氣在上, 則生膜脹. 夫病在上者, 法當用木香, 檳榔等藥以降之, 病在下者, 法當用升麻, 柴胡等藥以提

之, 理宜然也. 其或泄痢, 脫肛後重, 大孔痛不可忍, 是爲氣下陷也, 法當擧之以升麻, 柴胡, 和之以木香, 檳榔. 若夫四藥同劑, 不無升降混淆, 奚有歸一治病之功耶?

曰: 天生藥石, 治病各逞其能. 如張仲景制大柴胡湯, 用柴胡, 大黃同劑, 以治傷寒表裏俱見之證. 然柴胡升而散外邪, 大黃降而泄內實, 使病者熱退氣和而愈. 今用升麻, 柴胡, 自能升淸氣而上行; 木香, 檳榔, 自能逐邪氣而下降. 故使脫肛擧而後重除, 故可同劑而成功矣, 何疑之有哉. 欲用藥者, 宜做此而擴充之可也.

13) 或者가 묻기를: 《內經》에 "淸氣가 아래에 있으면 곧 飧泄하고, 濁氣가 위에 있으면 곧 膜腹한다."고 하였다. 무릇 病이 위에 있는 것은, 治法으로 마땅히 木香, 檳榔등의 藥劑를 使用하여 그것을 내려가게 하고, 病이 아래에 있는 것은, 治法으로 마땅히 升麻, 柴胡등의 藥劑를 使用하여 그것을 끌어 올려야 하니, 理致는 마땅히 그러한 것이다. 간혹 泄痢, 脫肛, 後重으로 肛門이 아파서 참을 수 없는 것은 氣가 下陷한 것이니, 마땅히 升麻, 柴胡로써 들어올리고 木香, 檳榔으로써 調和시켜 주어야 한다. 네 가지 藥劑를 함께 쓰면, 升降이 뒤섞여 구별할 수 없게 되는데, 어찌 歸一하여 治病하는 功이 있겠는가?

대답하되: 하늘이 藥石을 낳을 때, 病을 治療함에 있어 각기 그 能力을 다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張仲景이 大柴胡湯을 制定함에, 柴胡와 大黃을 함께 使用하여 傷寒의 表裏症이 함께 나타나는 症狀을 治療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柴胡는 上升하여 外邪를 흩어주고, 大黃은 下降하여 內實을 泄하게 한 것으로, 病者로 하여금 熱이 물러나게 하고 氣가 調和되게 하여 낫게 한 것이다. 지금 升麻와 柴胡를 使用하여 스스로 淸氣를 升하게 하여 上行하도록 하고, 木香과 檳榔을 使用하여 스스로 邪氣를 몰아내어 下降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脫肛된 것이 들리어 지고 後重이 除去되니, 고로 함께 使用하여 功을 이루었다 할 것이니, 어찌 여기에 疑心이 있겠는가. 藥을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마땅히 이것을 따라서 擴充해 나가야할 것이다.

14) 或問: 人身之兩腎, 猶車之有兩輪, 其形同, 色亦無異, 不知王叔和何所見而獨謂左腎屬水而右腎屬火, 又指右腎爲命門以配三焦之經? 嘗聞有生之初, 胚胎未成之際, 先生二腎, 卽造化天一生水之義, 今以水火歧之, 氷炭相反何歟?

曰: 予嘗私淑丹溪而得其說矣. 按《內經》以心胞絡爲三焦相火之配而幷行于經也, 其兩腎本爲一臟, 初未嘗有左右之分. 而越人始分之, 亦不言其爲相火之臟. 叔和立說, 以三焦合命門爲表裏, 亦有深意存焉. 蓋謂腎屬陰而本主乎靜, 靜則陽孕于其中陽氣孕矣, 其能純乎靜而無生氣之動歟. 若經所謂腎屬水,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 是陽歸之陰而成孕者也. 又謂腎爲作强之官, 伎巧出焉, 陽出之陰而化生者也. 是故腎爲一臟配五行而言者, 則屬之水矣. 以其兩腎之形有二象而言者, 亦得以左右分陰陽剛柔而命爲五臟之根元也. 以左爲陰, 右爲陽, 陰爲水, 陽爲火, 水爲血, 火爲氣, 于是左腎之陰水生肝木, 肝木生心火, 右腎之陽火生脾土, 脾土生肺金, 其四臟之于腎, 猶枝葉之出于根也. 雖然, 但不可獨指右腎爲命門耳. 經曰: 太冲之地, 名曰少陰, 少陰之上, 名曰太陽, 太陽根起于至陰, 結于命門. 按王注: 《靈樞經》云, 命門者目也. 抑考《明堂》, 《銅人》等經, 命門一穴在脊中行第十四椎下陷中兩腎之間. 夫兩腎固爲眞元之根本, 性命之所關, 雖爲水

臟, 而實有相火寓乎其中, 象水中之龍火, 因其動而發也. 愚意嘗以兩腎總號爲命門, 其命門穴正象門中之樞闔, 司開闔之象也. 惟其靜而闔, 涵養乎一陰之眞水; 動而開, 鼓舞乎龍雷之相火. 夫水者常也, 火者變也. 若獨指乎右腎爲相火, 以爲三焦之配, 尙恐立言之未精也, 未知識者以爲何如?

14) 或者가 묻기를: 人身의 兩腎은 수레의 양바퀴와 같으니, 그 形態가 같고 色도 또한 다름이 없는데, 王叔和는 어떠한 見解로 유독 左腎은 水에 屬하고 右腎은 命門에 屬한다고 했는지 알지 못하겠다. 또 어떻게 右腎을 指摘하여 命門이 된다고하여 三焦經과 짝지었는가? 일찍이 生의 初, 胚胎가 아직 成熟하지 않았을 때, 먼저 二腎이 生하니, 곧 自然造化의 妙인 天一生水하는 뜻이다. 지금 그것을 水, 火로 나누었으니, 마치 얼음과 숯처럼 相反되니 무슨 까닭인가?

대답하되: 나는 일찍이 丹溪에게 私淑하여 그 說을 터득한 바가 있다. 《內經》을 보면 心胞絡으로써 三焦相火의 짝을 삼아서 함께 經絡을 行하게 하였다. 그 兩腎은 본래 하나의 臟으로, 처음에는 左右의 區分이 없었다가, 秦越人이 비로소 그것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相火의 臟이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叔和가 說을 세워서 三焦로써 命門에 합하여 表裏로 삼았으니, 역시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대개 腎은 陰에 屬하여 본래 靜을 主하고, 靜한즉 陽이 그 가운데에 孕胎되고,陽이 이미 孕胎되어 있어도, 그것이 능히 靜에 순전하여 生氣의 움직임이 없겠는가. 만약 《內經》에서 말한 바와 같이, 腎은 水에 屬하고 五臟六腑의 精을 받아서 貯藏한다면, 이것은 陽이 陰으로 돌아가서 孕胎된 것이다. 또 "腎은 作强之官이요, 技巧가 出한다."[44]고 하였으니, 陽이 陰에서 出하여 化生한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腎을 하나의 臟으로 보고 五行에 配屬하여 말하면 곧 水에 屬한다. 그것이 兩腎의 形態로써 두 가지의 形象이 있다고 보고 말한다면, 左右로써 陰陽과 剛柔를 區分할 수 있으니, 이름하여 五臟의 根源이 된다. 左로써 陰을 삼고 右로써 陽을 삼고, 陰은 水가 되고 陽은 火가 되며, 水는 血이 되고 火는 氣가 되니, 左腎의 陰水는 肝木을 生하고 肝木은 心火를 生하고, 右腎의 陽火는 脾土를 生하고 脾土는 肺金을 生하니, 그 四臟이 腎에 있어서는, 마치 枝葉이 根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단지 유독 右腎을 가리켜서 命門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內經》에 이르기를 "太衝의 地는 이름하여 少陰이라 하고, 少陰의 上은 이름하여 太陽이라 하는데, 太陽은 至陰에 뿌리 두고 일어나 命門에서 멎한다."[45]라 하였다. 王冰이 注한 것을 살피보면 "《靈樞經》에는 命門이 目이다. 《明堂》과 《銅人》 등의 經을 考察해보면, 命門一穴은 脊椎中에 있는데, 第十四椎 아래의 움푹 들어간 곳의 兩腎사이를 行한다."하였다. 무릇 兩腎은 본래 眞元의 根本이 되고 性命의 關鍵이 된다. 비록 水의 臟이지만, 실제로는 相火가 그 中에 寓居하고 있어서, 水中의 龍火의 形象을 하였으니, 그것이 움직임으로 因하여 發하는 것이다. 나의 見解로는 마땅히 兩腎을 모두 이름하여 命門이라 해야 하며, 그 命門穴이란 바로 門에 있어서의 樞闔(문설주)을 形象하고 있어, 開闔을 담당하고 있는 形象이다. 오직 그 靜하면서 闔하면 一陰의 眞水를 涵養할 것이요, 動하면서 開하면 龍雷의

44) 《素問 · 靈蘭秘典論篇》에 나옴.
45) 《素問 · 陰陽離合論篇》에 나옴.

相火를 鼓舞시키는 것이다. 대저 水는 常이요, 火는 變이다. 만약 유독 右腎만을 가리켜서 相火라 하여 三焦와 짝을 삼는다면 오히려, 세운 說이 精微롭지 못하여, 아직 잘 알지 못하는 者가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다.

15) 或問: 《內經》所謂壯火之氣衰, 少火之氣壯, 壯火食氣, 氣食少火, 壯火散氣, 少火生氣, 何謂也?

曰: 王太僕已有注文, 但未甚詳耳, 請陳一得如下: 夫壯火之氣衰, 少火之氣壯者, 言 造化勝復之理, 少而壯, 壯而衰, 衰而復生, 循環無端, 生生不息. 經雖不言衰而復生, 其理實在其中矣. 壯火食氣者, 言元氣見食于壯火也. 氣食少火者, 言元氣見助于少火也. 壯火散氣謂耗散元氣, 少火生氣謂滋生元氣., 此二句申明上文二句之言耳. 蓋火不可無, 亦可少而不可壯也, 少則滋助乎眞陰, 壯則燒爍乎元氣. 陰陽造化之理, 無往不復, 夫火壯而亢極, 則兼水化以制之. 經曰亢則害, 承乃制也. 又曰制則生化. 故壯火衰而少火復生, 是以陰陽調和, 萬物生旺, 四時生長化收藏之道, 卽此理也. 以人論之, 胚胎未成之初, 先生二腎以涵養眞陰, 是故名爲元氣, 天一生水之義焉, 然後肝心脾肺以及五臟相繼而生. 五臟五腑之外, 又有胞絡相火, 游行于三焦之間, 故以三焦爲配, 二者皆有名無實之腑臟, 蓋相火無定位故也. 抑考先哲有曰: 天非此火, 不能生物; 人非此火, 不能有生. 言其不可無也, 此非少火生氣之意乎. 又曰: 火與元氣不兩立, 一勝則一負. 言其不可亢也, 又非壯火散氣之謂乎. 管見如斯, 未知是否?

15) 或者가 묻기를: 《內經》에서 이른 바, "壯火의 氣는 衰하게 되고, 少火의 氣는 壯建해진다. 壯火는 氣를 먹어 없애고, 氣는 少火를 먹고 자란다. 壯火는 氣를 흩어 버리고, 少火는 氣를 生하여 준다"[46]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대답하되: 太僕 王氷이 이미 注文을 두었으나, 다만 詳細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하나의 얻은 바를 陳述하자면 다음과 같다: 무릇 壯火의 氣는 衰하여지고, 少火의 氣는 壯建해진다는 것은, 自然界의 造化勝復의 理致를 말함이니, 少하면 壯하여지고, 壯하면 衰하여지며, 衰한 것은 다시 生하여 循環에 끝이 없이 生生不息한다. 《內經》에 비록 衰하여 다시 生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理致는 實在로 그 가운데에 있다. 壯火가 氣를 먹는다는 것은, 元氣가 壯火에 의하여 먹힌다는 것이고, 氣가 少火를 먹는다는 것은, 元氣가 少火에 의하여 助長된다는 것이다. 壯火가 氣를 흩는다는 것은, 元氣를 耗散시킨다는 말이고, 少火가 氣를 生하여 준다는 것은, 元氣를 滋生한다는 것을 말함이니, 이 두 句節은 위 文章의 두 句節을 明確하게 밝혀서 말한 것이다. 大槪 火가 없어서도 안되지만, 또한 적을 수는 있으나 壯盛해서는 안되니, 적으면 眞陰을 滋助하지만 壯盛하면 元氣를 태워버리기 때문이다. 陰陽造化의 理致는 往復不止하니, 무릇 火가 壯盛하여 亢極하면 곧 水의 變化가 兼해져서 그것을 制止한다. 《內經》에 이르기를 "亢則害, 承乃制"라 했고, 또 "制則生化"라 하였다. 故로 壯火가 衰하면 少火가 다시 生하니, 이것으로써 陰陽이 調和를 이루고, 萬物이 生하고 旺盛해져, 四時의 生長化收藏하는 道가, 곧 이 理致이다. 사람으로써 論한다면 胚胎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初에, 먼저 二腎이 生하여 眞

46) 《素問·陰陽應象大論篇》에 나옴. 여기서의 火는 陽氣를 가리키며, 壯火는 病理的인 亢盛한 陽氣이고, 少火는 生理的인 平和로운 陽氣이다.

陰을 涵養하므로, 이름하여 元氣가 되니, 天一生水하는 뜻이 된다. 그런 然後에 肝, 心, 脾, 肺와 五腑에 이르기까지 서로 이어져서 生한다. 五臟五腑의 外에 또 胞絡相火가 있어 三焦의 사이에 떠다니므로 三焦로써 짝을 삼으나, 이 둘은 다 이름은 있으나 實在的인 臟腑는 없다. 大概 相火는 정해진 位置가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先哲이 말한 것을 考察해보면 "하늘은 이 火가 아니면 物을 낳을 수가 없고, 사람은 이 火가 아니면 삶이 있을 수가 없다."하였다. 이는 相火가 없어서는 안됨을 말한 것으로, 少火生氣의 뜻이 아니겠는가. 또 이르기를 "火는 元氣와 더불어 함께 설 수 없으니, 하나가 이기면 곧 하나가 진다."하였다. 이것은 火가 過亢해서는 안됨을 말한 것이니, 壯火散氣를 이름이 아니겠는가. 나의 見解가 이와 같은데, 아직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겠다.

16) 或問: 越人《難經》第一難中所謂: 十二經皆有動脈, 獨取寸口以決五臟六腑死生吉凶之法. 又曰: 寸口者, 脈之大會, 手太陰之脈動也. 夫寸口一脈, 何以能決臟腑死生吉凶乎? 鷲峰熊氏注爲右寸, 謂右寸之屬肺也. 四明張氏注爲兩寸, 謂脈會太淵穴也. 二說不同, 其孰非而孰是歟? 請明以告我.

曰: 古聖立法, 以三部九候決人死生, 以六臟六腑分配于六部之中, 故可以驗人臟腑之吉凶也, 殊不知《內經》言寸口者頗多, 悉兼關尺而言也, 大概古人以寸口爲六脈之總名耳. 不然, 《內經》何以言寸口之脈中手短者曰頭痛, 寸口脈中手長者曰足脛痛, 寸口脈中手促上擊者肩背痛, 若此之類, 莫能盡述. 先哲注謂中手爲醫者之中指也, 然則非病者之關脈乎. 夫越人之《難經》, 因《內經》而作, 故有是語. 今之注者, 皆以己意妄釋, 故與經旨不合. 學者宜再思之.

16) 或者가 묻기를: 越人의 難經 第一難中에 이르기를 "十二經이 모두 動脈이 있지만, 다만 寸口를 取하여 五臟六腑의 死生과 吉凶의 法則을 決定한다."했고, 또 이르기를 "寸口라는 것은 脈의 大會로서, 手太陰의 脈이 뛴다."고 했다. 무릇 寸口 一脈이 어떻게 能히 臟腑의 死生과 吉凶을 決定할 수 있는가? 鷲峰 熊氏는 注에서 右寸이라 하였는데, 이는 右寸이 肺에 屬함을 이른 것이다. 四明 張氏는 注에서 兩寸이라 하였는데, 이는 脈이 太淵穴에서 모임을 말한 것이다. 두 가지 說이 같지 아니한데, 어느 것이 그르고 어느 것이 옳은가? 청컨대 나에게 밝혀 주시오.

대답하되: 옛 聖賢이 法을 세울 때에는 三部九候로써 사람의 死生을 決定하였고, 六臟六腑를 六部의 中에 나누어 配屬시켰으므로 가히 사람의 臟腑의 吉凶을 徵驗할 수 있었다. 특히《內經》에서 말하는 寸口를 알지 못하는 者가 자못 많으니, 모두 關과 尺을 兼하여 말한 것으로, 대개 古人은 寸口로써 六脈의 總括的인 이름으로 使用한 것일 따름이다. 그렇지 않다면《內經》에서 어떻게 "寸口 脈이 손에 전달되어 오는 것이 짧은 것은 頭痛이라 하고, 寸口脈이 손에 전달되어 오는 것이 긴 것은 足脛痛이라 하며, 寸口脈이 손에 전달되어 오는 것이 促急하면서 위로치는 듯이 느껴지는 것은 肩背痛이다."했겠는가. 이와 같은 경우는 다 敍述하기조차 힘들다. 先哲이 注하기를 "中手는 醫者의 中指가 된다."하였으니, 그렇다면 病者의 關脈이 아니겠는가. 무릇 越人의《難經》은 內經을 根本으로 지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말이 있는 것이다. 지금의 注하는 者는 모두 자기의 뜻대로 妄釋되이

解釋하므로 《內經》의 要旨와는 符合되지 않는다. 배우는 者는 마땅히 거듭 생각해야 한다.

17) 或問: 《難經》第八難曰: 寸口脈平而死者, 何謂也? 然. 諸十二經脈者, 皆系于生氣之源. 所謂生氣之源者, 十二經之根本也, 謂腎間動氣也, 此五臟六腑之本, 十二經之根, 呼吸之門, 三焦之源, 一名守邪之神. 故氣者, 人之根本也, 根絶則莖葉枯矣. 寸口脈平而死者, 生氣獨絶于內也. 夫所謂腎間動氣者, 釋者皆指爲兩尺. 兩尺既絶, 何謂寸口脈平? 何不言尺中腎脈, 而言腎間動氣? 請明辨以釋吾疑, 幸甚.

曰: 此言寸口脈平而死者, 亦兼關尺而論也. 腎間動氣者, 臍下氣海丹田之地也. 或曰: 臍下中行, 乃任脈所屬, 與腎何相干哉? 曰:各開寸半爲第二行, 皆屬足少陰腎經. 其臍與背後命門穴對, 各開寸半, 腎臟穴也. 故丹田氣海與腎脈相通, 爲腎之根也. 又若有生之初, 先生二腎, 胞系在臍, 故氣海丹田實爲生氣之源, 十二經之根本也. 或曰:寸口既平, 盼疑其死乎? 曰:此爲病劇形脫者論耳. 《內經》曰: 形肉已脫, 九候雖調者死. 凡見人之病劇者, 人形羸瘦, 大肉已脫, 雖六脈平和, 猶當診候足陽明之沖陽與足少陰之太谿. 二脈或絶, 更候臍下腎間動氣. 其或動氣未絶, 猶有可生之理; 動氣如絶, 雖三部平和, 其死無疑矣. 醫者其可不詳察乎.

17) 或者가 묻기를: 《難經》第八難에 이르기를 "寸口脈이 平한데도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름인가? 그렇다. 모든 十二經脈은 다 生氣의 根源에 聯系되어 있다. 이른 바 生氣之源이라는 것은 十二經의 根本이니, 腎間動氣를 이름이다. 이는 五臟六腑의 本이 되며, 十二經의 根이 되며, 呼吸의 門이 되며, 三焦의 源이 되니, 一名 守邪之神이라 한다. 故로 氣는 사람의 根本이니, 뿌리가 끊어지면 줄기와 가지가 마른다. 寸口脈이 平한데도 죽는 것은, 生氣가 內에서 단지 끊어진 것이다."하였다. 대저 이른 바 腎間動氣는, 注釋한 者가 모두 兩尺脈으로 指稱 하였다. 兩尺脈이 이미 끊어 졌는데도, 어찌 寸口脈이 平하다 하는가? 어찌 尺中의 腎脈을 言及 하지 않고 腎間動氣를 言及하였는가? 請하건대 明確하게 分辨하여 나의 疑問을 풀어 주면 매우 다행이겠다.

대답하되: 이 寸口脈이 平한데도 죽는다고 말한 것은, 또한 關尺脈을 兼하여 論한 것이다. 腎間動氣는 臍下의 氣海丹田의 部位이다. 或者가 이르기를: 臍下의 가운데를 行하는 것은 任脈에 屬하는데, 腎과 더불어 어떻게 서로 干與하는가? 대답하되: 任脈에서 각기 一寸半 떨어진 곳의 第二行이 다 足少陰腎經에 屬한다. 臍部와 背後의 命門穴이 서로 對가 되는데, 命門穴에서 各 一寸半 떨어진 곳이 腎臟穴이다. 그러므로 丹田氣海은 腎脈과 서로 通하며 腎의 根本이 된다. 또 사람이 生하는 처음 같으면 먼저 二腎이 生하고 胞가 臍部에 聯系되어 있으므로, 氣海丹田은 實로 氣가 생겨나는 根源이 되고 十二經의 根本이 된다. 或者가 이르기를: 寸口脈이 이미 平한데, 어찌 죽음을 疑心하겠는가? 대답하되: 이는 病이 劇하여 形肉이 이미 脫盡한 것에 대해 論한 것일 따름이다. 《內經》에 이르기를 "形肉이 이미 脫盡하였으면, 九候[47]가 비

47) 1) 《素問·三部九候論篇》에, "帝曰: 何謂三部, 岐伯曰: 有下部, 有中部, 有上部, 部各有三候. 三候者, 有天有地有人也. 必指而導之, 乃以爲眞. 上部天, 兩額之動脈; 上部地, 兩頰之動脈; 上部人, 耳前之動脈. 中部天, 手太陰也; 中部地, 手陽明也; 中部人, 手少陰也. 下部天, 足厥陰也; 下部地, 足少陰也; 下部人, 足太陰也. 故下部之天以候肝, 地以候腎, 人以候脾胃之氣"라 하여, 天地人으로써 上中下를 말하여 三才라 하고, 人體로써 上中下를

록 順調로운 者라도 죽는다."하였다. 무릇 사람의 病이 劇함을 보이는 者는, 形體가 파리하게 마르고 大肉이 이미 脫盡하니, 비록 六脈이 平和로워도, 오히려 마땅히 足陽明의 沖陽脈과 足少陰의 太谿脈을 診察하여 살펴야 한다. 二脈이 或 絶하였으면, 다시 臍下의 腎間動氣를 살필 것이다. 或 腎間動氣가 아직 絶하지 않았으면 아직 살 수 있으나, 腎間動氣가 만약 絶하였으면 비록 三部脈이 平和롭다 하여도 死함에는 疑心의 餘地가 없다. 醫者가 詳細히 살피지 아니할 것인가?

18) 或問:《內經》有曰: 陽明病甚, 則棄衣而走, 登高而歌, 或不食數日, 而逾垣上屋, 所上之處, 皆非素所能也. 素非所能, 因病而不食, 反能登非常之處, 豈有是哉?

曰:《難經》有云: 重陽者狂, 重陰者癲. 又曰: 癲多喜而狂多怒. 所謂重陽者, 三部陰陽脈皆洪盛而牢, 故病强健而有力, 故名曰狂. 謂重陰者, 三部陰陽脈皆沈伏而細, 故病疲倦而無力, 故名曰癲. 嘗見東陽樓氏一少年病狂. 一日天風大作, 忽飛上於邑東之塔巔, 且歌且哭, 其塔實無容步之階, 衆皆以爲怪. 予思龍乃純陽之物, 伏蟄于海內, 其身止有鱗甲, 且無羽翼, 遇陽氣升騰之日, 則借風雲之勢而能飛騰, 卽此義也, 盻足爲怪哉.

18) 或者가 묻기를:《內經》에 "陽明病이 甚하면, 옷을 벗고 달리며 높은 곳에 올라가 노래 부르거나, 或 數日동안 먹지 아니하였는데도 담을 넘고 지붕에 오르니, 그것이 모두 平素에는 能히 하던 바가 아니다."[48]하였다. 平素에 能히 하던 바가 아니고 病으로 먹지도 못하였는데, 도리어 平素에 오르지 않던 場所에 오르니,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대답하되:《難經》에 "重陽者는 狂이요, 重陰者는 癲이다."하였다. 또 이르기를 "癲多喜하고 狂多怒한다."하였다. 이른 바 重陽이라는 것은, 三部陰陽脈이 다 洪盛하면서 牢하므로, 病이 强健하면서 有力하여 狂이라 이름한 것이다. 重陰이라는 것은, 三部陰陽脈이 다 沈伏하면서 細한 것으로, 病이 疲倦하면서 無力하여 癲이라 이름한 것이다. 일찍이 東陽 樓氏의 한 少年이 狂病이었는데, 하루는 하늘에 바람이 크게 일어날 때, 갑자기 마을 동쪽의 탑꼭대기로 날아올라 노래 부르고 울고 한데, 그 塔은 실제로 걸어 오르는 階段이 없는지라, 모든 사람이 다 怪異하게 여겼다. 내가 생각하건대, 龍은 곧 純陽之物인데, 바다 속에 엎드려 숨어 있을 때는 그 몸에 단지 비늘만 있고 날개가 없으니, 陽氣가 升騰하는 날을 만나면 바람과 구름의 힘을 빌어 능히 날아오르게 되니, 곧 이러한 意味이다. 어찌 怪異하다 하겠는가.

19) 或問:《難經》五十三難曰: 經言七傳者死, 間臟者生. 然. 七傳者, 傳其所勝也. 間臟者, 傳其子也. 何以言之? 假令心病傳肺, 肺病傳肝, 肝病傳脾, 脾病傳腎, 腎病傳心, 一臟不再傷, 故言七傳者死也. 間臟者, 傳其所生也. 假令心傳脾, 脾傳肺, 肺傳腎, 腎傳肝, 肝傳心, 是子母相傳, 周而復始, 如環無端, 故言生也. 夫經文所謂七傳者, 據其數止六傳而已. 謂一臟不再傷, 按其數乃有四臟不再受傷. 且其間臟之理, 未聞有發

말하여 三部라 하고, 三部中에 그것이 각기 셋으로 나뉘므로 三候라 한다. 三部가 각기 셋이므로 三部九候라 한다.

2)《難經·十八難》에서는 三部를 寸關尺으로, 九候는 浮中沈이라 하였다.

48)《素問·陽明脈解篇》에 나옴.

明之旨, 釋者止是隨文解義而已, 請明辯以釋吾疑可乎?

曰: 夫此條, 言虛勞之證也. 其所謂七傳者, 心病上必脫腎病傳心一句. 其一臟不再傷, 當作三臟不再傷. 皆傳寫之誤耳. 蓋虛勞之證, 必始於腎經, 五臟從相剋而逆傳, 已盡又復傳於腎與心, 則水絶滅而火大旺, 故死而不復再傳彼之三臟矣. 其有從相生而順傳者, 蓋腎水欲傳心火, 却被肝木乘間而逆傳肝木, 然後傳心火, 次第由順行而及于彼之三臟, 而有生生不息之義, 故曰間臟者生. 學者其再思之.

19) 或者가 묻기를: 《難經》 五十三難에 이르기를, "《內經》에 七傳者는 死하고, 間臟者는 生한다 하였다. 그래, 七傳이라는 것은, 그가 勝하는 곳으로 傳함이다. 間臟이라는 것은, 그가 子에게로 傳함이다. 무엇을 그렇게 말한 것인가? 假令 心病이 肺로 傳해지고, 肺病이 肝으로 傳해지고, 肝病이 脾로 傳해지고, 脾病이 腎으로 傳해지고, 腎病이 心으로 傳해져서, 한 臟이 거듭 損傷될 수 없으므로, 七傳者는 死한다 한 것이다. 間臟이라는 것은, 그가 生한 곳으로 傳함이다. 假令 心이 脾로 傳하고, 脾가 肺로 傳하고, 肺가 腎으로 傳하고, 腎이 肝으로 傳하고, 肝이 心으로 傳하는 것이니, 이것은 子와 母가 서로 傳하여 두루 돌아 다시 始作하여, 마치 고리와 같이 끝이 없으므로 生한다 한 것이다"하였다. 대저 經文에 이른 바 七傳이란, 그 次數를 根據하면 단지 여섯 번 傳하였을 뿐이다. 한 臟이 거듭 傷하지 않는다 한 것은, 그 數를 살펴볼 때 四臟이 거듭 損傷을 받지 않았음이다. 또 그 間臟의 理致에 대해 아직 發明한 뜻을 듣지 못하였고, 注釋한 者들도 단지 文脈을 따라서 뜻을 푸는데 그칠 따름이니, 請컨대 明確하게 辯別하여 나의 疑問을 풀어 줄 수 있겠는가.

대답하되: 대저 이 條文은 虛勞의 證을 말하였다. 그 이른 바 七傳은 한 條文에서, 心病앞에 반드시 '腎病傳心'의 一句가 脫落한 것이다. 그 '一臟不再傷'이라 한 것도, 마땅히 '三臟不再傷'으로 해야 한다. 모두 傳寫의 錯誤이다. 대개 虛勞의 證은, 반드시 腎經에서 始作하여, 五臟의 相剋을 따라서 逆傳하는 것이고, 이미 다하면 또 다시 腎에서 心으로 傳하니, 곧 水는 絶滅한데 火는 大旺한 상태다. 그러므로 死하여 다시 거듭 다른 三臟에 傳하지 않는다. 그 相生을 따라서 順傳하는 것도 있으니, 대개 腎水는 心火에 傳하고자 하나, 도리어 肝木이 그 사이에 끼여듦을 입어, 마침내 肝木에 傳한 然後에 心火로 전해져, 차례로 順行하여 다른 三臟에까지 이르고 生生不息하는 뜻이 있으므로 "間臟者生"이라 말하였다. 배우는 者는 거듭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 或問: 醫家以水烹煮藥石, 本草著名頗多而未詳其用. 曰長流水, 曰急流水, 曰順流水, 曰逆流水, 曰千里水, 曰半天河水, 曰春雨水, 曰秋露水, 曰雪花水, 曰井花水, 曰新汲水, 曰無根水, 曰菊英水, 曰潦水, 曰甘澗水, 曰月窟水, 夫何一水之用而有許多之名, 必其能各有所長, 請逐一明言其故無吝.

曰: 謂長流水者, 卽千里水也, 但當取其流長而來遠耳, 不可泥于千里者, 以其性遠而通達, 歷科坎已多, 故取以煎煮手足四末之病, 道路遠之藥, 及通利大小便之用也. 曰急流水者, 湍上峻急之流水也, 以其性速急而達下, 故特取以煎熬通利二便及足脛以下之風藥也. 曰順流水者, 其性順而下潤, 故亦取以治下焦腰膝之證, 及通利二便之用也. 曰逆流水者, 漫流洄澓之水也, 以其性

逆而倒流, 故取以調和發吐痰飮之劑也. 曰反天河水者, 卽長桑君授扁鵲飮以上池之水, 及竹籬落頭管內之積水耳, 取其淸潔自天而降未受下流汚濁之氣, 故可以爲煉還丹, 調仙藥之用也. 曰春雨水者, 立春日空中以器盛接之水也, 其性始得春升生發之氣, 故可以煮中氣不足, 淸氣不升之藥也. ---曰秋露水者, 其性稟收斂肅殺之氣, 故可取以烹煎殺蟲之藥, 及調散殺瘡蟲疥癬諸蟲之劑也. 曰井花水者, 淸晨井中第一汲者, 其天一眞精之氣浮結于水面, 故可取以烹煎補陰之劑及修煉還丹之用. 今好淸之士, 每日取以烹春茗, 而謂淸利頭目最佳, 其性味同于雪水也. 曰菊英水者, 蜀中有長壽源, 其源多菊花, 而流水四季皆菊花香, 居人飮其水者, 壽皆二三百歲, 故陶靖節之流好植菊花, 日采其花英浸水烹茶, 期延壽也. 曰新汲水者,井中新汲水未入紅瓮者, 取其淸潔無泥雜之劑, 故用以烹煮藥劑也. 曰甘瀾水者, 器盛水, 以物揚躍, 使水珠沫液盈于水面, 其水與月窟水性同, 取其味甘溫而性柔, 故可以烹傷寒陰證等藥也. 曰潦水者, 又名無根水, 山谷中無人迹去處, 新土科凹中之水也, 取其性不動搖而有土氣內存, 故可以煎熬調脾進食以補益中氣之劑也. 夫本草雖有諸水之名而未詳言其用, 今故述之, 以爲後學之矜式云.

20) 或者가 묻기를: 醫家에는 물로써 藥石을 끓이는 데, 本草書에 이름이 나타나 있는 것은 많으나, 그 使用法에 대하여 자세히 說明한 것은 아직 있지 않다. 이름 불여 長流水·急流水·順流水·逆流水·千里水·半天河水·春雨水·秋露水·雪花水·井花水·新汲水·無根水·菊英水·潦水·甘瀾水·月窟水라 하였으되, 대저 어째 하나의 물을 使用함에,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반드시 각각 그 效能에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그러한 까닭에 대하여 인색함이 없이 일일이 밝혀 주시오.

대답하되: 長流水라 이른 것은 곧 千里水니, 다만 아망히 그 흐름이 길고 오는 곳이 먼 것을 取하였을 뿐으로, 千里라는 글자에 拘碍되어서는 안되며, 그 性質이 멀리까지 通達하여, 科(구덩이)와 坎(웅덩이)을 이미 많이 지나왔으므로, 이를 取하여 手足四末의 病등 길이 먼 곳에 이르는 藥과 大小便을 通利시키는 藥을 달이는데 使用한다. 急流水란 여울목에서 빠르게 흐르는 물이니, 그 性質은 빠르고 急하게 아래로 흘러내리므로, 특히 이를 取하여 二便을 通利시킬 때나 足脛以下 風證의 藥을 달일 때 使用한다. 順流水란 그 性質이 順하게 아래로 흘러가니, 또한 이를 取하여 下焦腰膝의 證을 다스릴 때나, 二便을 通利시키는 藥을 달이는데 使用한다. 逆流水란 친천히 휘돌아 흐르는 물을 말한다. 그 性質이 거슬러 흐르니, 이를 利用해서 痰飮을 吐하게 하는 藥을 타서 使用한다. 半天河水란 長桑君[49]이 扁鵲에게 주어서 마시게 한 上池의 물로, 곧 대나무로 만든 울타리의 윗 부분 구멍 안에 고인 물이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淸潔한 것만 取하고, 아직 아래에 흐르는 汚濁한 氣는 받지 않았으므로, 還丹을 만들거나 仙藥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 春雨水란 立春日에 空中에서 그릇으로 담아 모은 물로, 그 性質은 봄의 上升하고 生發하는 氣運을 처음으로 얻은 것이니 中氣가 不足하고 淸氣가 上升하지 못하는데 쓰는 藥을 달이는데 使用할 수 있다. ---- 秋露水란 그 性質이 收斂하고 肅殺하는 氣運을 稟受하고 있으므로, 귀신이 내린 災殃을 없

49) 長桑君: 戰國時代의 醫家. 名醫 扁鵲의 스승이며, 자기가 一生동안 收集해서 얻은 醫方과 그의 醫療經驗을 모두 扁鵲에게 傳授하였음.

애는 藥을 달이거나, 癩蟲 疥癬등의 모든 蟲을 죽이는 方劑들을 개어 붙이는데 使用할 수 있다. 井花水란 맑은 새벽 우물에서 처음 길은 것으로, 天一眞精의 氣運이 水面에 떠서 모인 것이므로 補陰하는 藥을 끓이거나 環丹을 調製하는데 쓰일 만하다. 요즘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 이 물을 取하여 春茗(茶의 一種)을 끓이는데, 머리와 눈을 맑게 하는데 가장 좋다고 하였으니, 그 性味는 눈이 녹은 물과 同一하다. 菊英水란 蜀땅에 마시면 長壽하는 水源이 있는데, 그 水源에 菊花가 많아서 흐르는 물에 四季節로 菊花香을 담고 있다. 이곳에 살면서 그 물을 마시는 者는 모두 壽命이 二三百歲가 되었으므로, 陶靖節같은 부류들은 菊花심기를 좋아해서, 날마다 菊花의 꽃잎을 따서 물에 담궈 두었다가, 茶를 끓여 마셔 延壽를 期約하였다. 新汲水란 우물 속에 새로 길은 물로 아직 옹기에 담지 않은 것으로, 淸潔하고 混雜하지 않은 性分만 取한 것이니 藥劑를 달이는데 使用한다. 甘瀾水란 그릇으로 담은 물로서, 물건으로 물방울 거품이 수면에 가득 담기게 한 것이니, 그 水가 月窟水와 性質이 같으며, 그 味는 甘溫하고 性은 柔弱한 것을 取하였으므로, 傷寒陰證등에 쓰는 藥材를 달이는데 使用한다. 潦水란 일명 無根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거처간 흔적이 없는 산골짜기에 새로이 괴인 흙구덩이 속에 고인 물이니, 그 性質이 動搖하지 않고 土氣가 안에 남아 있음을 取한 것이니, 脾를 調節하고 飮食을 消化시키는 補中益氣劑를 달이는데 使用한다. 무릇 本草書에 비록 모든 물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지만, 그 쓰임에 대한 언급은 詳細하지 않다. 지금 그러한 까닭으로 이것을 써서 後學들의 삼가 본보기가 되고자 하여 이른 것이다.

21) 或問: 丹溪治腫脹之證, 專主乎土敗木賊, 濕熱相乘爲病. 東垣又多主乎寒, 言病機諸腹脹大皆屬于熱之語, 乃言傷寒陽明經大實大滿之證也. 于云: 熱脹少而寒脹多. 二說不同, 其孰非而孰是歟?

曰: 東垣, 北方人也, 其地土高燥, 濕熱少而寒氣多, 故有是論. 我丹溪先生, 生長于東南之地, 故病此者盡因脾虛受濕, 肝木大旺, 古言然也. 或曰: 二說不同之義, 旣得聞命矣. 而丹溪治腫之大法曰: 必須養肺以制木, 使脾無賊邪之慮, 滋腎以制火, 使肺得淸化之源, 斷妄想以保母氣, 却鹽味以防助邪, 以大劑人蔘·白朮補脾, 使脾氣得實, 自能健運升降. 此千載不易之論萬擧萬全之妙法也, 活人多矣. 嘗用此法以治黃腫之證反加悶亂, 增劇不安. 改用香附·蒼朮·厚朴之劑, 反获全功. 竊思水腫與黃腫, 皆是濕熱傷脾所致, 何治法之不同歟? 曰: 夫水腫之證, 蓋因脾土虛甚而肝木太過, 故水濕妄行其中, 雖有淸痰留飮, 實無鬱積膠固, 故以蔘朮爲君, 而兼以利水淸金祛濕熱之藥, 此標本兼該之治, 故有十全之功也. 彼黃腫者, 或酒疸, 或穀疸, 沈積頑痰, 膠固鬱結于其中故或爲痞塞, 或爲積聚, 是以積于中而形于外, 蓋因土氣外形而黃也. 故宜以厚朴·蒼朮·香附·陳皮之類, 以平其土氣之敦阜, 用蠲飮·青皮之類, 以平其木氣之有餘, 可以鮑藥助脾淸積. 退黃之後, 仍用蔘朮等補脾之劑, 以收十全之功, 此標而本之之治也. 若二證之藥, 易而治之, 禍不旋踵, 學者不可不知.

21) 或者가 묻기를: 丹溪는 腫脹의 證을 다스릴 때, 전적으로 土가 木의 賊邪에 의해 敗한 데 主를 두고, 濕熱이 相乘하여 病이 된다 하였다. 東垣은 또한 대개 寒에 主를 두었는데, 病機를 말할 때 諸腹脹大는 모두 熱에 屬한다고 하였으니, 곧 傷寒陽明經의 大滿大實한 證을 말한

것이다.또 이르기를 "熱腰은 적고 寒腰은 많다." 하였다. 두 가지 說이 같지 않으니,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가?

대답하되: 東垣은 北方사람이다. 그 地土는 높고 乾燥하여, 濕熱은 적고 寒氣는 많으므로, 이러한 理論을 세운 것이다. 丹溪先生은 東南地方에서 성장하였으므로, 이런 病들은 모두 脾虛受濕으로 因하여, 肝木이 매우 旺盛해진 것이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或者가 이르기를: 두 說의 같지 아니한 뜻은 이미 들어서 알겠는데, 丹溪는 治腫의 大法에서 이르기를 "반드시 肺를 길러 木을 抑制하여, 脾로 하여금 賊邪의 憂慮를 없게 할 것이며, 腎을 滋하여 火를 抑制하여, 肺로 하여금 淸化의 源을 얻게 하고, 妄想을 끊어 母氣를 保護하고, 鹽味를 물리쳐서 邪氣의 助長을 막고, 人蔘白朮을 大劑로하여 脾를 補하여, 脾氣로 하여금 實하게 하면, 스스로 능히 健運升降할 수 있을 것이다."하였다. 이는 千年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定論으로, 萬擧萬全의 妙法이어서, 治病하여 活人함이 많았다. 일찍이 이 法을 써서 黃腫의 證을 다스렸는데, 오히려 悶亂이 생기고 不安증상이 극심해 진 적이 있었는데,香附子蒼朮厚朴같은 藥劑를 바꾸어 사용하니, 도리어 그 功이 完全해졌다. 깊이 생각컨데, 水腫과 黃腫은 모두 濕熱이 脾를 傷해서 온 것인데, 어찌해서 治法이 같지 아니한가? 대답하되: 무릇 水腫의 證이란, 대개 脾土가 매우 虛함으로 因하여, 肝木이 太過해져 水濕이 그 사이를 妄行하여 된 것인데, 비록 淸痰留飮은 있더라도 실제로 鬱積하여 膠固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人蔘白朮로써 君藥을 삼고, 利水淸金祛濕熱하는 藥을 겸한 것이니, 이는 標本을 모두 兼한 治法이다. 그러므로 完全한 功이 있게 된다. 저 黃腫이란 혹은 酒疸이거나, 혹은 穀疸로, 깊이 울적한 頑固한 痰이 사람 몸 안에서 膠固鬱結하여진 것이므로, 혹은 痃癖이 되고 혹은 積聚가 된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 몸 안에서 울적하여 밖으로 드러난 것이니, 대개 土氣로 因하여 밖으로 黃色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厚朴蒼朮香附陳皮같은 類를 사용하여, 土氣가 太過한 敦阜를 均平케하고, 鐵粉靑皮같은 類를 사용하여 木氣의 有餘을 均平하게 하고, 麴蘗을 加味하여 脾를 도와, 積을 消退시켜야 한다. 黃疸을 물리친 후, 이어서 人蔘白朮등의 補脾劑를 使用하여야, 十全의 功效를 거둘 수 있으니, 이는 標를 먼저 치료하고, 本을 다스리는 治法이다. 만약 두 가지 證의 藥을 바꾸어서 治療하면, 禍가 잇달아 따라옴을 피할 수 없으니, 배우는 者는 알지 않으면 안된다.

22) 或問: 饑甚方食, 而食反不運化, 多爲嘔吐呑酸等證, 何也?.

曰: 饑而卽食, 渴而卽飮, 此造化自然之理也. 饑不得食, 胃氣已損, 脾氣已傷, 而中氣大不足矣. 遇食大啖, 過飽益甚, 是以大傷胃氣, 輕則呑酸惡心, 重則感寒發熱, 而爲內傷等證者多矣. 又或負重遠行, 辛苦饑甚, 遇食太過, 則四肢倦怠矣. 若又强力復行適遇風雨外襲, 遂成內傷挾外感之證, 或爲腫脹危篤之疾. 養生君子, 切宜防微杜漸戒之戒之

22) 或者가 묻기를: 굶주림이 심할 때 밥을 먹으면, 먹은 것이 도리어 運化되지못하고, 대부분 嘔吐 呑酸등의 證이 되는데, 무엇 때문인가?

대답하되: 배고프면 곧 먹고 목마르면 곧 마시는 것은, 自然스러운 理致이다. 배고픈데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면, 胃氣가 이미 損傷되고,

脾氣도 損傷되어, 中氣가 크게 不足해진다. 飮食을 만나 많이 먹어, 過飽가 더욱 심해지면, 胃氣가 크게 損傷된 것이니, 輕하면 呑酸惡心하고, 重하면 惡寒發熱하여, 內傷등의 證이 되는 것이 많다. 또한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먼길을 가거나, 몸이 고달픈데다 굶주림까지 심하여, 飮食을 만나 갑자기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四肢가 倦怠하게 된다. 혹은 또 힘든 일을 거듭했는데, 마침 비바람의 外襲을 만나, 마침내 內傷에 外感까지 겹친 證이 되고, 혹은 腫脹같은 危篤한 疾病이 되기도 한다. 養生을 잘하는 君子는 절실히 病이 일어날 조짐이 있을 때 막아야 마땅할 것이니, 警戒하고 또 警戒할 것이다.

23) 或問: 針法有補瀉迎隨之理, 故可以平虛實之證. 其灸法不問虛實寒熱, 悉令灸之其亦有補瀉之功乎?

曰: 虛者灸之, 使火氣以助元陽也; 實者灸之, 使實邪隨火氣而發散也; 寒者灸之,使其氣之復溫也;熱者灸之, 引鬱熱之氣外發, 火就燥之義也. 其針刺雖有補瀉之法,予恐但有瀉而無補焉. 經謂瀉者迎而奪之, 以針迎其經脈之來氣而出之, 故可以瀉實矣;謂補者隨而濟之, 以針隨其經脈之去氣而留之, 未必能補虛也. 不然, 內經何以曰, 無刺熇熇之熱, 無刺渾渾之脈, 無刺漉漉之汗; 無刺大勞人, 無刺大饑人, 無刺大渴人, 無刺新飽人, 無刺大驚人. 又曰, 形氣不足, 病氣不足, 此陰陽皆不足也, 不可刺; 刺之, 重竭其氣, 老者絶滅, 壯者不復矣. 若此等語, 皆有瀉無補之謂也, 學者不可不知.

23) 或者가 묻기를: 針法에는 迎隨補瀉의 理致가 있어서, 진실로 虛實의 證을 和平하게 할 수 있는데, 그 灸法은 寒熱虛實을 不問하고 모두 灸하니, 그것 역시 補瀉의 功이 있는가?

대답하되: 虛한데 灸하는 것은, 火氣로 하여금 元陽을 돕게 한 것이다; 實한데 灸하는 것은, 實邪로 하여금 火氣를 따라 發散케 한 것이다; 寒한데 灸하는 것은, 그 氣가 다시 따뜻해지도록 한 것이다; 熱한데 灸하는 것은 鬱熱한 氣를 끌어내어 밖으로 發散하니 火就燥의 뜻이다. 그 針刺에 비록 補瀉의 法이 있지만, 내가 보건대는 아마 단지 瀉만 있고 補는 없는 것 같다. 《內經》에 "瀉者迎而奪之"라 하였으니, 針으로 經脈에 오는 氣를 맞이하여 놓아 邪氣를 排出시키므로, 가히 實을 瀉한다; "補者隨而濟之"라 하였으니, 針으로 經脈에 가는 氣를 따라서 놓아 正氣를 머물게 하나, 반드시 虛를 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內經》에서 어찌 熇熇之熱과 渾渾之脈과 漉漉之汗에 刺하지 말라 하였겠으며[50]; 大勞人·大饑人·大渴人·新飽人·大驚人에 모두 刺하지 말라 하였겠는가[51]. 또 이르기를 "形氣不足, 病氣不足은, 陰陽이 다 不足한 것이니, 刺할 수 없다. 만약 刺하면 거듭 그 氣를 衰竭하게 하여, 老者는 絶滅하고 壯者라도 恢復하지 못하게 된다."[52]하였다. 이와 같은 것들의 말이 모두 瀉는 있고 補는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 배우는 이들은 모르면 안된다.

24) 或問: 虛損之疾, 世俗例用局方十全大補湯以補之, 其方實爲諸虛之關鍵也, 用蓡·芪·苓·朮·甘草以補氣虛, 用芎·歸·芍藥·地黃·肉桂以補血少, 吾子將何以議之乎?

曰: 此藥乃氣血兩虛之劑, 或血虛而氣尚實, 或氣虛而血尚充者, 其可一例施乎? 《內經》曰:

50) 《靈樞·逆順 第五十五》에 나옴.
51) 《素問·刺禁論篇 第五十二》에 나옴.
52) 《靈樞·根結 第五》에 나옴.

毒藥以治其病. 蓋藥性各有能毒, 然中病者, 借其能以获安; 不中病者, 徒惹其毒以增病耳. 如心脾二經虛損, 當以茯苓補之, 虛而無汗及小水短少者, 服之有功; 虛而小便數者, 多服則令人目盲; 虛而多汗者, 久服損眞氣, 夭人天年, 以其味淡而利竅也. 又如肺氣弱及元陽虛者, 當以黃芪補之, 然肥白人及氣虛而多汗者, 服之有功; 若蒼黑人腎氣有餘而未甚虛者, 服之必滿悶不安, 以其性塞而閉氣也. 甘草爲健脾補中及瀉火除煩之良劑, 然嘔吐與中滿及嗜酒之人, 多服必鼓腸不行而嘔滿增劇, 以其氣味之甘緩也. 川芎爲補血行血, 清利頭目之聖藥, 然骨蒸多汗及氣弱人, 久服則眞氣走散而陰愈虛甚, 以其氣味之辛散也. 生地黃能生血脈, 然胃氣弱者, 服之恐損胃不食. 熟地黃補血養血, 然痰火盛者, 恐泥膈不行. 人蔘爲調肺健脾之藥, 若元氣虛損者, 不可缺也; 然久嗽勞嗽咯血僞火在肺分者, 服之必加嗽增喘不寧, 以其氣味之甘溫滯氣然也. 白芍藥爲養血益血之劑, 若血虛腹痛者, 豈可缺歟; 然形瘦氣弱, 稟賦素虛寒者, 服之恐伐營生之氣, 以其氣味之酸寒也. 藥性能毒, 未易悉擧, 學者宜究本草之詳, 不可妄施以殺人也.

24) 或者가 묻기를: 虛損의 疾病을 世俗에서는, 대체적으로 《和劑局方》의 十全大補湯을 써서 補하는데, 그 方은 실로 모든 虛證의 關鍵이 된다. 人蔘·黃芪·茯苓·白朮·甘草를 使用하여 氣虛를 補하고, 川芎·當歸·芍藥·地黃·肉桂를 使用하여 血少한 것을 補하니, 자네는 장차 무엇으로써 이를 議論하겠는가?

대답하되: 이 藥은 곧 氣血이 모두 虛한 것을 다스리는 藥劑이다. 혹 血은 虛하나 氣는 아직 實하고, 혹 氣는 虛한데 血은 아직 實한 者에, 어찌 한가지 類例로써만 治療하겠는가? 《內經》에 이르기를 "毒藥[53]으로 病을 다스린다."하였다. 대개 藥性에는 각각 能한 面과 毒性的인 面이 있다. 그러나 藥이 病에 的中되면 그 能함을 빌어 平安을 얻을 수 있고; 病에 的中되지 않으면 헛되이 그 毒性을 일으켜서 病을 增加시키게 할뿐이다. 가령 心脾二經의 虛損은 마땅히 茯苓으로 補하는데, 虛하면서 無汗하거나 小便短少한 者가 服用하면 功이 있다; 虛하면서 小便數한 者가 많이 服用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目盲이 되게 할 수도 있다; 虛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者가 오랫동안 服用하면, 眞氣를 傷하여 夭折하게 되니, 이는 그 味가 淡하여서 九竅를 잘 通利시키기 때문이다. 또 가령 肺氣가 弱하고 元陽이 虛한 者는 마땅히 黃芪로 補하여야 한다. 그러나 肥白한 사람과 氣虛하면서 땀이 많은 者가 服用하면 功이 있지만; 만약 蒼黑한 사람이 腎氣가 有餘하고 아직 심하게 虛하지 않는 者가 服用하면 반드시 속이 滿悶不安하게 되니, 이는 그 性質이 閉塞하므로 氣를 막기 때문이다. 甘草는 健脾補中하고 瀉火除煩하는 良劑이지만, 嘔吐와 中滿症이 있거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服用하면, 반드시 腸膜을 萎縮시켜 잘 運行되지못하여, 嘔吐·中滿이 더욱 심해지니, 이는 그 氣味가 甘緩하기 때문이다. 川芎은 補血行血하고 頭目을 淸利시키는 聖藥이지만, 骨蒸多汗하며 氣가 弱한 사람이 오래 服用하면, 眞氣가 달아나 흩어져 陰은 더욱 虛하게 되니, 이는 그 氣味가 辛散하기 때문이다. 生地黃은 능히 血脈을 生하지만, 胃氣가 弱한 사람이 服用하면, 胃氣를 損傷하여 먹지 못하게 할까 두렵다. 熟地黃은 補血養血하지만, 痰火가

53) 《素問·異法方宜論篇》과 《素問·移情變氣論篇》에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毒藥'이란 藥性을 가진 物質을 廣範圍하게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盛한 사람은 胸膈이 막혀 氣가 行하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 人蔘은 潤肺健脾하는 藥으로, 만약 元氣가 虛損한 者라면 빠뜨릴 수 없다; 그러나 久嗽·勞嗽·咯血·鬱火가 肺分에 있는 者가, 그것을 服用하면 반드시 嗽가 더 많아지고 喘息이 더욱 심해져서 平安하지 못하게 되니, 이는 그 氣味가 甘溫하여 氣를 잘 막히게 하기 때문이다. 白芍藥은 養血益血하는 藥으로, 만약 血虛하여 腹痛이 있는 者라면 어찌 빠뜨리겠는가; 그러나 몸이 마르고 氣가 弱하며 타고난 體質이 平素에 虛寒한 사람이 服用하면 發生之氣를 꺾을까 두려우니, 이는 그 氣味가 酸寒하기 때문이다. 藥性의 能한 面과 毒性的인 側面을 모두 列擧하기가 쉽지 않으니, 배우는 者는 마땅히 本草를 상세히 硏究하여 妄濫된 施術로 사람을 죽게 해서는 안된다.

25) 或問: 《脈經》 謂一息四至以上爲無病常人之脈, 今見無病之人, 或有一息五至有奇者, 有一息三至無餘者, 何如是之異乎?

曰: 生成之脈, 豈無緩急遲數之殊歟. 經曰: 性急脈亦急, 性緩脈亦緩. 大抵脈緩而遲者多壽, 脈急而數者多夭. 經曰: 根于中者命曰神機, 神去則機息. 蓋氣血者, 人身之神也. 脈急數者, 氣血易鼓而神機易息, 故多夭; 脈遲緩者, 氣血和平而神機難損, 故多壽.先哲論江海之潮, 卽天地之噓吸, 晝夜止二升二降而已; 人之呼吸, 晝夜一萬三千五百息. 故天地之壽, 悠久而無疆; 人之壽延者, 壽亦不滿百也. 管見如斯, 未知是否?

25) 或者가 묻기를: 《脈經》에는 한번 숨쉴 때 脈이 네번이상 뛰면, 이는 病이 없는 보통사람의 脈이라 하였는데, 지금 病이 없는 사람을 볼 때, 或 한번 숨쉴 때 脈이 다섯번 뛰고 더 많이 여분이 있는 자가 있고, 한번 숨쉴 때 세번뛰고, 여분이 없는 자도 있으니, 어째서 이와 같이 다른가?

대답하되: 生成하는 脈에 어찌 緩急遲數의 다름이 없겠는가? 《脈經》에 이르기를 "性情이 急하면 脈도 急하고 性情이 緩하면 脈도 緩하다."하였다. 대저 脈이 緩慢하면서 느리게 뛰는 사람은 오래 사는 경우가 많고, 脈이 急하고 빨리 뛰는 사람은 일찍 죽는 경우가 많다. 《內經》에 이르기를 "根于中者를 이름하여 神機라 하였고, 神이 떠나면 機도 소멸하게 된다."하였다. 대개 氣血이란 人身의 神이다. 脈이 急하고 빠르면 氣血이 쉽게 虧損되고 神機도 쉽게 사라져 소멸된다. 그러므로 夭折함이 많다. 脈이 느리고 緩慢하면 氣血이 和平하고 神機가 損傷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長壽한다. 先哲이 강과 바다의 潮水를 論함에, 天地의 呼吸과 서로 합하여 晝夜로 단지 二升二降할 뿐이라 하였는데, 사람의 呼吸은 晝夜로 一萬三千五百息한다. 그러므로 天地의 壽命은 悠久하여 無疆하게 사람은 壽命이 긴 者도 그 歲數가 또한 百歲를 넘지 못한다. 나의 所見이 이와 같은데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알지 못하겠다.

26) 或問: 有人寸·關·尺三部之脈, 按之絶無形迹, 而移于手陽明經陽谿與合谷之地動者,何歟?

曰: 手太陰經肺與手陽明大腸, 一臟一腑, 相爲表裏, 其列缺穴乃二經之絡脈, 故脈從絡而出于陽明之經, 此爲妻乘夫位, 地天交泰, 生成無病之脈耳. 學者可不曉歟!

26)或者가 묻기를: 어떤 사람은 寸關尺의 三部脈을 누르면 끊어져 흔적도없다가 手陽明經

의 陽谿와 合谷부위로 이동하여 잡히는 것은 어째서 인가?

대답하되: 手太陰肺經과 手陽明大腸經은 一臟一腑로 서로 表裏가 되고, 手太陰經의 列缺穴은 곧 두 經의 絡脈이므로 脈이 絡을 따라 陽明經으로 나온 것이다. 이는 妻가 夫의 位置를 올라 地天이 相交하는 泰卦와 같은 형상으로 生成無病한 脈일 뿐이니 배우는 者가 어찌 깨닫지 않으면 되겠는가?

27) 或問: 婦人産後之證, 丹溪謂當以大補氣血爲主治, 雖有雜證, 以末治之. 又曰: 産後中風, 切不可作風治而用風藥. 然則産後不問諸證, 悉宜大補氣血乎?

曰: 詳"主末"二字, 其義自明. 若夫氣血大虛, 諸證雜揉, 但虛而無他證者, 合宜大補氣血自愈. 或因虛而感冒風寒者, 補氣血藥帶驅風之劑. 或因脾虛而食傷太陰者, 補氣血藥加消導之劑. 或因瘀血惡露未盡而惡寒發熱者, 必先逐去瘀血惡露, 然後大補. 雖曰: 有本而標之者, 有標而本之者. 又曰: 急則治其標, 緩則治其本. 丹溪"主末"二字卽標本之意耳. 臨證之際, 其于望聞問切之間, 豈可不辨乎. 若一例補之以補, 豈非刻舟求劍之術也.

27) 或者가 묻기를: 婦人産後의 證에 丹溪는 "마땅히 氣血을 大補하는 것을 主로 하여 治療하여야 하며 비록 雜症이 있더라도 末로 다스려야 한다."하였다. 또 이르기를 "産後中風은 風을 治療한다고 보아 風藥을 使用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하였다. 그러면 産後에는 모든 證狀을 不問하고 모두 大補氣血하는 것이 마땅한가?

대답하되: "主末"이란 두 글자를 살펴보면 그 뜻이 自明해진다. 만약 氣血이 大虛하고 産後에 혼히 있는 여러 가지 證이 섞여 있어도 단지 虛하기만 하고 다른 특별한 證狀이 없다면 氣血大補를 適合하게 하면 스스로 낫는다. 或 虛로 因하여 風寒에 感하였다면 氣血을 補하는 藥에 風을 몰아내는 藥을 섞어 쓸 것이요, 或 脾虛로 因하여 飮食으로 太陰濕土를 傷하였다면 氣血을 補하는 藥에 消導하는 藥을 加해야 할 것이요, 或 瘀血과 惡露가 未盡한데 惡寒 發熱이 있으면 반드시 瘀血 惡露를 먼저 제거한 후에 大補한다. 《內經》에 이르기를 "本을 먼저한 후 標를 다스리는 것이 있고, 標를 먼저한 후 本을 다스리는 것이 있다."하였고, 또 이르기를 "急하면 標를 다스리고 緩하면 本을 다스린다."하였다. 丹溪가 말한 "主末" 두 글자는 標本의 뜻일 따름이다. 臨證할 때에 本과 標를 望聞問切하는 사이에 어찌 辨分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한 가지 類例로 補法만 施術한다면 어찌 刻舟求劍[54]하는 어리석은 術이 아니겠는가?

28) 或問: 姙娠之婦, 有按月行經而胎自長者, 有三·五個月間其血大下而胎不墮者, 或及期而分娩, 或逾月而始生, 其理何歟?

曰: 其按月行經而胎自長者, 名曰盛胎, 蓋其婦血氣充盛, 養胎之外, 其血猶有餘故也. 其有數月之胎而血大下, 謂之漏胎, 蓋因事觸動任脈, 故血下而未傷于子宮故也. 雖然, 孕中失血, 胎雖不墮, 其氣血亦虧, 多致逾月不産, 予會見有十二·三月或十七·八月或二十四·五個月生者往往有之, 俱是氣血不足, 胚胎難故耳. 凡十月之後未産者, 當服大補氣血之藥以培養之, 庶分娩之無憂也, 學者不可不知.

54) 미련해서 옛 사물에 拘泥되어 時勢에 어둡고 融通性이 없음을 譬喩한 故事.

28) 或者가 묻기를: 姙娠婦가 달에 맞춰 月經이 있었는데도 胎兒가 스스로 자라는것이 있고, 姙娠 三·五個月사이에 크게 下血하였는데도 胎兒가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或은 期日에 맞춰 分娩하기도 하고, 혹은 期日을 넘겨서 出産을 하니 그 理致는 무엇인가?

대답하되: 때 맞춰 月經이 있었는데도 胎兒가 자라는 것은 이름하여 盛胎라 하니, 대개 그 婦人의 血氣가 旺盛하여 胎兒를 기르는 것 이외에도 血이 오히려 남는 까닭이다. 수 個月된 胎兒가 있으면서 크게 下血하는 것을 漏胎라고 말하는데, 대개는 어떠한 일로 因하여 任脈이 動하게 되어서 下血하지만 아직 子宮은 傷하지 않은 까닭이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姙娠中 失血하면 胎兒는 떨어지지 않더라도 氣血은 또한 虧損될 것이니 대부분이 産月이 지나도 出産하지 못하게 된다. 내가 일찍이 12-3個月 或은 17-8個月 或은 24-5個月이 되어 出産하는 경우를 往往 보았는데, 모두 氣血이 不足하여 胚胎가 成長하기 어려운 까닭이었다. 무릇 열 달이 지난 후에도 낳지 못하는 사람은 마땅히 氣血을 大補하는 藥을 服用하여 氣血을 培養하여 分娩함에 憂患이 없을 것을 바랄 것이니 배우는 者는 몰라서는 안될 것이다.

29) 或問: 丹溪所謂難産之婦, 皆是八·九個月內不能護, 以致氣血虛故也, 請問其旨何歟?

曰: 蓋婦人有娠, 大不宜與丈夫同寢. 今人未諳此理, 至于八·九個月內猶有房事. 夫情欲一動, 氣血隨耗. 蓋胎孕全仗氣血培養, 氣血虧虧則胎息羸弱. 日月旣足, 子如夢覺, 卽欲分娩, 遂能拆胞求路而出, 胞破之後, 其胞中之漿水沛然下流, 胎息强健者, 卽翻身隨漿而下, 此爲易産者也. 胎息倦弱者, 猶如夢寐未醒, 轉頭遲滿, 不能隨漿而出,胞漿旣乾, 則污血閉塞其生路, 是以子無所向, 遂致橫生逆産. 臨産之際, 若見漿下而未分娩者, 便當驚恐, 急服催生之藥, 如蜀葵子之類, 逐去惡血, 道路通達, 庶有速産之功.醫者不可不知此意.

29) 或者가 묻기를: 丹溪가 이른 바 難産하는 婦人이란 모두 임신 8-9개월 내에 삼가지 않아서 氣血이 虛해진 까닭의 所致라 하였는데 그 旨意는 무엇인가?

대답하되: 대개 婦人이 姙娠하면 丈夫와 더불어 同寢함은 크게 마땅하지 않다. 지금 사람들은 이런 理致를 알지 못하고 8-9개월 내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房事하는 일이 있다. 무릇 情欲이 한번 動하면 氣血이 따라서 消耗된다. 대개 姙娠中에는 오로지 氣血의 培養에 의지하는데 氣血이 이미 虧損되면 胎息은 瘦脊하고 虛弱해질 것이다. 날짜가 차면 子息은 마침 꿈속에서 깨어나듯이 곧 分娩하고자 하여 마침내 胞中을 갈라 길을 구하여 나온다. 胞가 갈라진 후에는 胞중의 羊水가 흠뻑 적시며 아래로 흘러 내려온다. 胎息이 强健하면 즉시 몸을 뒤집고 羊水를 따라 내려오니 이것이 易産이 된다. 胎息이 困弱하면 마치 꿈속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이 머리를 돌리는 것이 늦고 느리어 쉽게 羊水를 따라 나오지 못하고, 胞中의 羊水가 이미 말라서 더러운 피가 生路를 막기 때문에 子息이 向할 곳이 없어져 드디어 옆으로 나와 逆産에 이른다. 臨産할 때에 만약 羊水가 흐르는 것이 보이는데도 分娩이 안된 경우는 곧 놀라고 당황하게 되는데, 급히 催生藥을 服用시키고 예를 들면 촉葵子등 類로 惡血을 除去하여 産道를 열어 주면 거의 速産시키는 功이 있을 것이다. 醫者는 이 뜻을 몰라서는 안된다.

30) 或問: (文略).

31) 或問: 中風之候, 皆半身不遂, 其有遷延歲月不死者, 何也?

曰: 如木之根本未甚枯, 而一邊之枝幹先萎耳. 經曰: 根于中者命曰神機, 神去則機息(言動物也). 根于外者命曰氣立, 氣止則化絶(言植物也). 夫神機未息, 亦猶氣化之未絶耳, 故半身雖不遂用, 然亦未至于機息而死也. 古所謂癱瘓者, 亦有深意存焉. 言癱者坦也, 筋脈弛縱坦然而不擧也. 瘓者渙也, 血氣散漫渙然而不用也. 或曰: 其爲治之法, 與諸痺同乎? 曰: 不同也. 經謂風·寒·濕三氣合而成痺, 故曰痛痺(筋骨攣痛), 曰著痺(著而不行), 曰行痺(走痛不定), 曰周痺(周身疼痛), 皆邪氣有餘之候也. 其癱瘓者, 或血虛, 或氣虛, 皆正氣不足之證. 其治法故不同也. 惟痿痺屬血虛, 麻痺屬氣虛, 與癱瘓治法大同而小異焉. 學者宜加詳察, 毋蹈乎實實虛虛之復轍云.

31) 或者가 묻기를: 中風의 症候로 모든 半身不遂들이 해와 달을 넘기면서도 죽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답하되: 나무의 뿌리가 아직 심하게 마르지 않았는데 잔가지와 줄기 는 먼저 마른다는 것과 같다. 《內經》에서 이르기를 "根于中者를 神機라 하고, 神이 가면 機도 소멸된다(動物의 生命 管爲法을 말한 것임). 根中外者를 氣立이라 하며, 氣가 그치면 生命體의 變化도 끊어진다(植物의 生命 管爲法을 말한 것임)."[55]하였다. 무릇 神機가 사라지지 않으면 氣化 역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半身을 비록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또한 機가 끊어져서 죽는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옛날에 이른 바 癱瘓이라 한 것은 깊은 뜻이 있다. 癱이란 平坦하다는 뜻으로 筋脈이 弛緩하여 들 수 없다는 말이다. 瘓이란 흩어진다는 뜻이니 血氣가 散漫離散하여 쓸 수 없는 것이다. 或者가 이르기를: 그 治法은 모든 痺와 같은가? 대답하되: 같지 않다. 《內經》에 "風·寒·濕 三氣가 合하여 痺가 되므로 痛痺(筋骨을 잡아당기는 痛症)·著痺(달라붙어서 行하지 않음)·行痺(痛症이 돌아다니면서 一定치 않음)·周痺(온몸에 疼痛이 나타남)라 하니 모두 邪氣가 有餘한 證候이다."[56]라 하였다. 癱瘓이란 或은 血虛, 或은 氣虛이니 모두 正氣가 不足한 證이다. 그 治法이 그러므로 같지 않다. 오직 痿痺가 血虛에 屬하고, 麻痺가 氣虛에 屬해 癱瘓의 治法과 더불어 大同小異하다. 배우는 者는 마땅히 상세히 살펴 實을 더 實하게 하고, 虛를 더 虛하게 하는 잘못을 다시 밟지 말 것이다.

32) 或問: 雀目之證, 過晩則目不見物, 至晩復明, 此何病使然?

曰: 是則肝虛之候也. 或曰: 肝常處其有餘, 然亦有不足者乎? 曰: 邪氣盛則實, 正氣奪則虛. 其人素稟血虛, 適遇寅申二年, 少陽相火司天, 厥陰風木在泉, 火炎于上, 木鬱于下. 夫胞絡相火既盛, 則心血沸滃而乾涸. 經曰: 天明則日月不明, 邪害空竅. 蓋心出血, 肝納血, 心血既涸, 則肝無攸受. 經又曰: 目得血而能視, 蓋肝開竅于目, 肝既無血, 則目昏而不明矣. 或曰: 目昏不明, 既得閉命矣, 其晩暗而晩復明者何也? 曰: 目生于亥, 旺于卯而絶于申, 至于酉戌之時, 木氣衰甚, 過亥始生, 至日出于卯之地, 木氣稍盛而目復明矣. 雖然, 終不能了然如故. 或曰: 雀目之患, 終變爲黃腹而死, 何也? 曰: 目絶于申, 乃水土長生之地,

55) 《素問·五常政大論篇》에 나옴.

56) 《素問·痺論篇》에나옴.

木氣萎和, 土氣敦阜, 經謂氣有餘則制己所勝而侮所不勝, 此土氣有餘而侮所不勝之本也. 或曰: 治法何如? 曰: 先宜地黃 芎 歸等藥, 以補益其腎肝之不足: 次用厚朴 蒼朮 陳皮之類, 平其土氣之有餘. 此乃略示端倪耳, 醫者自宜臨證斟酌而處治之, 愼不可按圖而索驥也.

32) 或者가 묻기를: 雀目의 證狀이란 저녁이 되면 事物을 보지 못하다가 새벽에 이르러서야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어떠한 病이기에 그렇게 만드는가?

대답하되: 이것은 곧 肝이 虛弱한 徵候이다. 或者가 이르기를: 肝은 항상 그 有餘함을 근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찌 不足함이 있겠는가? 대답하되: 邪氣가 旺盛한 것을 實이라 하고, 精氣가 奪한 것을 虛라고 하니, 그 사람이 평소 血虛한데 마침 寅申의 두 해를 맞이했는데 이때는 少陽相火가 司天하고 厥陰風木이 在泉하여 火는 위에서 타게 되고, 木은 아래에서 鬱滯하게 된다. 무릇 包絡의 相火가 이미 旺盛하면 心血은 끓어 녹아서 마르게 된다. 《內經》에 이르기를 "하늘이 밝으면 日月이 밝지 않게 되니 邪氣가 空竅를 해롭게 한다."[57]하였다. 대개 心은 血을 出하고, 肝은 血을 納하는데, 心血이 이미 말랐다면 肝은 받을 것이 없다. 《內經》에 또 이르기를 "눈은 血을 얻어야 능히 볼 수 있다."하였다. 肝이 눈에 開竅하는 까닭으로 肝에 이미 血이 없다면 눈이 침침하여 밝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或者가 이르기를: 눈이 침침하여 밝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 알겠는데, 저녁에는 어두워졌다가 새벽에 다시 밝아지는 것은 어찌된 것인가? 대답하되: 木은 亥時에 生하여 卯時에 旺盛해 졌다가 申時에 絶하고 酉戌時에 이르러서는 木氣가 심하게 衰했다가 亥時를 만나면 비로소 生하여, 해가 뜨는 卯時의 地에 이르러서 木氣가 차츰 盛해져서 눈이 다시 밝아지는 것이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끝내 예전처럼 밝아 명확히 볼 수 없다. 或者가 이르기를: 雀目의 疾患이 끝내 黃腰으로 변하여 죽는데 어째서 그러한가? 대답하되: 木은 申時에 絶하는데 이는 水土가 長生하는 곳이요 木氣가 不足한 萎和의 時期요 土氣는 太過한 敦阜의 時期이다. 《內經》에 "氣가 有餘하면 곧 자기가 이기는 바를 制壓하고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바를 侮蔑한다."하였으니, 이것은 土氣가 有餘하여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木氣를 侮蔑한 것이다. 或者가 이르기를: 治法은 어떠한가? 대답하되: 먼저 마땅히 地黃·川芎·當歸같은 藥으로써 腎肝의 不足을 補益하고, 다음으로 厚朴·蒼朮·陳皮등의 類를 使用하여 그 土氣의 有餘를 平正한다. 이것은 대략 실마리만 제시한 것일 뿐이니 醫者는 스스로 證狀에 臨하여 參酌하여 處置할 것이요, 신중하게 하되 그림책만 보고 천리마를 찾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

57) 《素問·四氣調神大論篇》에 나옴.

33) 或問: 小兒氣喘, 世俗例以爲犯土, 謂犯其土皇也. 或安碓, 或作竈, 或浚井塡塞, 開通溝渠等事, 遇小兒氣喘, 遂云犯土無疑矣. 信聽術士退土, 或書符命貼于動土之處或咒法水焚符調服, 或按家之九宮, 謂土皇居于何宮, 太陽落在何宮, 當取太陽之土與兒飮之, 能釋土皇之厄而喘定, 間亦有驗者. 夫歷代醫書汗牛充棟, 何不按載而遵此證爲黃冠之流醫治歟? 請明以告我.

曰: 夫小兒發喘, 多因風寒外束, 腠理壅遏, 而肺氣不得宣通而爲病耳. 治法當用錢氏瀉白散或三拗湯等劑, 使腠理開通, 肺氣舒暢而喘息定矣. 或因吐瀉之後而中氣不足亦使短氣而喘. 治

用錢氏益黃散, 東垣補中益氣湯, 或用伏龍肝, 湯泡放溫飮之, 其喘立定者有之. 蓋脾土大虛, 必借土氣以培益之. 其術士窺竊此意, 而巧立名色, 而謂太陽之土能安土也. 夫小兒之證不一, 或慢驚直視而喘, 或肺膜氣促而喘, 縱取太陽土盈盆以沃之, 亦莫能救其萬一. 醫者自宜檢方按法調治, 毋聽末流之俗以致惑焉.

33) 或者가 묻기를: 小兒의 氣喘을 世俗에서는 대체적으로 土를 犯한 것으로 여겨서 土皇을 犯했다고 말한다. 或 安碓 或 作竈 或 깊은 우물을 메우거나 水路를 開通하는 등의 일을 할 때 마침 小兒의 氣喘을 만나면, 마침내 土를 犯했다 말하고 의심하지 않는다. 믿을 만한 術士가 土를 물리치는 法을 믿고 따르거나, 或은 符命을 써서 動土가 움직이는 곳에 놓아두거나, 或은 呪文을 외우면서 法水에 符籙을 태워 마시거나, 或은 집의 九宮을 살펴 어루만지면서 이르기를 "土皇은 어느 宮에 居處하느냐, 太陽은 어느 宮으로 떨어졌는가?"하고, 당연히 太陽의 土를 取해 小兒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 능히 土皇의 厄을 풀어서 喘息이 安定되게 하는데 간혹 徵驗이 있었다. 대저 歷代醫書는 汗牛充棟처럼 많은데, 어찌 모두 신지 못하고 이 證을 넘겨 黃冠[58]의 流가 다스리도록 하였는가? 청컨대 나에게 가르쳐 明白히 알도록 해 주시오.

대답하되: 무릇 小兒가 喘息을 發하는 것은 대부분 風寒이 外束함으로 인하여 腠理가 막혀 肺氣가 통하지 못하여 病이 될 따름이다. 治法은 마땅히 錢氏의 瀉白散 或은 三拗湯等의 處方을 使用하여 腠理로 하여금 열리게 하여 肺氣가 舒暢하여 喘息이 安靜된다. 간혹 吐瀉한 後에 中氣不足으로 因하여 또한 短氣하고 喘息하게 한다. 治療는 錢氏의 益黃散이나 東垣의 補中益氣湯을 使用하고 或 伏龍肝을 끓인 물에 타서 따뜻하게 마시면 喘息이 곧 安定되는 경우도 있다. 대개 脾土가 매우 虛하면 반드시 土氣를 빌어 培益해야한다. 그 術士가 이런 뜻을 엿보고 훔쳐서 교묘하게 名色을 세워 말하기를 太陽의 土가 능히 土氣를 安靜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대저 小兒의 證은 하나가 아니니 혹은 慢驚으로 直視하면서 喘息하거나, 혹은 肺膜으로 氣促하여 喘息하니, 비록 太陽의 土를 取하여 옹기그릇에 채워 이를 뿌리더라도 또한 만에 하나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醫者는 스스로 마땅히 方을 檢討하고 法을 살펴서 調治할 것이니 末世의 習俗을 듣고 迷惑되지 말 것이다.

34) 或問: 婦人懷鬼胎者何歟?

曰: 晝之所思, 爲夜之所見. 凡男女之性淫而虛者, 則肝腎之相火無時不起, 故勢怯之人多夢與鬼交. 夫所謂鬼胎者, 僞胎也, 非實有鬼神交接而成胎也. 古方有云: 思想無窮, 所願不遂, 爲白淫白濁, 流于子宮, 結爲鬼胎, 乃本婦自己之血液淫精, 聚結成塊,而胸膜脹滿, 儼若胎孕耳, 非僞胎而何. 或曰: 嘗聞滑伯仁醫驗, 謂仁孝廟廟祝楊天成一女, 薄暮游廟廡, 見黃衣神覺心動, 是夕夢與之交, 腹漸大而若孕, 邀伯仁治, 診之, 曰此鬼胎也, 其母道其由, 與破血墜胎之藥, 下如蝴蚪魚目者二升許遂安, 此非與神交乎? 曰: 有是事而實無是理, 豈有土木爲形, 能與人交而有精成胚胎耶. 噫! 非神之惑于女乃女之惑于神耳. 意度此女, 年長無夫, 正所謂思想無窮, 所願不遂也. 有道之士, 勿信乎邪說之惑焉.

34) 或者가 묻기를: 婦人이 鬼胎를 배는 것

58) 노란 빛의 관으로, 옛날에는 野人이 썼으나 後世에는 道士(術士)만이 썼으므로 轉하여 道士또는 術士.

은 무엇 때문인가? 대답하되: 낮에 생각한 바가 밤에 나타난 까닭이다. 무릇 男女의 性品이 淫亂하고 虛弱한 者는 肝腎의 相火가 無時로 일어나므로 勞怯한 사람은 鬼神과 交接하는 꿈을 많이 꾸는 것이다. 이른 바 鬼胎란 僞胎를 말함이니 실제로 鬼神과 交接하여 孕胎가 된 것은 아니다. 古方에 이르기를 "思想이 끝이 없는데 所願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여 白淫白濁이 되고, 그것이 子宮으로 흘러 들어가서 맺혀 鬼胎를 이루니, 곧 본시 婦人自身의 血液과 淫蕩한 精이 모이고 맺혀서 한 덩어리를 이루어 胸腹이 脹滿하여 儼然히 孕胎한 것과 같을 따름이니 僞胎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 하였다. 或者가 이르기를: 일찍이 滑伯仁의 醫療 經驗을 살펴보면 仁孝廟의 廟祝[59]인 楊天成의 한 딸이 황혼이 질 때 사당 곁에서 놀다가 누런 옷을 입은 鬼神을 보고 마음이 動搖됨을 느끼더니, 이날 밤 꿈에 그와 더불어 交接하여 배가 점점 불러와 마치 姙娠한 것과 같아 滑伯仁을 초청하여 치료케 하였는데, 그 딸을 診察하고 "이는 鬼胎이다"하였다. 그 母에게 그 緣由를 말해주고 破血墮胎하는 藥을 주었더니 마치 올챙이나 물고기의 눈 같은 것을 二升이나 下泄하더니 마침내 安定되었다. 이것이 鬼神과 더불어交接한 것이 아니겠는가? 대답하되: 이러한 事實이 있었다 해도 실제로 이러한 理致는 없으니, 어찌 土木이 形을 이루어 능히 사람과 더불어 交接하여 精이 胚胎를 이룸이 있겠는가? 오호라! 鬼神이 여자를 迷惑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鬼神에 迷惑되었을 뿐이다. 생각하여 헤아려 보건대 이 여자는 나이는 들었으나 지아비가 없으니, 곧 이른 바 思想이 끝이 없고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없는 경우이다. 道있는 선비는 邪說의 誘惑을 믿지 말 것이다.

35) 或問: 鱉峰熊氏纂集《運氣全書》及撰爲《傷寒鈐法》, 以病者之所生年月日時, 合得病之日期, 推算五運六氣, 與傷寒六經證候無不吻合, 謂某日當得某經, 某經當用某藥, 而以張仲景一百一十有三方按法施治, 如太陽無汗麻黃湯, 有汗桂枝湯之類, 使後學能推此法, 不須問證察脈, 但推算病在此經, 卽用此經之藥, 實爲醫家之捷徑妙訣也,吾子可不祖述乎?

曰: 此馬宗素無稽之術, 而以世之生靈爲戲玩耳. 竊謂上古聖人, 仰觀天文, 俯察地理, 以十干配而爲五運, 以十二支合而爲六氣, 天以六方寓之, 歲以六氣紀之, 以天之六氣, 加臨于歲之六節, 五行勝復盈虧之理, 無有不驗. 傳曰: 天之高也, 星辰之遠也, 苟求其故, 千歲之日至可坐而致也. 今草莽野人, 而以人之年命, 合病日而爲運氣鈐法,取仲景之方以治之, 是蓋士師移情而就法也, 殺人多矣. 知理君子, 幸勿蹈其復轍云.

35) 或者가 묻기를: 鱉峰熊氏는《運氣全書》를 纂集하고《傷寒鈐法》을 撰述하였는데 病者의 태어난 年月日時로서 病을 얻은 날을 합하여 五運六氣와 傷寒六經의 證候를 推算하면 맞지 않는 것이 없어 某日에는 마땅히 某經을 얻고 某經에는 마땅히 某藥을 사용하며, 張仲景의 一百一十三方으로써 法에 따라 治療를 行하였는데, 가령 太陽無汗症에는 麻黃湯, 有汗에는 桂枝湯을 쓰는 것처럼 後學으로 하여금 이 法을 미루어 하면 반드시 症을 묻거나 脈을 살피지 않더라도 단지 病이 있는 經만 推算하면 곧 그 經의 藥을 쓰면 되는 것이니 진실로 醫家의 지름길이요 妙訣이다. 그대는 이를 이어받지 않을 것인가.

59) 조사내에 香火를 맡은 사람

대답하되: 이는 馬宗素[60]의 荒唐無稽한 術로 世俗의 백성들을 가지고 논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가만히 홀로 생각컨데 옛날에 聖人은 하늘을 우러러 天文을 보고 아래를 굽히어 地理를 살펴 十干을 配合하여 五運을 만들고, 十二支를 配合하여 六氣를 만들어, 天은 六方으로 배치하고 歲는 六氣로 規律 삼았으니 天의 六氣로써 歲의 六節에 加臨하면 五行의 勝復盈虧의 理致가 徵驗되지 아니함이 없다. 傳에 이르기를 "하늘은 높고 별은 멀리 있으니 진실로 그 이치를 窮究하면 千歲의 날이 이르는 것도 앉아서 알게 될 것이다."하였다. 지금 民間의 野人들은 사람의 태어난 목숨을 病이 되는 날과 합하여 運氣鈐法으로 삼고 仲景의 處方을 取하여 치료하는데, 이는 대개 士師(재판관)가 事情을 改變시켜서 法을 결정하는 것과 같으니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다. 理致를 아는 君子라면 이런 前轍을 다시 밟지 않으면 多幸이겠다.

36) 或問: 龐安常《傷寒總病論》所載時行瘟疫, 謂春有青筋牽證, 其候頸背雙筋牽急, 先寒後熱, 腰强急, 脚縮不伸, 脇中欲折, 或眼黃, 項背强直. 夏有赤脈攢證, 其候口乾舌裂咽塞, 戰掉驚動不定. 秋有白氣狸證, 其候經絡壅滯, 皮毛堅竪發泄, 體熱生斑, 氣喘引飮. 冬有黑骨瘟證, 其候腰痛欲折, 胸脇如刀刺切痛, 心腹膨脹. 四季有黃肉隨證, 其候頸下結核, 頭重項直, 或皮肉强硬而隱隱發熱. 嘗聞醫有賢愚, 疾無今古, 近年以來未嘗有已上諸證, 何今古之不同歟? 請明言其故, 幸甚!

曰: 瘟疫之證, 素無定體, 或氣運之變遷, 或世情之不古. 愧予年逾八旬, 略未見此異證, 或世有之而予未之見歟? 抑亦見之而予未之識歟? 安常稟出類拔萃之資, 爲一代名世之士, 著述方書以爲後學之規範, 豈好爲異說以欺世罔俗哉, 姑錄之以俟達者再論.

36) 或者가 묻기를: 龐安常의《傷寒總病論》에 수록되어 있는 時行瘟疫에 이르기를 봄에는 青筋牽證이 발생하는데 그 證候가 頸背의 양쪽 筋肉이 모두 堅急하고, 먼저 惡寒이 오고 뒤에 發熱이 있고, 허리는 强急하고 다리는 오그라져 펼 수 없고, 정강이는 끊어질 것 같으며, 間或 눈이 누렇고 項背는 强直한다. 여름에는 赤脈攢證이 발생하는데 그 證候는 입안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며 咽喉가 막히고, 戰慄하고 잘 놀라면 安靜하지 못한다. 가을에는 白氣狸證이 발생하는데 그 證候는 經絡이 막히고, 皮毛가 굳게 곤두서고 發泄하며 몸에 열이 나면서 斑點이 생기고, 氣喘이 나면서 마실 것을 찾는다. 겨울에는 黑骨瘟證이 발생하는데 그 證候는 腰痛이 극심하여 끊어질 듯이 아프고, 胸脇은 마치 칼로 도려내듯이 아프고, 心腹이 膨脹하게 된다. 四季에는 黃肉隨證이 발생하는데 그 證候는 목 아래에 結核이 생기고, 머리가 무거우며 목이 뻗뻗해지고, 間或 皮肉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隱隱하게 熱이 난다. 일찍이 들건대 醫師에는 현명하고 어리석음이 있지만 疾病에는 자금과 옛날이 差異가 없다 하던데, 近來에는 이상과 같은 證들이 있지 않으니 자금과 예가 같지 않은 건 무슨 까닭인가? 그 까닭을 明白히 밝혀 주시오.

대답하되: 瘟疫의 證은 본래 定體가 없어, 或 氣運이 변한다든지 或 世情이 옛날과 다른 것과 관계가 있을 뿐이다. 내 나이 八旬이 지났어도

60) 馬宗素: (12世紀頃). 金代의 醫家. 平陽(지금의 山西임분)人. 熱性病의 研究로《傷寒醫鑑》一卷을 撰述함. 朱肱의《南陽活人書》에 溫熱藥을 써서 傷寒을 治하는 것을 反對하고, 劉完素가 쓴 寒涼法을 推崇함.

아직 이런 特異한 證을 보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여긴다. 혹 세상에 있는데도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인가? 또는 그것을 보고서도 내가 아직 알지 못한 때문인가? 龐安常은 뛰어난 資質을 타고나서 그것을 보고서도 一代의 名士가 되고 著述한 方書는 後學의 規範이 되니, 어찌 異說을 만들어 世俗을 속이기를 좋아하였겠는가. 우선 이를 記錄하여 通達한 자가 다시 論議하기를 기다린다.

37) 或問: 龐安常《傷寒總病論》所載《聖散子方》, 謂出于荔子瞻尚書所傳, 又謂其方不知所從來, 而故人巢君穀世寶之, 以治瘟疫之疾, 百不失一. 安常贊曰: 自古論病, 惟傷寒至爲危急, 表裏虛實, 日數證候, 應汗應下之法, 差之毫厘, 輒至不救, 而用聖散子者, 一切不問. 陰陽二感, 或男女相易, 狀至危篤者, 連飮數劑, 則汗出氣通, 飮食漸進, 神宇完復, 更不用諸藥, 連服取瘥; 其餘輕者, 心額微汗, 正爾無恙. 藥性少熱, 而陽毒發狂之類, 入口卽覺淸涼, 殆不可以常理論也. 時疫流行, 平旦輒煮一釜, 不問老少良賤, 各飮一大盞, 則時氣不入其門. 平居無病, 能空腹一服, 則飮食甘美, 百疾不生, 眞濟世衛家之寶也. 吾子何不遵其法多合, 以濟世之瘟疫, 豈非積德之一事乎?

曰: 予閱其方, 殆與醫道不合, 蓋其藥味, 止是燥熱助火之劑, 別無祛邪除瘴之能. 如黑附子, 高良姜, 吳茱萸, 石菖蒲, 麻黃, 細辛, 半夏, 厚朴, 肉豆蔻, 防風, 藿香, 豈非辛烈燥熱之劑乎. 其茯苓, 蒼朮, 藁本, 猪苓, 澤瀉, 獨活, 甘草, 稍溫不熱. 雖有柴胡, 芍藥, 枳殼三味之凉, 恐一杯之水, 難救一車薪之火. 夫熱藥治熱病, 《素問》謂之從治, 又謂之反治, 又謂之劫劑. 然此方必當時適遇瘟疫之身熱無汗, 或日期已過, 邪氣欲去正氣將復之際, 偶投一服二服, 劫而散之者有之. 由是衆皆以爲得神仙之法, 爭錄其方以傳于世, 正所謂訛上傳訛也, 豈可以大釜煎煮令一家俱飮乎, 又豈可令無病之人空腹服此熱藥乎. 用藥者若不執之以理, 而謂不殺人者, 予未之信也. 安常爲一代之名醫, 而載此方于傷寒論中, 而謂能博施濟衆, 亦賢者之過焉.

37) 或者가 묻기를: 龐安常의《傷寒總病論》에 記載된《聖散子方》[61]은 蘇軾(字 子瞻)의《尙書》의 所傳에서 出하였다 하고, 또 그 方이 전해져 온 바를 알 수 없다고도 하는데, 옛 친구인 巢君谷이 세상에서 그 方을 가장 重하게 여겨 瘟疫의 疾病을 治療하였는데 百에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다. 龐安常이 칭찬하여 이르기를 "自古로 病을 論함에 오직 傷寒이 가장 危急한데, 表裏虛實과 日數에 따른 證候에 대하여 汗法·下法을 사용하여 應함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곧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나, 聖散子를 使用하는 데에는 일체 不問하고 쓸 수 있다. 陰陽이 서로 感하거나 或 男女가 서로 交易하여 症狀이 지극히 危篤한데까지 이른 者는 여러 劑를 계속해서 마시면 땀이 나면서 氣가 통해 飮食이 점차 넘어가고 精神이 완전히 恢復되면 다시 다른 藥을 쓰지 아니하고 연이어 服用하여 낫기를 바랄 것이다. 그 나머지 가벼운 者는 이마에 약간 땀이 나면 바로 근심이 없을 것이다. 藥性이 조금 熱한데도 陽毒으로 發狂하는 躁症

61) 聖散子放 ; 草豆蔻十枚去皮麪裹炮, 木猪苓去皮, 茯苓, 附子炮去皮臍, 獨活去蘆頭, 石菖蒲, 芍藥, 厚朴去皮薑汁炙, 麻黃去根節, 藁本去沙土, 枳殼去穰麩炒, 柴胡去蘆頭, 澤瀉, 藿香葉, 高良薑, 華陰細辛, 防風去蘆頭, 白朮炒, 半夏薑製各半兩, 甘草炙一兩, 右剉如麻豆大, 每服五錢, 水一盞半煮取八分, 去滓熱服, 餘滓兩服, 合爲一服重煎, 空心服之. (圖書集成 醫部全錄 十一卷 p.376, 大星文化社.)

에 服用하면 즉시 서늘한 感을 느끼는데, 이는 거의 일반적인 理論으로는 論할 수 없을 것이다. 時行瘟疫이 流行하면 아침 일찍 한 솥에 끓여서 老·少·良·賤을 不問하고 각각 큰 잔으로 한잔 마시면 時行 邪氣가 들어오지 못한다. 平常時에 病이 없을 때에도 빈 속에 한 잔씩 마시면 飮食甘美·百疾不生하지 아니하니, 진정 世上을 구하고 家庭을 지키는 보배다."라 하였다. 자네는 어찌 그 法이 좋지 않는가. 이로써 世上의 瘟疫을 救濟한다면 어찌 德을 쌓는 하나의 일이 아니겠는가?

대답하되: 내가 그 方을 보니 거의 醫道와 附合되지 아니하고 대개 그 藥味는 단지 燥熱하여 火를 助長하는 藥이지 특별히 祛邪除瘴하는 效能은 없다. 黑附子·高良姜·吳茱萸·石菖蒲·麻黃·細辛·半夏·厚朴·肉豆蔻·防風·藿香 같은 것이어찌 辛烈·燥熱한 藥劑가 아니겠는가? 茯苓·蒼朮·藁本·猪苓·澤瀉·獨活·甘草같은 것은 조금 溫할 뿐 熱하지는 않다. 비록 柴胡·芍藥·枳殼같은 三味의 凉藥이 있으니 아마 한잔의 물로 수레에 실린 짚더미의 불을 끄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저 熱藥으로 熱病을 治療함은 《素問》에서 '從治'라고 일컬었으며, 또 이를 '反治'라고도 하였고, 또 '劫劑'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 方은 반드시 당시의 瘟疫之氣를 만나 身熱無汗하거나, 或은 날이 이미 경과되어 邪氣가 물러나려 하고 正氣가 장차 恢復될 때 우연히 投藥하면 한 두번 服用하여 병이 물러가고 낫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대중들이 모두 神仙의 法을 얻었다 여기어 다투어 그 方을 記錄하여 世上에 傳한다면 바로 이른 바 잘못된 위에다 거듭 잘못된 것을 傳하는 것이니 어찌 큰 솥에 끓여 한 가족 모두에게 마시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어찌 병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빈 속에 이런 熱藥을 服用하게 할 수 있겠는가? 藥을 쓰는 者가 만약 理致를 잡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龐安常은 一代의 名醫이지만 이 方을 傷寒論 中에 실어 놓고 博施濟衆한다고 말하였으니 또한 賢者의 過失일 것이다.

38) 或問: 發砂之證, 古方多不該載. 世有似寒非寒, 似熱非熱, 四體懈怠, 飮食不甘, 俗呼爲砂病. 其治或先用熱水熏搭臂膊而以苧麻刮之, 甚者或以鍼刺十指出血, 或以香油灯照視身背有紅點處皆烙之, 已上諸法, 皆能使腠理開通, 血氣舒暢而愈. 此爲何病? 又何由而得之乎?

曰: 《內經》名爲懈惰, 原其所因, 或傷酒, 或中濕, 或感冒風寒, 或房事過多, 或婦人經水不調, 血氣不和, 皆能爲懈惰, 證與砂病相似, 實非眞砂病也. 夫砂病者, 晻南烟瘴之地多有之矣. 詩云: 爲鬼爲蜮, 則不可得. 注云: 蜮, 短狐也, 江淮間多有之, 能含砂以射水中人影. 唐詩云: 射工巧俟游人影. 亦謂此也. 人不見其形, 若被其毒, 輒爲寒熱而病. 一曰: 蜮如鼈, 有三足, 一名射影, 病瘡如瘄. 《埤雅》曰: 有一角橫在口前, 如弩機, 臨其角端, 曲如上弩, 以氣爲矢, 因水勢以射人, 俗呼水弩, 鵜能食之. 本草云: 溪毒, 砂虱, 水弩, 射工, 蜮, 短狐, 蝦須之類, 俱能含砂射人. 被其毒者, 則憎寒壯熱, 百體分解, 若傷寒初發之狀. 彼土人治法, 以手捫摸痛處, 用芋葉或甘蔗葉卷角入肉, 以口吸出其砂, 外用生大蒜搗膏封貼瘡口卽愈. 諸蟲惟蝦須最毒, 若不早治, 十死七八, 其毒甚入于骨, 若蝦須之狀, 其瘡類乎疔腫. 彼地有灑鵝, 鸜鵒等鳥, 專食已上諸蟲, 凡遇此病, 卽以此鳥毛糞燒灰服之, 及籠此鳥于病者身畔吸之, 其砂聞氣自出而病安也. 其他無此諸

蟲之地, 實非眞砂證也. 管見如斯, 學者更宜博訪, 以長見聞可也.

38) 或者가 묻기를: 發砂의 證을 古醫方에 대부분이 실어 놓지 않았다. 세상에는 寒인 것 같으나 寒이 아니고, 熱인 것 같으나 熱이 아니며, 四肢倦怠, 飮食不甘하는 病이 있는데, 俗世에서는 이를 砂病이라 한다. 그 治療는 或 먼저 뜨거운 물에 팔을 담그고 蓼麻로써 긁어 주는데, 심한 者는 或 十指를 鍼刺하여 피를 내거나 香油등불로 몸의 등을 비추어 보아 붉은 점이 있는 곳은 모두 지져서 治療한다. 이상의 모든 方法은 다 능히 腠理를 열어주어 血氣를 舒暢하게 하여 낫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病인가? 또 어떤 緣由로 얻게 되었는가?

대답하되: 《內經》에서는 解㑊이라 이름하여 그 原因을 찾아보면 혹 酒傷하거나, 혹은 中濕하거나, 혹은 感冒風寒하거나, 혹은 房事過多하거나, 혹은 婦人의 經水不調하여, 血氣不和한 것으로 모두 解㑊이 될 수 있다. 證狀이 砂病과 더불어 서로 비슷하지만 실은 眞砂病이 아니다. 무릇 砂病이란 것은 岭南의 烟瘴한 땅에 이 病이 많이 있다. 《詩經》에 이르기를 "鬼神도 되고 물여우[62]도 되니 잡아서는 안된다."하였다. 注에 이르기를 "물여우란 短狐로 長江과 淮水사이에 많이 있으며 능히 砂를 머금고 있다가 물속에서 사람의 그림자를 향해 쏜다."하였다. 唐詩에서도 이르기를 "射工이 교묘히 사람의 그림자를 기다리며 헤엄친다."고 하였으니 또한 이것을 말한 것이다. 사람은 그 形象을 보지 못하는데 만약 그 毒을 맞으면 곧 寒熱이 생겨 病이 된다. 一說에는 말하기를 "물여우는 자라와 같은데 발이 세개이고 일명 射影이라고 하며 病으로 인한 瘡은 疔와 같다."하였다. 《埤雅》에 이르기를 "한 개의 뿔이 입 앞에 횡으로 있는데 마치 弩機같고, 뿔의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上弩같이 굽어 있는데 氣를 화살 삼아 물의 힘에 의지하여 사람을 향해 쏘니 俗世에서는 水弩라 하는데 거위가 이를 잘 잡아 능히 먹는다."하였다. 本草에 이르기를 "溪毒, 砂虱, 水弩, 射工, 蜮, 短狐, 蝦須의 類는 모두 능히 砂를 머금고 사람을 향해 쏠 수 있다."고 하였다. 毒에 맞은 사람은 憎寒 壯熱하며 온 몸이 分解되는 듯하여 마치 傷寒이 처음에 發하는 症狀과 같다. 그 地方 사람들의 治法은 손으로써 痛處를 비비고 芋葉(토란 잎)이나 或은 甘蕉葉(사탕수수 잎)을 사용하여 뿔을 말아서 肌肉에 넣고 입으로 빨아 그 砂를 排出시키고, 外用으로는 생마늘을 찧어 膏를 만들어 瘡口를 封하여 붙이면 곧 낫는다. 모든 蟲중에서 오직 蝦鬚의 毒이 가장 강하니 만약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열 명중 일곱 여덟은 죽는다. 그 毒이 깊이 뼛속까지 들어가면 마치 蝦鬚의 形狀이 되며 그 瘡은 疔腫과 類似하다. 그 땅에는 鸂鶒(紫鴛鴦), 鸕鷀(水鳥, 오리와 비슷하나 크다)等의 새가 있어 오로지 위에서 말한 여러 蟲들을 잡아먹으니, 이런 병을 만나게 되면 곧 이런 새들의 毛와 糞을 태운 재를 服用하게 하고 및 病者의 몸의 둘레에 이런 새들로 싸 놓아 그것을 빨게 하면 그 砂가 새의 氣를 느껴 스스로 나오게 되어 病이 낫는다. 그 외 이런 蟲들이 없는 地域에서는 실제로 眞砂證이 없다. 나의 所見이 이와 같으니, 배우는 者는 더욱 마땅히 널리 訪問하여 見聞을 넓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62) 날도래의 幼蟲. 물 속에 살며 주둥이에 한 개의 긴 뿔이 앞으로 뻗치었는데, 毒氣를 사람의 그림자를 쏘면 腫氣가 생긴다는 옛말이 있다. 短弧, 射工, 射影이라고도 한다.

39) 或問: 痞與痃癖積聚癥瘕, 病雖似而其名各不同, 請逐一條陳其說, 以曉後學可乎?

曰: 痞者否也, 如《易》所謂天地不交之否, 內柔外剛, 萬物不通之義也. 物不可以終否, 故否久則成脹滿而莫能療焉. 痃癖者懸絶隱僻, 又玄妙莫測之名也. 積者迹也, 挾痰血以成形迹, 亦儲積至久之謂爾. 聚者緒也, 依元氣以爲端緒, 亦聚散不常之意云. 癥者征也, 又精也, 以其有所征驗, 及久而成精萃也. 瘕者假也, 又遐也, 以其假借氣血成形及歷年遐遠之謂也. 大抵痞與痃癖乃胸膈間之候, 積與聚爲肚腹內之疾, 其爲上中二焦之病, 故多見于男子. 其癥與瘕獨見于臍下, 是爲下焦之疾, 故常得于婦人. 大凡腹中有塊, 不問積聚癥瘕, 俱爲惡候, 切勿視爲尋常等疾而不求醫早治, 若待脹滿已成, 胸腹鼓急, 雖倉扁復生, 亦莫能救其萬一, 遑斯疾者, 可不懼乎!

39) 或者가 묻기를: 痞, 痃癖, 積聚, 癥瘕는 病이 비슷하지만 이름은 각각 다르니, 條目마다 그 說을 陳述하여 後學을 깨닫게 할 수 있는가?

대답하되: 痞란 否로 《易》에서 이른 바 天地不交의 否卦와 같으니 內柔外剛(下卦는 坤卦로써 柔하고, 上卦는 乾卦로써 强함)·萬物不通의 뜻이다. 物은 끝내 否할 수 없어, 고로 痞가 오래 되면 腹滿을 이루어 능히 治療할 수 없게 된다. 痃癖이란 멀리 동떨어져 깊숙이 숨어 있음이니, 또 깊고 奧妙하여 豫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름한 것이다. 積이란 痕迹(자취가 있다는 것)이다. 痰血을 끼고 形迹을 이룬 것이며, 또한 儲積된 것이 지극히 오래된 것으로 말한 것이다. 聚란 緖의 뜻으로 元氣를 따라 端緖가 되는 것으로, 또한 모였다 흩어졌다 하여 일정함이 없다는 뜻으로 이른 것이다. 癥이란 徵(이루다)이요 또 精의 뜻이니, 그것이 이로써 징험함이 있고 오래되어 精萃를 이룬다. 瘕란 빌리다 또 멀다는 뜻이니, 그것이 氣血을 빌어 形을 이루기 때문이며, 해를 지나서 오래도록 멀리 감으로 말한 것이다. 대저 痞와 痃癖은 胸膈間의 나타나는 病候이고, 積과 聚는 肚腹內에 생기는 疾患이다. 그것은 上·中·二焦에 생기는 病이므로 男子에게 많이 나타난다. 癥과 瘕은 단지 臍下에서만 나타나니 이는 下焦에 생기는 疾患으로 항상 婦人에게서 볼 수 있다. 대개 腹中에 덩어리가 있으면 積聚, 癥瘕를 막론하고 모두 惡候이니, 절대로 일반적인 병으로 보지 말 것이며, 醫師를 청해서 일찍 치료하지 않고, 만약 이미 腹滿이 이루어져 胸腹이 鼓急해 지도록 기다린 다면, 비록 倉公과 扁鵲이 다시 살아나도 또한 萬에 하나도 구하기 어려우니, 이런 疾病을 만나는 者는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는가?

40) 或問: …… 或曰: 今之夢寐中而常魘者, 似有鬼神所附之狀, 何也?

曰: 然. 夢寐間常魘者, 蓋火起于下而痰閉于上, 心血虧欠而心神失守故爾, 豈有鬼神所附之理哉, 賢者愚無惑焉.

40) 或者가 묻기를: …… 或者가 말하기를: 지금 잠자면서 꿈꾸는 중에 항상 가위 눌리는 것이 鬼神이 붙은 形狀과 비슷한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되: 그렇다. 자면서 꿈꾸는 사이에 항상 가위 눌리는 것은 대개 火가 아래에서 일어나 痰이 위에서 막아서 心血이 虧損되고 心神이 지켜지지 못한 까닭일 뿐이니, 어찌 鬼神이 붙은 理致 이겠는가? 賢明한 者는 迷惑되지 않기를 바란다.

41) 或問: 古者醫家有禁咒一科, 今何不用?

曰: 禁咒科者, 卽《素問》祝由科也, 立教於龍樹居士, 爲移精變氣之術耳. 可治小病, 或男女入神廟驚悸成病, 或山林溪谷冲斥惡氣, 其證如醉如痴, 如爲邪鬼所附, 一切心神惶惑之證, 可以借咒語以解惑安神而已. 古有龍樹咒法之書行於世, 今流而爲師巫,爲降童, 爲師婆, 而爲扇惑人民, 哄嚇取財之術. 噫! 邪術惟邪人用之, 知理者勿用也.

41) 或者가 묻기를: 옛날 醫家에 禁咒一科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째서 使用하지않는가?

대답하되: 禁咒科는《素問》에 이른바[63] '祝由[64]科'인데 龍樹居士[65]에 의해 세워졌으며, 移情變氣[66]의 術을 施行할 뿐이다. 작은 病이나, 혹은 男女가 神廟에 들어가 놀라고 迷惑되어서 病이 되었거나, 혹은 山林이나 溪谷에 어려있는 惡氣는 다스릴 수가 있다. 그 證은 마치 술취한 듯하고, 바보같고, 鬼神이 붙은 듯 하니, 일체 心神이 당황, 迷惑되는 證으로, 咒語를 빌어 迷惑한 마음을 풀고 精神을 安定시켜야 나을 수 있다. 옛날에는 龍樹居士의 咒法을 기록한 書가 있어 세상에 流行했으나, 지금은 내려오면서 師巫, 降童, 師婆가 사람들을 蠱惑하고 속이고 위협하여 財物을 取하는 術法이 되었다. 오호라! 邪術은 오직 사악한 사람만이 使用하는 것이니, 理致를 아는 사람은 쓰지 말 것이다.

42) 或問: 丹溪所謂有外感挾內傷者有內傷挾外邪者, 其證何如而見? 當以何法而治? 請詳以語之.

曰: 假如先因勞役過度, 飮食失節, 而其體已解㑊, 又爲感冒風寒而作, 其證必惡寒發熱, 頭身俱痛, 右手氣口及關脈則大於左手人迎及關脈二倍, 而兩手陽脈俱有緊盛之勢,此內傷重而外感輕, 謂之內傷挾外邪也, 治法必以東垣補中益氣湯爲主, 加以防風·羌活·柴胡之類. 或先因秋冬之月觸冒風寒, 鬱積已久欲發未發之間, 而加之飮食勞倦觸動而發, 其證必大惡風寒, 頭身大痛而大發熱, 左手人迎及關中脈則大於右手氣口及關脈一二倍, 而兩手陽脈亦各有緊盛之勢, 此外感重而內傷輕, 謂之外感挾內傷也, 治法必以仲景《傷寒論》六經見證之藥爲主治, 少加以補中健脾之劑. 夫外感重者, 宜先攻而後補(攻者汗下之類); 內傷重者, 宜先補而後攻; 二證俱重, 宜攻補兼施. 或曰: 勞倦飮食二者俱甚而爲大熱之證, 欲補則飮食塡塞胸中, 恐愈增脹悶, 欲消導則恐元氣愈虛而病益甚, 其將何法以處治乎? 曰: 此正王安道所論不足中之有餘證也, 必宜攻補兼施 以補中益氣湯, 間與丹溪導痰補脾飮, 加神曲·麥芽之屬, 甚者以東垣枳實導滯丸之類, 與補中益氣湯間而服之, 食去而虛證亦除, 是亦攻補兼施之法也. 醫者誠能斟酌權宜而處治之, 無有不安之理也.

42) 或者가 묻기를: 丹溪가 이른 바 '外感挾內傷'이 있고 '內傷挾外邪'이 있으니, 그 證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땅히 어떤 方法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상세히 말해 주시오?

대답하되: 가령 먼저 勞役過度·飮食失節로

63) 《素問·移情變氣論篇》에 나옴.

64) 古代에 醫藥과 針石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 情志病등에 대해 巫醫들이 病의 原因을 몰리치고 쾌유를 바라는 뜻으로 神에게 告하여 알리는 呪術的 性格을 띤 一種의 순수한 精神的 治療方法.

65) 龍樹居士: 佛誠 後 700年 出生. 南天竺人. 《中觀論》, 《大智度論》 등의 著書가 있음.

66) 患者의 精神을 轉移시키고 紊亂한 氣를 改變시켜서, 正常的인 機能으로 回復시키고 새롭게 振作시키는 一種의 精神療法.

인하여 그 몸이 이미 解体하였는데또한 風寒에 感冒되어 일어난 것은, 그 證이 반드시 惡寒發熱, 頭身俱痛하고 右手氣口및 關脈이 左手人迎脈및 關脈보다 二倍 더 크고, 兩手의 陽脈은 모두 緊盛한 勢가 있다. 이는 內傷은 重하고 外感은 輕한 것이므로 그것을 일러 '內傷挾外邪'라 하며, 그 治法은 반드시 東垣의 補中益氣湯을 爲主로 하여 防風·羌活·柴胡의 類를 加한다. 혹은 먼저 秋冬의 계절에 風寒에 觸冒됨으로 인하여, 鬱積된지 이미 오래 되어 아직 發散되지 아니한 것을 發散하려 하는 사이에 飮食勞倦이 더해져 觸動하여 發하면, 그 證이 반드시 大惡風寒, 頭身大痛하면서 大發熱하고, 左手人迎脈및 關中脈은 右手氣口脈및 關脈보다 一二倍 더 크고, 兩手의 陽脈역시 各各 緊盛한 勢가 있다. 이는 外感은 重하고 內傷은 輕한 것이므로, '外感挾內傷'이라 하며, 그 治法은 반드시 仲景의 《傷寒論》의 六經見證의 藥을 爲主로 다스리고 補中健脾하는 藥劑를 조금 가해 준다. 무릇 外感이 重할 경우에는 마땅히 먼저 攻하고난 後에 補한다(攻이란 汗下法등을 말한다); 內傷이 重할 경우 마땅히 먼저 補한 後에 攻한다; 二證이 모두 重할 경우 마땅히 攻과 補를 兼해서 施術해야 한다.或者가 이르기를: 勞倦과 飮食의 二證이 모두 심하여도 大熱한 證이 되는데, 補하고자 하면 飮食이 胸中을 막아 胞悶함이 더욱 심해질까 두렵고, 消導하고자 하면 元氣가 더욱 虛해져 病이 더욱 甚해질까 두려우니, 장차 어떤 方法으로 處置해야 하는가? 대답하되: 이것이 바로 王安道가 논한 바 不足한 가운데 有餘함이 있는 證이니, 반드시 攻과 補를 兼하여 施術하여야 하며, 補中益氣湯으로써 다스리되, 사이에 丹溪의 導痰補脾飮에 神曲·麥芽같은 부류를 加하고, 甚한 경우에는 東垣의 枳實導滯丸같은 類로써 다스리되, 중간에 補中益氣湯을 주어 服用하게 한다. 宿食이 물러가면서도 虛證이 또한 除去되니, 이것이 攻補兼施하는 法인 것이다. 醫者는 진실로 參酌하고 그 變化에 따라 適宜하게 處治한다면, 不安할 理由가 있지 않을 것이다.

43) 或問: 人之壽夭, 各有天命存焉, 凡人有生必有死, 自古皆然, 醫何益乎?

曰: 夫所謂天命者, 天地父母之元氣也, 父爲天, 母爲地, 父精母血盛衰不同, 故人之壽夭亦異. 其有生之初, 受氣之兩盛者(父母元氣皆壯盛也, 餘倣此), 當得上中之壽; 受氣之偏盛者, 當得中下之壽; 受氣之兩衰者, 能保養僅得下壽, 不然多夭折. 雖然, 又不可以常理拘泥論也, 或風寒暑濕之感於外, 飢飽勞役之傷於內, 豈能一一盡乎所稟之元氣耶. 故上古神農氏嘗百草, 制醫藥, 乃欲扶植乎生民各得盡乎天年也. 今時人有不信醫而信巫枉死者, 皆不得盡乎正命而與岩墻桎梏死者何異焉. 或曰: 今之推命者, 皆以所生日時之天上星辰, 推算其生死安危, 無不節節應驗. 予以父母之元氣爲天命, 恐非至當之語. 曰: 天人之理, 盛衰無不吻合, 如河出圖, 洛出書, 聖人取以畫八卦而成《易》書. 凡人之一動一靜, 與夫吉凶消長之理, 進退存亡之道, 用之以卜筮, 毫髮無差. 雖然, 聖賢諄諄敎誨, 必使盡人事以副天意, 則凶者化吉, 亡者得存, 未嘗令人委之於天命也. 傳曰: 修身以俟命而已矣. 是故醫者可以通神明而權造化, 能使夭者壽而壽者仙 醫道其可廢乎.

43) 或者가 묻기를: 사람의 壽·夭는 모두 天命에 달려 있다. 모든 사람은 生이 있으면 반드시 死가 있어, 옛 부터 다 그러하니 醫師가 무

슨 도움이 있겠는가?

대답하되: 이른 바 天命이란 天地와 父母의 元氣이다. 父는 天이 되고 母는 地가 되니, 父의 精과 母의 血이 盛衰가 같지 않으므로 사람의 壽命 역시 다른 것이다. 사람이 생기는 初에 兩父母의 元氣가 다 旺盛한 것을 받은 者는 당연히 上, 中의 壽를 얻는다; 한쪽 부모의 元氣가 旺盛한 것을 받은 者는 당연히 中, 下의 壽를 얻는다; 兩父母의 元氣가 모두 衰弱한 것을 받은 者는 능히 保養을 잘 해야만 겨우 下壽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夭折하게 된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一定한 理致에 拘碍되어 論할 수는 없으니,或 風寒暑濕이 外를 따라 侵犯하였거나, 飢飽勞役으로 內를 傷한다면 어찌 일일이 태어나면서 받은 元氣를 다 하겠는가? 그러므로 上古의 神農氏는 일찍이 百草를 맛보고 醫藥을 制定하여, 이에 生民이 각기 千年을 다 누리도록 돕고자 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醫師를 믿지 않고 무당을 믿어 억울하게 죽는 자가 있으니, 모두 올바른 壽命을 다하지 못하고 허물어져 가는 담아래에서 죽는 것과 형벌을 받아 죽는 것과 더불어 무엇이 다르겠는가?或者가 이르기를: 지금 壽命을 推論하는 者는, 모두 태어난 日時의 하늘의 별자리로써 그 生死安危를 미루어 推算하니, 일일이 徵驗하지 않음이 없다. 자네는 父母의 元氣로 天命을 삼으니 아마 至當한 말은 아닐 것이다. 대답하되: 天人의 理致는 盛衰가 맞아 떨어지지 아니함이 없으니, 黃河에서 圖가 出하고 洛水에서 書가 出하여 聖人이 이것을 취해 八卦를 그리고 《易》書를 만든 것과 같다. 무릇 사람의 一動一靜은 吉凶消長의 理致와 進退存亡하는 道와 함께 하니, 그것을 卜筮에 이용하면 털끝 만큼의 誤差도 없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聖賢께서는 극진히 타일러 가르쳐 반드시 사람의 일을 다함으로써 하늘의 뜻에 合하게 한 것이니, 곧 凶한 것은 吉하게 되고 죽을 者는 살게 하는 것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天命에만 내맡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傳에 이르기를 "몸을 닦고 天命을 기다릴 따름이다."하였다. 이런 까닭에 醫者는 神明에 通達하고 造化에 權變하여, 능히 夭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長壽하게 하고 長壽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神仙되게 할 수 있어야 하니, 醫道를 어찌 廢할 것인가.

44) 或問: 先哲謂諸痛爲實, 諸痒爲虛. 丹溪亦曰: 諸痛不可用參芪, 蓋補其氣, 氣旺不通而痛愈甚. 然則凡病痛者, 例不可用參芪等藥乎?

曰: 以上所論諸痛, 特指其氣實者爲言耳. 如暴傷風寒, 在表作痛, 或因七情九氣怫鬱不得宣通而作痛者, 固不可用補氣藥也. 若夫勞役傷形, 致身體解㑊而作痛者, 或大便後及大瀉痢後氣血虛弱, 身體疼痛及四肢麻痺而痛, 或婦人產後氣血俱虛, 致身體百節疼痛等病, 其可不用參芪等補氣藥乎, 學者毋執一也.

44) 或者가 묻기를: 先哲들은 모든 痛症을 實證이고 모든 痒症은 虛證이라 말하였다. 丹溪 역시 이르기를 "모든 痛症에는 人蔘·黃芪를 쓸 수 없다. 대개 氣를 補하면 氣가 旺盛하여 通하지 않으니 痛症은 더욱 심해진다."하였다. 그러한즉 病으로 痛症이 있는 者는 대체적으로 人蔘, 黃芪같은 藥은 쓸 수 없는가?

대답하되: 以上에서 論한 모든 痛症은 다만 氣實한 것만 가리켜 말한 것일 따름이다. 가령 급격히 風寒에 傷하여 病邪가 表에 있어 痛症이 생기거나, 혹은 七情으로 因하여 九氣가 怫鬱하여 잘 通하지 못하여 痛症이 생기는 것은 진실

로 補氣藥은 쓸 수 없다. 만약 勞役으로 形을 傷하여 身體가 解体한데 이르고 痛症이 생긴 경우나, 혹은 大便後나 크게 泄瀉가 있은 後에 氣血이 虛弱하여 身體가 疼痛하고 그리고 四肢에 麻痺가 오면서 疼痛이 생긴 경우나, 혹은 婦人産後에 氣血이 모두 虛弱하여 몸의 骨節마다 疼痛이 생기는 등의 病에는 어찌 人蔘·黃芪같은 補氣藥을 쓸 수 없겠는가?배우는 者은 한 가지 方法에 執着하지 말 것이다.

45) 或問: 寸·關·尺 三脈部位, 旣得聞命矣. 外有人迎·氣口·神門 三脈, 其位安在? 請明以告我.

曰: 按《活人書》謂左手關前一分, 人迎是也. 右手關前一分, 氣口是也. 又按經脈謂左手人迎以前寸口脈, 卽知人迎在病人左手關前寸後之位, 診者右手食指與中指兩岐之間是也. 又謂右手氣口以前寸口脈, 卽知氣口在病人右手關前寸後之位, 診者左手食指與中指兩岐之間是也. 經又曰: 兩手神門以後尺中脈, 卽知神門各在病人兩手關後寸前之位, 診者中指與無名指兩岐之間是也. 今人多不識此, 或指人迎於左關, 或指人迎於左寸, 或指氣口於右關, 或指氣口於右寸, 或指神門於兩關相對者, 皆非也, 學者可不審乎.

45) 或者가 묻기를: 寸·關·尺의 三脈의 部位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다. 그 외에 人迎·氣口·神門의 三脈이 있으니, 그 部位는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말하여 알게 해 주시오.

대답하되: 朱肱의《南陽活人書》를 살펴보면, 左手의 關부위 앞쪽 一分지점을 人迎이라 하였다. 右手의 關부위 앞쪽 一分지점을 氣口라 하였다. 또한 經脈을 살펴보면 左手人迎 앞의 寸口脈이라 말한 것은, 곧 人迎은 病者의 左手의 關부위의 앞, 寸부위의 뒤에 位置하고 있으니, 診脈하는 사람의 右手의 食指와 中指의 兩岐사이가 이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右手氣口 앞의 寸口脈이라 말한 것은, 곧 氣口는 病者의 右手의 關부위의 앞, 寸부위의 뒤에 位置하고 있으니, 診脈하는 사람의 左手의 食指와 中指의 兩岐사이가 이것임을 알 수 있다.《內經》에 또 이르기를: 兩手의 神門 뒤의 尺中脈 곧 神門은 各各 病者의 兩手의 關부위의 뒤 寸부위의 앞에 있으니, 대부분 診脈하는 사람의 中指와 無名指의 兩岐사이가 이것임을 알 수 있다. 요즘 사람은 대부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혹은 左關을 人迎이라 하고, 혹은 左寸을 人迎이라 하고, 혹은 右關을 氣口라 하고, 혹은 右寸을 氣口라 하고, 혹은 兩關의 相對되는 부위를 神門이라 하니 모두 잘못된 것이다. 배우는 者는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46) 或問: 藥性有相畏相惡相反, 而古方多有同爲一劑而用者, 其理何如?

曰: 若夫彼畏我者, 我必惡之, 我所惡者, 彼必畏我, 蓋我能制其毒而不得以自縱也. 且如一劑之中, 彼雖畏我, 而主治之能在彼, 故其分兩, 當彼重我輕, 略將以殺其毒耳; 設我重彼輕, 制之太過, 則盡奪其權而治病之功劣矣. 然藥性各有能毒, 其所畏者畏其能, 所惡者惡其毒耳. 如仲景制小柴胡湯, 用半夏, 黃芩, 生薑三物同劑, 其半夏, 黃芩畏生薑, 而生薑惡黃芩, 半夏, 因其分兩適中, 故但制其慓悍之毒, 而不減其退寒熱之能也. 其爲性相反者, 各懷酖毒, 如兩軍相敵, 決不與之同隊也. 雖然, 外有大毒之疾, 必用大毒之藥以攻之, 又不可以常理論也. 如古方感應丸用巴豆, 牽牛同劑, 以爲攻堅積藥. 四物湯加人蔘, 五靈脂葦, 以治血塊. 丹溪治尸瘵二十四味蓮心散,

以甘草芫花同劑而謂妙處在此. 是蓋賢者眞知灼見方可用之, 昧者固不可妄試以殺人也. 夫用藥如用兵,善用者置之死地而後存, 若韓信行背水陣也, 不善者徒取滅亡之禍耳, 可不愼哉!

46) 或者가 묻기를: 藥性에는 相畏, 相惡, 相反이라는 것이 있는데, 古方에서는 흔히 한 藥劑안에 同用하여 쓰는 경우가 있으니 그 理由는 무엇인가?

대답하되: 만약 저가 나를 畏하면 나는 반드시 저를 惡하고, 내가 惡하는 것은 저도 반드시 나를 畏하니, 대개 내가 능히 그 毒을 制壓하여 저 스스로 放縱하지 않게 한 것이다. 또한 가령 한 藥劑中에 저가 비록 나를 畏하더라도 主治의 效能이 저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그 職分을 들로 나누면 마땅히 저것이 重하고 내가 輕하여 대략 그 毒을 줄여줄 수 있게 된다. 가령 내가 重하고 저가 輕하다면 저를 누름이 너무 지나쳐 그 힘을 모두 빼앗아 病을 치료하는 效能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藥의 性質은 各各 能한 毒을 갖고 있으니, 그가 畏하는 것은 그 能한 面을 畏한이요, 그가 惡하는 것은 그 毒性을 惡할 따름이다. 예를들면 仲景이 만든 小柴胡湯은 半夏, 黃芩, 生薑의 三物을 같이 使用하였는데, 半夏, 黃芩은 生薑을 畏하고 生薑은 黃芩, 半夏를 惡하지만 그 職分이 둘로 나누어 꼭 맞음으로 인하여 단지 그 慓悍한 毒만 制壓하고, 寒熱을 물리치는 效能은 減少하지 않은 것이다. 그 性이 相反되는 것은 各各 지독한 毒을 품고 있어 마치 兩軍이 서로 對敵하고 있는 形象이니 결코 더불어 함께 어울릴 수 없다. 비록 그렇지만 밖으로 大毒의 疾病이 있으면 반드시 大毒이 있는 藥을 써서 攻伐할 것이니 一定한 理致로서 論할 수 없다. 가령 古方의 感應丸[67]은 巴豆, 牽牛를 같이 使用하여 堅積을 치는 藥이 된다. 四物湯에 人蔘, 五靈脂같은 類를 加하여 血塊를 治療한다. 丹溪는 尸瘧을 二十四味蓮心散으로 治療하였는데 甘草, 芫花를 같이 使用하였으니 이른바 妙한 理致가 여기에 있다. 이에 賢明한 者는 진실로 方을 確然히 보고 알아서 使用할 수 있지만, 愚昧한 者는 진실로 妄靈되게 試藥하여 殺人해서는 안된다. 用藥法은 用兵術과 같아 잘 쓰는 者는 死地에 配置한 後에 살아나니 마치 韓信이 背水陣을 친 것과 같다. 잘 쓰지 못하는 者는 한갓 滅亡의 禍를 부를 따름이니, 어찌 삼가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47) 或問: 當歸一物, 雷公謂頭破血, 身和血, 尾止血. 東垣又云頭止血, 身養血, 尾破血. 二說不同, 豈無歸一之論乎? 請明以告我.

曰: 東垣曰: 當歸者, 使氣血各有所歸之功之號也. 蓋其能逐瘀血, 生新血, 使血脈通暢, 與氣并行, 周流不息, 故云然. 又曰: 中半已上, 氣脈上行, 天氣主之, 中半已下,氣脈下行, 地氣主之, 身則獨守於中而不行也, 故人身之法象亦猶是焉. 予謂瘀血在上焦與上焦之血少, 則用去蘆上截; 瘀血在下焦與下焦之血虛, 則用下截之尾; 若欲行中焦之瘀與補中焦之血, 則用中一段之身. 非獨當歸, 他如黃芩, 用上截之虛者以降肺火,用下截之實者以瀉大腸之火, 防風, 桔梗之類亦然, 此千古不易之定論也, 學者詳之.

47) 或者가 묻기를: 當歸 한가지를 놓고 雷公[68]은 "頭는 破血하고, 身은 和血하고, 尾는

67) 感應丸(木香, 肉豆蔻, 丁香 各 一兩半. 百草霜 一兩. 杏仁 一百四十粒 去皮尖. 巴豆 七十粒 去皮心膜하고 研去油)은 寒積으로 인한 瀉痢를 治한다.

68) 雷公: 傳說中의 上古時代의 醫家이며, 黃帝의 臣下로서 針灸學術에 精通한 것으로 전해짐. 傳說에 의하면

止血한다."하였다. 東垣은 또 "頭는 止血하고, 身은 養血하고, 尾는 破血한다."하였다. 두 說이 같지 않으니, 어찌 하나로 歸納하는 定論이 없는가? 청컨대 명확히 밝혀주시오.

대답하되: 東垣이 이르기를 "當歸는 氣血로 하여금 각기 돌아가게 하는 바의 功이 있는 것으로서 이르는 것이다."하였다. 그 效能은 瘀血을 물리치고, 新血을 生하고, 血脈으로 하여금 通暢하게 하여 氣와 더불어 并行하여 온몸을 돌아 끊이지 않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또 이르기를 "中半 以上은 氣脈이 上行하니 天氣가 主하고, 中半 以下는 氣脈이 下行하니 地氣가 主한다. 身은 다만 中을 지켜 行하지 아니한다. 人身의 法象 또한 이와 같다."하였다. 내가 생각컨데 瘀血이 上焦에 있는 경우와 上焦의 血이 적은 경우에는 蘆頭를 뺀 上截한 頭部를 使用한다; 瘀血이 下焦에 있는 경우와 下焦의 血이 虛한 경우에는 下截한 部尾를 사용한다; 만약 中焦의 瘀血을 行하게 하고 中焦의 血을 補하려면 가운데 一段의 身을 사용한다. 단지 當歸뿐만 아니라 기타 黃芩같은 것도 上截한 속이 虛한 곳이 많은 頭部를 사용하여 肺火를 끌어 내리고, 下截한 實한 尾部를 사용하여 大腸의 火를 瀉下시키니, 防風, 桔梗같은 類도 또한 그러하니 이것은 千古에 바뀌지 않는 定論이니 배우는 者는 상세히 알아야 한다.

48) 或問: 黃栢, 地黃之類, 俱忌鐵器蒸搗, 何歟?

曰: 夫地黃, 黃栢之類, 皆腎經藥也. 錢仲陽謂腎有補而無瀉. 又曰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蓋腎乃陰中之少陰, 爲涵養眞元之水臟, 其所以忌鐵器者, 防其伐木瀉肝, 恐子能令母虛也. 竟無他說.

48) 或者가 묻기를: 黃栢과 地黃같은 類는 모두 鐵器에 담아 蒸搗하는 것을 忌避하는데 무엇 때문인가?

대답하되: 무릇 地黃과 黃栢같은 類는 모두 腎經의 藥이다. 錢仲陽은 "腎은 補만 있고 瀉는 없다."하였다. 또 이르기를 "虛한 것은 그 母를 補하고, 實한 것은그 子를 瀉한다."하였다. 대개 腎은 곧 陰中의 少陰으로 眞元을 涵養하는 水臟이니, 鐵器를 忌避하는 까닭은 그것이 木을 伐하고 肝을 瀉하는 것을 防止함이니 子가 母를 虛하게할까 두려워한 때문이다. 결국 별다른 이유는 없다.

49) 或問: 草所載竹茹, 竹葉及烹竹瀝, 皆云用淡竹. 夫竹類頗多, 未審何竹名爲淡竹耶?

曰: 東坡蕘公之方有云: 淡竹者, 對苦竹爲文, 除苦竹之外, 皆淡竹也. 我丹溪先生常用旱筆. 俗名雷竹, 此淡中之淡者也. 此竹又名甜竹, 以其筍之味甜也. 別有一種水竹其筍味純淡. 故已上二竹皆可入藥用, 緣二筍俱無煩辣之味, 故知其無毒故也. 如無二竹, 晩笙竹亦可代用, 餘竹皆不可用也.

49) 或者가 묻기를: 本草에 記載되어 있는 竹茹, 竹葉, 烹竹瀝은 모두 淡竹을 사용한다 하였다. 무릇 竹類는 자못 많은데, 어떤 竹名을 淡竹이라 하는지 아직 살피지 아니하였다.

대답하되: 蘇東坡의 方에 언급이 있으니 "淡竹이란 苦竹에 相對되는 글로 苦竹을 除外한 것은 모두 淡竹이다."하였다. 丹溪先生은 恒常 旱

黃帝와 岐公이 醫藥을 論하여 醫學을 創制하였다고함. 《內經》中의 《著至敎論》, 《示從容論》, 《疏五過論》, 《徵四失論》등 여러 篇이 모두 黃帝와 岐公이 醫學을 論한 體制로 씌어있음. 이는 하나의 傳說을 反映한 것임.

筆을 사용하였는데 俗名으로 雷竹이라 하니이는 淡한 가운데 淡한 것이다. 이 竹을 또한 甛竹이라이름하는데 이는 그 竹筍의 맛이 달기 때문이다. 따로 一種의 水竹이란 것이있는데 그 竹筍의 맛은 純淡하다. 그러므로 위의 二竹은 모두 藥用으로 使用할 수 있다. 緣二筍은 모두 燥辣한 맛이 없으므로 因하여 그러므로 그것에 毒이 없는 까닭을 알 수있다. 만약 二竹이 없다면 晩筆竹으로 또한 代用할 수는 있으나, 나머지 다른 竹은 모두 쓸 수 없다.

50) 或問: 峪表烟瘴之地, 其俗平居無病之人, 朝夕常嚥檳榔, 云可辟除山嵐瘴氣之疾.吾儒有仕於彼地者, 亦隨其俗而嚥之, 果有益乎?否乎?

曰: 按本草檳榔味辛氣溫, 爲純陽之物, 善驅逐滯氣, 散邪氣, 泄胸中至高之氣, 除痰癖下行, 以治後重脫疘之證. 如果有以上諸疾, 用之以佐木香, 苓, 朮等藥, 無不應驗.若無病卽和之胃氣, 而無故朝夕常嚥, 吾恐反泄眞氣, 非徒無益而又害之是也. 嗚呼! 因習之弊, 死而無悔者焉. 羅謙甫曰: 無病服藥, 如壁裏添柱. 誠哉是言也. 嘗聞用藥如用兵, 朝廷不得已而行之, 以御寇耳; 若無寇可平而無故發兵, 不惟空糜糧餉, 抑且害及於無辜之良民也, 戒之戒之!

50) 或者가 묻기를: 峪南의 烟瘴이 表出하는 地方에, 그 風俗에 安居하는 病없는 사람이 朝夕으로 항상 檳榔을 씹어 먹는데 山嵐瘴氣의 疾患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儒生들이 그 地方에 벼슬을 하고 있는 者는 그 風俗에 따라 그것을 씹어 먹는데 과연 이익 됨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대답하되: 本草書를 살펴보면 檳榔의 氣味는 辛溫하여 純陽의 物이 되니, 滯氣를잘 몰아내고, 邪氣를 發散시키며, 胸中에 지극히 차오르는 氣를 泄하고, 痰癖을 除去하여 下行시킴으로써 後重脫疘의 證을 治療한다. 만약 以上의 疾患이 있으면 그것을 使用하되 木香, 黃芩, 白朮등 藥을 佐藥으로 사용하면 效驗에 相應하지 않음이 없다. 만약 病이 없고 沖和 胃氣에 까닭없이 朝夕으로 恒常 씹어 먹으면 나는 도리어 眞氣를 泄할까 두렵다. 단지 利益이 없을 뿐만아니라 또한 胃氣를 헤칠 것이다. 오호라! 因習의 弊端이여. 죽어도 후회하는 者가 없구나. 羅謙甫가 이르기를 "病이 없는데 服藥하는 것은, 마치 壁속에 기둥을 더 넣는 것과 같다."하였으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 일찍이 듣건대 藥을 쓰는 것은 用兵하는 것과 같다고 들었는데, 朝廷에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施行하여 盜賊을 막을 뿐이다. 만약 盜賊이 없으면 和平하게 할 것이나 兵士를 일으킨다면, 오직 헛되이 粮餉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피해가 무고한 良民에게 미칠 것이니, 警戒하고 또 警戒해야 할 것이다.

51) 或問: 婦人產後諸疾, 古方多用四物湯加減調治. 我丹溪先生獨謂芍藥酸寒, 能伐發生之氣, 禁而不用, 何歟?

曰: 新產之婦, 血氣俱虛之甚, 如天地不交之否, 有降無升, 但存秋冬肅殺之令, 而春夏生發之氣未復, 故產後諸證, 多不利乎寒凉之藥, 大宜溫熱之劑, 以助其資始資生之化源也. 蓋先哲制四物湯方, 以川芎, 當歸之溫, 佐以芍藥地黃之寒, 是以寒溫適中, 爲婦人諸疾之妙劑也. 若或用於產後, 必取白芍藥以酒重復制炒, 去其酸寒之毒, 但存生血活血之能, 胡爲其不可也. 後人傳寫既久, 脫去制炒注文, 丹溪慮夫俗醫曲解, 不制而用之, 特擧其爲害之由以戒之耳. 若能依法制炒爲

用, 何害之有哉, 學者其可不知此乎.

51) 或者가 묻기를: 婦人産後의 모든 疾患은 古方에서 대개 四物湯에 加減하여다스렸다. 우리 丹溪先生만 홀로 "芍藥은 酸寒하여 能히 發生의 氣를 攻伐하니 禁하여 使用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어째서인가?

대답하되: 新産의 婦人은 血氣가 모두 심하게 虛하여, 마치 天地가 不交하는 否卦의 形象과 같아서 下降 上升하지는 못하고 단지 秋冬의 肅殺하는 時令만 存在하고, 春夏의 生發하는 氣는 아직 回復되지 않았으므로 産後諸證에는 대부분 寒涼한 藥은 이롭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溫熱한 藥이 마땅하니 그 資始資生하는 變化의 根源을 돕기 위해서다. 대개 先哲이 四物湯方을 制定할 때 川芎, 當歸의 溫性으로써 芍藥, 地黃의 寒性을 輔佐하여 이로써 寒溫이 서로 알맞게 하였으니 婦人諸疾의 妙劑가 되었다. 만약 혹 産後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白芍藥을 取하여 酒에 담궈 거듭 炒하여 그 酸寒한 毒을 除去하고 다만 生血 活血하는 效能을 存在케 한다면 어찌 그것을 使用할 수 없다고 하겠는가? 後人이 筆寫하여 傳來함이 이미 오래되어 制炒하라는 注文이 빠져버린 것이다. 丹溪는 俗醫가 소홀히 생각하여 法製하지 않고 사용할까 우려해서, 특별히 그것이 害가 되는 이유를 들어 警戒한 것일 뿐이다. 만약 능히 法에 의거하여 制炒한 것을 使用한다면 무슨 害가 있겠는가? 배우는 者가 이것을 알지 않을 수 있겠는가?

III. 總括 및 考察

《醫學或問》은 盧搏이 임의로 五十一項目의 問答을 設定하여, 《黃帝內經》(이하 《內經》이라 함)·《難經》·《脈經》·《傷寒雜病論》 및 各家學說에 대한 당시 醫家들의 疑難한 問題들을 거론하고, 또한 어떤 논리적 근거없이 世俗化되어 오던 譏諱的이고 巫術的인 醫療行爲에 대하여 비판을 한 論說集이다. 그의 견해는 《內經》을 근본으로 하여, 實事求是的인 입장에서 여러 문제들을 批判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하였고, 또한 簡明한 論辨과 독특한 견해로 前代의 未盡한 醫理를 확충하여 後世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그의 견해에도 《內經》의 原旨와 違背되는 경우를 일부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그 중 卓越한 見解와 문제가 있는 醫論에 대하여 是非를 分辨하여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1. 或問 3條는 《素問·六微旨大論篇》에 나오는 運氣學의 重要理論인 "亢則害, 承乃制"에 관한 것으로, 盧搏은 王安道 《醫經溯回集》의 《內經》 註釋 理論을 吸收하여, 自身의 意見을 敷衍 說明하였다. 王安道는 《醫經溯洄集》에서 "'亢則害, 承乃制'의 두 句節은 그 過를 抑制함을 말한다. '制則生化'에서 '生化大病'까지의 네 句節은 有制之常과 無制之變을 말함이다. 承은 隨와 같다. 그러나 隨라 말하지 아니하고, 承이라 한 것은 아래로써 말하면 곧 위로 받드는 形象이 있으므로 承이라 한다. 비록 그것을 承이라 하여도 防止한다는 뜻이 存在한다. 亢은 過極이다. 害는 事物을 害함이다. 制는 그것을 克勝함이다. 그러나 承하는 바는 그것이 亢極하지 않으면 隨할 뿐이다. 그러므로, 비록 承하더라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미 亢極하면 承하는 것이 능히 勝壓하여 亢極한 氣를 平正하게 하니 承이 이에 드러난다. … 우선 心火로써 말하자면, 그 心火가 亢하지 않으면 腎水는 비록 心火

가 두려워하는 바이지만, 또한 그것을 防止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 만약 亢極함이 있으면, 腎水는 곧 興起하여 그 心火를 克勝한다."[69]하였다. 虞搏은 이에 부연하여 이르기를 "害는 承하는 것의 元氣를 害하는 것이요, 制는 그 氣의 太過를 制止하는 것이다."라 하고, 王安道가 예시한 火의 경우를 들어 "火가 亢極하지 않으면 承하는 水는 그것을 따를 뿐이지만, 한번 亢極하면 水는 興起하여 火를 平正하니, 생각컨데 自身의 金元之氣가 損傷됨을 두려워하여, 자식이 와서 어미를 구하는 뜻일 것이다. 이것이 五行勝復의 理致이니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하여, 王安道의 說을 擴充하였다. 그러나 '外列盛衰'에 대해, 王安道는 "六氣가 分布하여 主治함에 盛과 衰를 이룸이 분명하게 볼 수 있으니 外列이라 말한 것이다."[70]라 하였고, 虞搏은 "承하는 것은 力이 衰하고 亢하는 것은 極盛하여 그것을 制止함이 다함이 없다. 天地에 있어서 六淫이 되고, 人身에 있어서 六疾이 됨을 말한 것이다."[71]리 하여, 王安道는 制하였을 경우에 外로 드러나는 生理的 變化를 말하였고, 虞搏은 制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病理的 變化를 말하였는데, 制則生化와 害則敗亂이 서로 對句가 되므로, 이에 대한 註釋은 王履의 註釋이 이치에 맞다고 思料된다.

2. 虞搏은 或問 4條에서 氣虛·血虛·陽虛·陰虛를 區分 說明하였는데, 氣虛는 氣中의 陰虛, 血虛는 血中의 陰虛, 陽虛는 心經의 元陽虛, 陰虛는 腎經의 眞陰虛라 하여, 그 槪念을 明白히 하였다. 여기서 陽虛나 陰虛는 元陽 및 眞陰의 虛損으로 보았기 때문에, 氣虛나 血虛보다 虛損의 상태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虞搏 이전에는 《內經》·《難經》 등의 醫書에서 氣虛·血虛·陰虛·陽虛등이 여러 篇에 각기 分散되어 言及어 나오지만, 이처럼 한 곳에 對比하여 論한 경우는 없었다. 현재 中國 醫書에서 虛勞證을 氣虛와 陽虛, 血虛와 陰虛의 四種으로 분류하고, 다시 氣虛를 肺氣虛와 脾氣虛로, 血虛를 心血虛와 肝血虛로, 陽虛를 脾陽虛와 腎陽虛로, 陰虛를 肺陰虛·心陰虛·脾胃陰虛·肝陰虛·腎陰虛등으로 구분하여 辨證論治하는 방법[72]은, 虞搏의 이러한 四分法과 상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여기서 氣虛를 氣中의 陰虛라 한 것은, 아마 氣는 그 象을 스스로 볼 수 없고, 形質을 띤 陰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언급한 것 같다. 또 朱丹溪 《格致餘論》의 "陽常有餘, 陰常不足論"에서의 陽을 氣로, 陰을 血이라 하여 誤認하는 경우를 바로 잡았다. 즉 어리석은 醫師들은 氣虛를 陽虛라 하여 四君子湯만 쓸 것이요, 川芎·細辛같은 藥은 쓰면 안된다고 한 것과, 血虛를 陰虛라 하여 四物湯만 쓸 것이요, 人蔘·黃芪같은 藥을 쓸 수 없다고 한 醫論에 대해서, 東垣의 "陽이 旺盛하면 能히 陰血을 生한다.", "血脫하면 益氣하는 것이 옛 聖人의 法이다."한 說과, 丹溪의 "產後에는 大補氣血을 爲主로 해야 한다."한 說을 引用하

69) 裘沛然, 中醫歷代各家學說(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 139. "亢則害·承乃制"二句, 言抑其過也. "制則生化"止"生化大病"四句, 言有制之常, 與無制之變也. 承, 猶隨也. 然不言隨而曰承者, 以下言之, 則有上尊之象, 故曰承. 雖謂之承, 而有防之之義存焉. 亢者, 過極也. 害者, 害物也. 制者, 克勝之也. 然所承也, 其不亢, 則隨之而已, 故雖承而不見. 旣亢, 則克勝以平之, 承斯見矣. … 姑以心火而言, 其不亢, 則腎水雖心火之所畏, 亦不過防之而已, 一或有亢, 卽起而克勝之矣."

70) 前揭書, p. 140. "言六氣分布主治, 爲盛衰, 昭然可見, 故曰外列."

71) "言所承者力衰, 而所亢者極盛, 制之不盡耳, 在天地則爲六淫, 在人身則六疾."

72) 上海中醫學院編, 中醫內科學(商務印書館, 1975), pp. 126~134.

여 陽生하면 곧 陰長하는 理致를 밝혔는데, 이는 氣血이 서로 分離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이 陽生陰長의 理致는 後代의 溫補學派및 扶陽論의 基本理論 形成에 啓導的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진다.

3. 或問 5條는 四診法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內經》에 依據하여 論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望·聞·問·切의 四診이 아니고, 形·聲·色·脈으로 말한 것이 특이하다. 여기서 形과 色은 望診에 해당하고, 聲은 聞診에 해당하고, 脈은 切診에 해당한다. 단지 問診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醫師가 患者를 보는 觀點에서 問診이 醫師의 예민한 감각을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직극성을 요하는 望·聞·切診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당시의 일부 醫師들이 脈診에만 의존하여 診斷하는 좋지 않은 風土에 대하여 警戒하는 동시에 소홀히 하기 쉬운 觀形察色에 대하여 重要性을 强調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或問 7條에서는 三焦와 心包絡의 有形·無形說에 대한 自身의 見解를 밝혔는데, 그는 有形說의 입장에서 三焦는 그 體에 脂膜이 있고 腔子之內에 位置하고 있어 六臟五腑의 外를 싸고 있고, 心包絡은 실제로 心을 싸고 있는 膜이라 말하였다. 三焦의 機能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明代 이후 거의 一致하고 있으나, 그 形體에 대한 歷代醫家들의 견해는 有形論과 無形論으로 兩分되어 오늘날까지 계속 論爭의 對象이 되고 있다.[73] 無形論은 《難經》에서 비롯되었는데, 즉 二十五難에서 "心主與三焦爲表裏, 俱有名而無形"이라 하고, 또 三十八難에서 "所以腑有六者 謂三焦也, 有原氣之別焉 主持諸氣 有名而無形"이라 하였다.[74] 그 후 《華陀中藏經》에서 "三焦者 人之三元之氣也 …… 名雖三而歸一有名而武形者也"라 하였고[75], 唐代 《千金方》에서도 "三焦者 一名三關也 …… 有名無形"이라 하여 無形論을 主張하였다.[76] 반면에 有形論은 《靈樞·本藏篇》에 "密理厚皮者三焦膀胱厚, 麤理薄皮者三焦膀胱薄",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이라 하였고, 또 《論勇篇》에서 "勇士者 目深以固 長衡直揚 三焦理橫, …… 怯士者 目大而不減陰陰陽相失 其焦理縱"이라 하여, 三焦에도 厚·薄과 腠理의 橫·縱등으로 形體를 구분하여 언급하였다. 그 후 宋代 陳言은 "三焦者 見右腎下有脂膜如手大者 正與膀胱相對 有二白脈自其中出夾脊而上貫膂"라 하여 具體的으로 손바닥만한 脂膜이 있다 하였고[77], 明代 馬蒔도 有形論을 主張하였다. 心包絡의 形體에 대해서는 《內經》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고, 《難經》에서 처음으로 無形이라 하였다. 특히 張介賓은 《類經附翼》의 三焦心包絡辨에서 "惟虞天民曰, 三焦者指腔子而言, 總曰三焦其體有脂膜在腔子之內, 包羅乎五臟六腑之外也, 此說近之.[78]"라 하여, 虞搏의 三焦·心包의 有形說을 그대로 引用하여 가장 理致에 가깝다고 하였다. 따라서 虞搏은 三焦와 心包絡의 實質形狀에 대해 《內經》에 根據하여 가장 수긍할 만한 주장을 편 最初의 醫家라고 볼 수 있다.

73) 金重漢, "張介賓의 醫學思想과 理論批判에 對한 硏究", 博士學位論文(慶熙大學校大學院, 1986), p. 13.

74) 滑壽, 難經本義(臺北 : 旋風出版社, 1977), pp. 31. 44.

75) 華陀, 華陀中藏經(臺北 : 自由出版社, 1978), p. 27.

76) 孫思邈, 備急千金要方(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 362, 363.

77) 陳無擇, 陳無擇三因方, 卷八(臺北 : 旋風出版社, 1973), p. 8.

78) 張介賓, 類經圖翼(서울 : 大星出版社, 1990), p. 269.

5. 或問 10條에서는 《內經》 以前 春秋時代의 醫家인 醫和의 六淫之邪인 風·雨·陰·陽·悔·明과, 《內經》에서 말한 風·寒·暑·濕·燥·火의 六氣의 太過가 서로 같음을 논리적으로 說明하였는데, 즉 醫和의 陰淫寒疾이란 곧 《內經》에서 말한 太陽寒水之令이 太過하여 寒疾이 되고, 陽淫熱疾이란 곧 少陽相火之令이 太過하여 熱疾이 되고, 風淫末疾이란 곧 厥陰風木之令이 太過하여 末疾이 되고, 雨淫腹疾이란 곧 太陰濕土之令이 太過하여 腹疾이 되고, 晦淫惑疾이란 곧 陽明燥金之令이 太過하여 瘦疾이 되고, 明淫心疾이란 곧 少陰君火之令이 太過하여 心疾이 된다 하였다. 이는 醫和의 六氣說을 三陰三陽에 結付시켜 說明한 創見이라고 볼 수 있다.

6. 或問 14條에서는 《難經》의 "左腎右命門說"에 관하여 언급한 것인데, 虞搏은 "兩腎兩命門說"을 主唱하였다. 命門이라는 名稱은 《素問·陰陽離合論》과 《靈樞·根結》에 "太陽根於至陰, 結於命門, 命門者目也."라 하여 처음 나왔으나, 腎과 命門의 關係에 대하여 《難經·三十六難》에서 "腎兩者, 非皆腎也.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 命門者, 諸神精之所舍, 原氣之所繫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라 하여, 처음으로 二腎을 구분하여 左腎은 腎이요, 右腎은 命門이라 하였다. 그 후 宋代에 이르러 許叔微와 嚴用和가 "左腎 右命門說"에 근거하여 腎에 眞火가 있다는 문제를 提示하였는데, 그것이 明代에 이르러 보다 체계화되었다.[79] 그 중 虞搏은 王叔和가 三焦와 命門이 짝이 되어 表裏를 이룬다고 한 說을 取하되, 《難經》의 "左腎 右命門說"을 반대하고 兩腎이 모두 水臟으로써 眞元의 根本이 되고 性命의 關鍵이 된다 하였고, 또 相火가 그 속에 寓居하고 있어 兩腎이 곧 命門이 된다 하였다. 이후 明代의 溫補學派인 孫一奎는 《命門圖說》에서 "命門乃兩腎中間之動氣"[80]라 하였고, 張介賓은 《類經附翼·求正錄》"是命門總主乎兩腎, 而兩腎皆屬于命門"[81]이라 하였는데, 이들의 論說은 곧 虞搏의 命門에 대한 觀點에 一定한 영향을 받았다고 思料된다.

7. 或問 19條에서 虞搏은 《難經》 五十三難의 '七傳者死, 間臟者生'에 대하여 "이는 虛勞의 證을 말한 것으로, 心病앞에 '腎病傳心'의 一句가 빠져 있고 '一臟不再傷'을 '三臟不再傷'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그 理由에 대해 "대개 虛勞의 證은 반드시 腎經에서 시작된다. 五臟이 相剋을 따라 逆傳하여 이미 다하면 또한 다시 腎과 心에 傳하니 곧 水는 絶滅하고 火는 大旺하므로 죽는 것이요 다른 三臟에는 다시 再傳하지 않는 것이다."[82]라 하여, 虛勞의 證이므로 반드시 腎에서 부터 시작한다는 점과, 相剋을 따라 逆轉을 다한 후 다시 腎과 心에 전해져 死하고, 나머지 三臟인 肺·肝·脾에는 다시 전해질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難經本義》에서 말하기를 "《素問·標本病傳論》과 《靈樞》 四十二篇을 자세하게 보면 二經에서의 뜻은 곧 五臟과 胃, 膀胱의 일곱 개로써 서로 傳하는 것으로써 그 예를 들었고 그 篇의 題目을 모두 病傳으로써 명칭을 삼았다.[83] 지금 越人은 七傳

79) 洪元植, 中國醫學史, pp. 240~241.

80) 中國醫學大系, 卷三十四(서울 : 麗江出版社, 1986), pp. 1083~1096

81) 張介賓, 類經圖翼(서울 : 大星出版社, 1990), pp. 269~270.

82) "蓋虛勞之證, 必始於腎經, 五臟從相剋而逆傳, 已盡又復傳於腎與心, 則水絶滅而火大旺, 故死而不復再傳彼之三臟矣."

83)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p. 231~232. 《素問·標本病傳論》에 "夫病傳者, 心病, 先心痛, 一日而欬, 三日腸支痛, 五日閉塞不通, 身痛體重, 三日不已, 死, 冬夜半, 夏日中, … 間一

과 間臟하는 것을 指目하여 二經의 내용으로 추리하여 밝혔다. 가령 心을 예로 들어 病이 相傳하는 것을 본다면 만약 이기는 바에 傳하면 一臟이 再傷함에 이르면 곧 死하게 되고, 만약 그 이기는 바에 間하는 臟이 있으면 이것은 子母가 서로 傳하니 곧 生이 되는 것이다."[84]라고 되어 있다. 또 《難經古義》에는 "《素問》과 《靈樞》는 五臟및 胃, 膀胱의 일곱 가지를 들어 病傳을 論하였는데 《難經》 五十三篇은 단지 五臟이 再傷하는 것을 七傳이라고 하였고 腑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니 《難經》이 《內經》과 다른 까닭은 무엇인가? 그 後篇에 나오는 臟腑病에 치료하기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있다는 등의 說을 보면 곧 그 뜻이 비슷하여 서로 어그러지지 않는 듯하다. 오직 越人은 臟腑의 두 病을 나누어서 그 뜻을 말했을 뿐이다."[85]라고 하였다.

그 외 다른 註釋家들은 七傳, 間臟, 一臟不再傷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心病이 傳變을 시작할 때 心病이 一傳이요 心病이 肺로 傳하는 것이 二傳이요 肺病이 肝으로 傳하는 것이 三傳이요 肝病이 脾로 傳하는 것이 四傳이요 脾病이 腎으로 傳하는 것이 五傳이요 腎病이 心으로 傳하는 것이 六傳이요 최후에 心病이 다시 肺로 傳하는 것이 七傳으로 肺가 다시 病을 받을 수 없으므로(一臟不再傷) 죽는다."고 하였다. 또 다른 견해로 明代 樓英은 《醫學綱目》에서 말하기를 "七傳이라는 것은 마땅히 次傳으로 고쳐야 한다. '次傳者死'라고 하는 것은 곧 《素問》과 《靈樞》 二經의 病傳論에서 말한 '諸病以次相傳, 皆有死期, 不可刺者死.'라는 것이 이것이다. 間臟者生이라는 것은 곧 《素問》과 《靈樞》 二經의 病傳論에서 말한 '間一臟, 及至三四臟, 乃可刺者.'라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 醫家들의 주장은 각기 《難經》 原文에 대한 註釋이 다르지만 또한 각기 論理를 갖추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虞摶이 이 條文을 虛勞의 證에 관한 것으로 局限하여, 반드시 腎에서 病이 시작한다는 점과 逆轉하여 死한 후 나머지 三臟에 다시 傳해질 수 없다고 한 說明도 理致는 있지만 절대성은 없으며, 굳이 原文을 바꾸어 가면서 까지 七傳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단지 自意的인 관점에서의 註釋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8. 或問 23條에서 虞摶은 針灸의 補瀉問題에 관해 언급하였다. 즉 灸는 寒熱虛實을 不問하고 모두 灸할 수 있다고 본 반면, 針은 補의 작용이 없어 虛證에 사용할 수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靈樞·九鍼十二原》의 "補者隨而濟之"라 한 經文을 들어 설명하였는데, 虞摶은 "針으로 經脈에 가는 氣를 따라서 놓아 正氣를 더불게 하나, 반드시 虛를 補하는 것은 아니다."라 하였고, 그러한 根據로써 《內經》의 十二禁刺를 提示하였다. 그러나 《內經》을 살펴보면 《靈樞·九鍼十二原篇》에 "凡用鍼者, 虛則實之, 滿則泄

臟止, 及至三四臟者, 乃可刺也."라 하였다.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p. 198~199. 《靈樞·病傳篇》에 "黃帝曰, 大氣入臟, 奈何. 岐伯曰, 病先發於心, 一日而之肺, 三日而之肝, 五日而之脾, 三日不已, 死. 冬夜半, 夏日中, 一諸病以次相傳, 如是者, 皆有死期, 不可刺也. 間一臟, 及二三四臟者, 乃可刺也."라 하였다.

84) "詳見本篇, 及靈樞四十二篇. 但二經之義, 則以五臟與胃膀胱七者相傳, 發其例, 而其篇題皆以病傳爲名. 今越人則以七傳, 間臟之目推明二經, 假心爲例, 以見病之相傳, 若傳所勝, 至一臟再傷則死. 若間其所勝, 是子母相傳則生也."

85) "靈樞畢五臟及胃膀胱七者以論病傳, 此篇獨謂五臟再傷爲七傳, 而不言及腑, 此乃所以與經異者何. 其厥後篇臟腑病有治之難易等說, 則其義似不相戾. 唯越人分別臟腑二病言其義耳."

之"[86]라 하여, 用針者는 虛하면 實하게 하여야 한다 하였고, 또 "凡將用鍼, 必先診脈, … 五臟之氣, 已絶於內, 而用鍼者, 反實其外, 是謂重竭, 重竭必死, … 五臟之氣, 已絶於外, 而用鍼者, 反實其內, 是謂逆厥, 逆厥則必死."[87]라 하여, 五臟의 氣가 이미 內絶한데 用針者가 도리어 그 外를 實하게 한 것을 "重竭"이라 하여 죽고, 五臟의 氣가 이미 外絶한데 用針者가 도리어 그 內를 實하게 한 것을 "厥逆"이라 하여 죽는다 하여, 針으로 잘못 實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言及이 있다. 또한 《靈樞·刺節眞邪篇》에서는 "凡刺小邪, 日以大, 補其不足, 乃無害"[88]라 하여, 小邪에는 正氣의 不足을 補하여야 害가 없다 하였다. 또 《素問·離合眞邪論》에서는 "吸則內鍼, 無令氣忤, 靜以久留, 無令邪布, 吸則轉鍼, 以得氣爲故, 候呼引鍼, 呼盡乃去, 大氣皆出, 故命曰瀉, … 呼盡內鍼, 靜以久留, 以氣至爲故, 如待所貴, 不知日暮, 其氣以至, 適而自護, 候吸引鍼, 氣不得出, 各在其處, 推闔其門, 令神氣存, 大氣留止, 故命曰補."[89]라 하여, 補瀉의 方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提示하였고, 《素問·鍼解篇》에는 "刺虛則實之者, 鍼下熱也, 氣實乃熱也. 滿而泄之者, 鍼下寒也, 氣虛乃寒也, … 言實與虛者, 寒溫氣多少也, … 補瀉之時者, 與氣開闔相合也, 九鍼之名, 各不同形者, 鍼窮其所當補瀉也."[90]라 하여, 虛와 實에 針刺하여 熱과 寒을 發生시킨다 하여 針으로 陽의 活動을 補助할 수 있음을 말하였고, 또 針으로 마땅히 補瀉해야 할 바를 다해야 한다 하였다. 이러한 《內經》의 經文을 根據로 하여 明代 楊繼洲의 鍼灸大成등 後代의 針灸學에 있어서의 補瀉理論이 크게 發展하였으니, 針에 補가 없다고 말한 견해는 지나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虞搏은 앞서 灸의 경우에는 寒熱虛實을 不問하고 灸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針의 경우에는 《內經》의 十二禁刺를 根據하여 補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灸를 施行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문제에 局限해서 본다면 虞搏의 견해를 인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針의 補瀉問題에 있어서는 무리이며 또 《內經》의 原旨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虞搏 자신은 앞의 或問 1條에서 王肅가 "針能殺生人而不能起死人者"라 것에 대해 一偏의 見解일 뿐이라고 批判하였는데, 여기서는 一偏의 見解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9. 或問 24條는 藥物의 性味에 관해 論한 것인데, 生地黃은 血脈을 生하지만 胃를 損傷시켜 飮食을 먹지 못하게 할까 두려워하였고, 熟地黃은 補血生血하지만 胸膈을 泥滯하여 氣運을 잘 疏通시키지 못하게 할까 두려워하였고, 白芍藥은 凉血益血하지만 發生之氣를 攻伐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이는 후대의 張介賓이 熟地黃에 行氣溫陽之劑인 附子·肉桂·乾薑등을 加하여 쓰고, 石谷 李圭峻이 熟地黃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은 熟地黃이 泥滯하기 때문이고, 白芍藥을 드물게 사용한 것은 生發之氣를 沮害하기 때문이라는 說과 附合된다. 이로 보아 溫補學派인 張介賓과 扶陽論의 石谷 李圭峻이 用藥함에 있어서, 虞搏의 이러한 醫論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매우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10. 或問 33條는 小兒喘息에 관한 것으로,

8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 11.

87) 前揭書, p. 12.

88) 前揭書, p. 316.

8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 104.

90) 前揭書, p. 193.

虞搏은 世俗에서 安碓, 作灶, 浚井塡塞, 開通洫渠등의 일을 할 때 우연히 小兒가 氣喘을 發하면, 土皇을 犯했다 하여 부적을 태우는 등의 呪術法을 施行하는 잘못된 폐단을 指摘하고, 小兒氣喘의 原因과 治法을 밝혔다. 虞搏은 原因으로 風寒外束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吐瀉後의 中氣不足으로 온다 하였다. 治法으로 風寒外束일 경우에는 錢乙의 瀉白散·三拗湯을 쓰고, 中氣不足일 경우는 錢乙의 益黃散·東垣의 補中益氣湯이나 혹 伏龍肝을 쓴다고 하였다.

11. 或問 35條에서는 기계적인 運氣法을 批判하였다. 즉 馬宗素등이 主張하는 運氣鈐法은 病者의 發病原因을 重視하지 않고, 病者가 태어난 年·月·日·時와 病이 든 日期를 重視하여 五運六氣와 結付시켜 기계적으로 傷寒六經證候와 맞추고, 또 張仲景의 傷寒方을 取하여 다스리는 것으로, 虞搏은 이러한 폐단을 指摘하였다.

12. 虞搏은 或問 36條에서 龐安常의 《傷寒總病論》에 記載되어 있는 《聖散子方》에 대한 龐安常의 誤用을 指摘하였다. 龐安常은 《聖散子方》이 瘟疫의 疾病에 어떠한 경우를 不問하고 使用할 수 있다 하였고, 더욱이 平素에라도 空服에 服用하면 飮食이 甘美롭고, 百疾이 不生하므로 濟世衛家하는 寶物이라고 하였는데, 虞搏은 이 方이 當時의 瘟疫의 身熱無汗이나, 혹은 病의 日期가 오래되어 邪氣가 물러가려 하고 正氣가 장차 回復되려 하는 때에 우연히 한 두 번 投與하여 邪氣가 물러쳐진 경우가 있었다 하였고 이를 神仙의 方으로 여기는 것은 世上에서 訛傳된 것이라 하였다. 이 方은 燥熱·助火한 方劑로 특별한 祛邪·除瘴의 效能이 없기 때문에 誤用하면 害가 될 수 있다 하여 당시 名醫의 著書에 記載된 過誤를 밝혀서 時弊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

13. 或問 38條에서는 嶺南烟瘴의 地方에 많이 나타나는 砂病은 《內經》에서 언급한 解㑊의 症狀과 비슷하므로, 인하여 世俗에서 잘못 認識하고 있음을 指摘하고 治療 方法도 달리해야 함을 밝혔다.

14. 或問 41條에서 虞搏은 上古時代의 아직 毒藥과 針石이 생겨나지 않았을 때 巫醫들이 行한 순수한 精神的 治療 方法으로, 呪語를 빌어 迷惑한 마음을 풀고 精神을 安定시키는, 이른바 移情變氣의 術을 行하던 "祝由"가, 師巫·降童·師婆들에 의하여 人民을 眩惑하여 財物을 取하는 術法으로 變質된 것에 대하여 非難하였다.

15. 或問 43條에서 虞搏은 人의 壽·夭가 다른 이유를 天地 父母의 元氣 즉 父精母血의 盛衰가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아, 父母 양쪽 모두에게서 盛한 氣運을 받으면 마땅히 上中의 壽를 얻고, 한쪽에서만 盛한 氣運을 받으면 中下의 壽를 얻고, 양쪽 모두에게서 衰한 氣運을 받으면 능히 保養을 잘 해야만 下壽라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夭折하는 경우가 많다 하고, 또한 風寒暑濕의 外感과 飢飽勞役의 內傷을 입은 경우에는 稟受한 元氣를 다하지 못한다 하였다. 이는 先天의 元氣와 後天의 攝生 모두를 重視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당시에 사람들이 해야 할 道理를 다하고 天命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自身의 命運을 天命에만 내맡기고 攝生을 소홀히 하거나, 疾病이 생겨서는 무당의 말만 믿고 醫師의 말을 믿지 않는 것 등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指摘하였다.

16. 或問 44條에서 虞搏은 人迎·氣口脈에 대하여 王叔和의 《脈經》과 朱肱의 《南陽活人書》의 見解를 따라 說明하였다. 원래 氣口의 의미는 《素問·五臟別論》에서 "胃者水穀之海,

六腑之大源也. 五味入口, 藏於胃以養五臟氣, 氣口亦太陰也. 是以五臟六腑之氣味, 皆出於胃, 變見於氣口."[91]라 하여 手太陰經脈의 堯側骨 太淵穴·經渠穴등의 搏動部를 지칭하였고, 人迎에 대하여는 《靈樞·寒熱病》에 "頸側之動脈人迎, 人迎, 足陽明也."[92]라 하여 足陽明胃經의 路線인 結喉 兩側 總頸動脈 搏動處를 뜻하였다. 王叔和의 《脈經》에 와서는 《內經》의 원뜻과 다르게 解釋하여 "左手寸口脈을 人迎이라 하고, 右手寸口脈을 氣口다."라고 명칭하였고, 또 朱肱의 《南陽活人書》에서는 "左手의 關前 一分이 人迎이요, 右手의 關前 一分이 氣口다."라 하였다. 虞搏은 이러한 王叔和의 《脈經》과 朱肱의 《南陽活人書》의 理論을 그대로 따라서 설명하였는데, 이는 당시 金元四大家등 많은 醫家들에게 유행한 左手人迎脈이 盛하면 外感이요, 右手氣口脈이 盛하면 內傷이라는 學說을 追從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점은 《內經》을 중시하는 虞搏에 있어서 하나의 愚見이라 볼 수 있다.

9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東洋醫學研究院, 1985), p. 42.

9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東洋醫學研究院, 1985), p. 130

Ⅳ. 結 論

虞摶(1438-1515)은 明代 醫家로서 《醫學正傳》을 著述하였는데, 그 가운데 《醫學或問》은 그의 醫學的 觀點을 論述한 것이다.

《醫學或問》에 나타난 그의 독특한 見解를 考察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亢則害, 承乃制"는 五運六氣의 핵심이 되는 理論으로, 王安道는 害는 亢極한 氣가 克하는 五行의 氣를 害하는 것이고, 制는 그 亢極한 氣를 抑制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우단은 그 뜻을 繼承하여, 害는 承하는 것의 母氣를 害하는 것이요, 制는 承하는 氣가 그 太過한 氣를 抑制하여 害를 받는 그 母를 구하는 것이라 하여, 그 의미를 敷衍 擴充하였다.

2. 氣虛·血虛·陽虛·陰虛를 구분하여, 氣虛는 氣中의 陰虛, 血虛는 血中의 陰虛, 陽虛는 心經의 元陽虛, 陰虛는 腎經의 眞陰虛라 하였는데, 이는 後世에 虛勞證을 氣虛, 血虛, 陽虛, 陰虛의 四種으로 分類하여 辨證論治하는 방법의 선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形·聲·色·脈을 四診이라 하여, 醫師의 예민한 감각을 필요치 않는 問診을 빼고 적극성을 要하는 望·聞·切診을 강조하였으며, 당시의 일부 醫師들이 脈診에만 의존하여 진단하는 좋지 않은 풍토를 경계한 반면 소홀히 하기 쉬운 觀形察色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三焦心包絡의 有形·無形說에 대해 "三焦는 그 體에 脂膜이 있고 腔子之內에 位置하고 있어 六臟五腑의 外를 싸고 있고, 心包絡은 실제로 心을 싸고 있는 膜이다"하여, 그 實體를 《內經》에 根據하여 가장 수긍할 만한 주장을 다.

5. 醫和의 六淫之邪인 風·雨·陰·陽·晦·明을, 一年 8六氣의 時令인 厥陰風木, 太陰濕土, 太陽寒水, 少陽相火, 陽明燥金, 少陰君火로써 說明하여, 醫和의 六氣說과 《內經》의 六氣說이 서로 相通함을 밝혔다.

6. 《難經》의 "左腎右命門說"을 반대하고 "兩腎兩命門說"을 주창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孫一奎가 "命門乃兩腎中間之動氣"라 한 說과, 張介賓이 "是命門總主乎兩腎, 而兩腎皆屬于命門"이라 한 說등 後代 溫補學派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7. 炎는 寒熱 虛實을 불문하고 모두 使用할 수 있으며, 鍼은 補의 작용이 없어서 虛證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內經》에서 "凡用鍼者, 虛則實之, 滿則泄之"라 하고, 또 "刺虛則實之者, 鍼下熱也, 氣實乃熱也. 滿而泄之者, 鍼下寒也, 氣虛乃寒也"라 한 의미에 違背되니, 이는 《內經》의 原旨를 벗어난 一偏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8. 藥物의 性味에 관하여 生地黃은 血脈을 生하지만 胃를 손상시키고, 熟地黃은 補血生血하지만 胸膈을 泥滯하고, 白芍藥은 凉血益血하지만 發生之氣를 攻伐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後代의 張介賓이 熟地黃에 行氣溫陽之劑를 加하여 쓰고, 石谷 李圭曉이 熟地黃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 및 白芍藥을 드물게 사용한 것등 溫補學派와 扶陽學派의 用藥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9. 實事求是的인 입장에서 당시의 논리적 근거 없는 醫療行爲에 대해 비판하였는데, 첫째

小兒氣喘에 世俗에서 土皇을 犯했다 하여 呪術法을 행하여 치료하는 것을 비판하였고, 둘째 病者의 發病原因을 중시하지 않고 病者가 태어난 年·月·日·時를 五運六氣와 연결시키는 기계적인 運氣鈐法을 비판하였고, 셋째 龐安常의 《傷寒總病論》에 나오는 《聖散子方》이 燥熱助火之劑인데도 溫疫의 질병에 어떠한 경우를 不問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비판하였고, 넷째 上古時代의 순수한 정신적 치료방법인 "祝由"가 師巫·降童·師婆들에 의해 人民을 현혹하는 術法으로 변질된 것 등을 비판하였다.

〔參考文獻〕

1. 裘沛然, 中醫歷代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2. 金重漢, "張介賓의 醫學思想과 理論批判에 對한 硏究", 慶熙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6.
3. 金重漢, 金達鎬, 韓·中醫學簡史, 부산: 小康出版社, 1995.
4. 圖書集成醫部全錄 11卷, 서울: 大星文化社, 1986.
5. 上海中醫學院編, 中醫內科學, 上海: 商務印書館, 1975.
6.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7. 李經緯 外10人, 中醫人物詞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8.
8.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0.
9. 傅維康 外6人,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10. 中國醫學大系 卷三十四, 서울: 麗江出版社, 1986.
11. 陳無擇, 陳無擇三因方 卷八, 台北: 旋風出版社, 1973.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14.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4.
15. 華陀, 華陀中藏經, 台北: 自由出版社, 1978.
16. 滑壽, 難經本義, 台北: 旋風出版社, 1977.
17. 漢醫學大辭典, 서울: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1985.